



8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8호

(루계 제 634 호)

◆◆◆◆◆◆◆◆◆◆ 차 례 ◆◆◆◆◆◆◆◆◆◆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4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6
고향집앞에서도 인민을 생각하시며	7
추억 깊은 모란봉	8
오늘도 혁명의 1 세가 서 있네	9
시문학의 붓대는 총대를 노래하는 붓대여야 한다	10
우리 나라에서 전기의 도입	13
작가의 참모습	14
명언해설	26
모란봉 꽃시초	27
651 호 항로	30
그들은 열명이였다	39
붉은 복숭아 (외 2 편)	40
숲	40
우산장의 밤	40

붉은기와 대홍단 (외 1 편).....	41
사랑하는 처녀야	41
대홍단의 아침에	42
단편소설 《옥이》에 비낀 작가의 얼굴	43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	46
시대의 요구와 단편소설	49
간직하노라	52
대오가 떠날 무렵	53
해방전 대중가요와 민족문화유산.....	56
《노아의 홍수》	60
이상한 목소리	61
《트로이 목마》	70
《문명감각》	71
컴퓨터와 전자악기	80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지금 새로운 역사적단계에서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에 힘 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선전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아들여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힘 있는 무기이며 당의 령도를 문학형상으로 받들어 나가는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전통교양에 힘 있게 이바지하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의 하나이며 우리 작가들의 성스러운 본분이다.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에 몸 바쳐 투쟁하도록 고무하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 혁명전통교양주체의 작품창작을 떠나서는 당사상사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의 근본사명을 옹호 수행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이 얼마나 활력 있게 전진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시대가 전진하면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질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혁명전통교양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혁명전통교양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장엄한 역사적시대에 살며 혁명하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이 이룩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이룩되고 있는 오늘 혁명전통교양은 마땅히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주체의 문학작품창작도 더욱 적극화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시기에 혁명전통교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 나가는데서 불멸의 리정표로 되며 이 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서 고무적기치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현시기 혁명전통교양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 힘을 넣는것이다.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은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령도자에 의하여 끊임 없이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심성상에 걸치는 혁명령도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 력사로 수 놓아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굳건히 고수하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지구를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전면시키시고 온 나라의 모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믿음직한 거점으로 꾸리시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혁명전통교양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는 문학형상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사상리론들과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 그 길에서 이룩하신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

로 빛나는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부터 먼저 찾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는 우리 문학이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하여야 할 영원한 형상원천이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도록 적극 고무하는 빛나는 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정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의 혈전만리를 헤쳐 오면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한 항일선렬들의 형상을 감동 깊게 창조하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날아 오는 적탄도 서슴없이 막아 나서는 가장 투철한 육탄정신, 성세, 방패정신이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건결한 혁명정신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슴속에서 신념과 의지로 굳게 다져 지고 힘 있게 고동친 이 고결한 혁명정신을 감동 깊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면 천만대적이 달려들어 도 끄떡하지 않는 억센 담력과 배짱이 생기고 원쑤들과 일단 맞서면 결판을 내고야 마는 무자비한 기질을 발휘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선렬들이 맨주먹밖에 없는 밀림속에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죽였으며 혁명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투쟁한 그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형상으로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풍으로 싸워 나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고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여도 능히 극복타개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주제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오늘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건인불발의 의지로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잘 그리는것이다.

지난 여러해동안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류례없이 간고하였다. 우리 인민이 걸어 온 《고난의 행군》의 영웅서사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천만시련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힘 있게 확증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굽이칠 때 도처에서 강원도와

평안북도 토지정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창조될수 있으며 온 나라에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가 세차게 내려쳐 세기적인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는것이다.

작가들은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주인공의 성격적바탕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있게 심어 주어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전통이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얼마나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가를 생활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현시기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형상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아직도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일부 작품들에서는 사실의 전달,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에 대한 해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나지 못하거나 주인공의 형상을 도식과 류형에 얽매어 놓고 생활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것과 같은 진부한 형편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견인력과 감화력이 약하며 형상의 새로운 맛을 느낄수 없다. 특히 혁명투사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현시대의 사상미학적리상의 높이에서 생활과 인간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부족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들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그 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주제의 문학작품들의 의도적으로 더욱 활기 있게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이 매우 소극적으로 창작되고 있으며 량적으로 많지 못하다. 이것은 작가들이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를 창작활동에 옮겨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작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을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사업은 혁명전통교양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가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잃어 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력사의 교훈에 비추어 불태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계승완성과 직결된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혁명의 필봉을 더 억세게 틀어 잡고 혁명전통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조국해방 55돐을 맞이하는 지금 온 나라 전체인민의 가슴마다는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기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 제일로 사랑하시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주체73(1984)년 봄과 가을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어 준다.

화창한 봄날, 온 나라는 씨불임전투로 끓고 있었지만 오래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은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것이라는 예보를 받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럼 되였다고, 시름이 놓인다고 하시며 지금 북반부지역이나 남반부지역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시였다. 일기예보대로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가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다 왔는지 일아 보도록 하시였다.

북반부지역에는 대체로 많은 비가 왔으나 남반부지역에는 적게 왔다는것과 밤에 또 한차례의 비가 올것으로 예견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저녁 집무를 보시면서도 남반부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가를 자주 알아 보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더는 걱정하시지 마실것을 말씀 드리자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남녘겨레들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아 같것이 아닌가고, 그러자면 남녘땅에도 비가 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지나 깊은 밤이 되어서야 남조선전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늘 남녘동포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분렬된 조국에서 사

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만이 최고의 애국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투신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걱정이시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그것으로 걱정이시였다.

그해 8월 말과 9월 초 남반부지역에는 무더기비가 내렸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날이 저물도록 밖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가 자꾸 내리니 남조선인민들이 걱정된다고, 이렇게 비가 퍼부으면 남조선에는 큰물이 지는데 그러면 남조선인민들이 또 고통을 당할것이 아닌가고 하시며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며칠을 두고 쏟아진 폭우는 끝내 남조선에서 물란리를 일으켰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수행원들과 겸소한 저녁상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을 생각하니 밥이 목에 걸린다고 하시며 무슨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지 연구해 보라고 하시였다.

다음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려울 때 벗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한 피줄을 이은 남녘동포들에게 우리가 보다 큰 구제대책을 세우자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해를 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구호물자를 보내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것은 동포애의 정을 보내는것인데 거기에는 한점의 티도 없어야 한다고, 알알이 고르고 오리오리 다듬어서 보내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애에 떠받들려 구호물자는 분렬의 장벽을 넘어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수십년 일어 붙은 분렬의 장벽을 뚫은것이다.

정녕 오늘 우리 민족모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르고 있으며 장군님의 령도아래 삼천리강토우에는 반드시 강성부흥하는 통일조선이 일떠 설것이며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것이다.

고향집앞에서도 인민을 생각하시며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항일전의 그 나날 백두의 밀림속에서 세차게 나뭇기던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 가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힘 있게 내닫고 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 밀영을 찾으시였다.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기는 내 고향입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향-백두산밀영.

얼마나 고귀한 추억, 얼마나 성스러운 력사가 깃들어 있는것인가.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뿌리 내리고 그 만년초석인 혁명전통이 마련된 백두산.

여기 백두의 원시림, 총포성 그칠새 없는 전장에서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로 탄생하시여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시며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 슬기를 키워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돌이켜 보면 10여년만에 또다시 백두산밀영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흘러 간 그 10여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면 불휴의 로고를 바쳐 가시며 조국과 민족,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피눈물바다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여 수령님의 유훈관철로 불려 일으키신 경애하는 장군님. 날로 우심해 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속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선군혁명령도로 백두령장의 슬기와 담력을 펼치시며 원수들을 전몰케 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내신 경애하는 장군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 마당에 들어 서시였을 때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버지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던 자장가의 노래소리가 오늘도 들려 오는듯 싶고 장군님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스며배어 있는 생가앞에서 기념으로 독사진을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 올리였다.

백두산밀영의 강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래 전에 밀영에 오시였을 때 백두산밀영의 설경이 좋은데 겨울에 꼭 오시여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하시였다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고향집앞에서 사진 찍으신 장군님의 영상을 뵈옵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꼭 사진을 찍어 주실것을 간청 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동안 생각 깊은 시선으로 고향집을 둘러 보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머리를 저으시며 우리 인민들이 아직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자신께서 어떻게 고향집앞에서 사진을 찍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사진을 찍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사령부귀틀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를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원상 그대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전적지보존관리와 혁명전통 교양사업을 보다 개선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밀영을 찾으신것이 고향집방문이 아니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현저지도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그이를 따라 걸었다.

고향집! 누구에게나 고향집이 있고 그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다.

누구나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서게 되면 애뜻한 향수에 잠기게 되고 감회도 뜨거워 진다.

하건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0여년만에 고향집앞에 서시여서도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였으니 우리 장군님 같으신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동서고금 그 언제 또 있었던가.

그렇다.

혁명의 길이 그 아무리 간고하고 천만시련이 겹쌓인다 해도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이길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추억 깊은 모란봉

정은옥

추억의 봉우리

봉우에 올라서 보니
마음속에 또 하나의 봉이 일어 섭니다
우리 장군님 간직하신 추억의 그 봉우리가

여기 을밀대의 푸른 섬돌에 비겼습니다
해방의 봄날 우리 장군님
어머님 모시고 오르시던 잊지 못할 그날들이

여기 숲속의 좁은 오솔길에 간직했습니다
전후의 봄날 우리 장군님

어린 나무 심어 주신 잊지 못할 그 사연들을

안아 보고, 쓸어 보고, 더듬어 보면
이 봉 어디라 없이 꼭 차 있는
못 잊을 추억, 사랑의 추억

내 어찌 이 봉의 높이를
다만 흙과 바위가 쌓인 높이로 뜻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천정에 아슬히 솟은 이 봉의 높이는
우리 장군님 그 추억으로 끝 모를 높이입니다

한떨기 꽃나무앞에서

내 다는 모르고 올랐어요
여기에 꽃은 왜 이리도 많이 피는지
여기에 꽃향기는 왜 이리도 목 메이는지

올라서 보니
송이송이 꽃잎에 어려 와요
해방의 봄날 이 꽃을 붙들고
더운 눈물 떨구신 어머님 모습

송이송이 꽃향기에 실려 와요
고향처럼 평양의 모란봉을 그리던 전우들
백두밀림 이름 모를 나무밑에 묻고 왔다고

그리도 아프게 하시던 어머님 말씀

가슴이 젖어 와요, 무거워 저요
한송이 꽃도 한가닥 꽃향기도
그날의 못 잊을 추억으로 뜨거운 산

내 다시금 간직해요
평범한 날에 즐겨 쓰던 말
산 같은 무게란 그 말을
진정 이 산의 무게는
어머님 떨구신 그 눈물의 무게인줄을!

잔디는 붉어

잔디야 이 산촌 어디에나 있겠지만
모란봉의 잔디는 가슴 젖는 잔디
내 지금 결의터의 푸른 잔디 안아 보며
못 잊을 고노골의 그 저녁을 생각하네

해는 저물어
노을빛도 고노골을 내리는데
우리 장군님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님의 묘소를 차마 못 떠나

이 봉을 내리지 못하셨지

지금도 노을빛은
연두빛 잔디잎을 쓰다듬는데
생각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그날의 어머님 묘소-
오늘의 결의터를 못 떠나는 내 마음에
아, 잔디는 붉어, 모란봉의 잔디는 붉어

수령님의 모란봉

우리 장군님 집무실의 창문을 여시고
자주 바라보실 이 봉우리
그 다정하신 눈빛으로
하나하나 더듬으실 이 봉우리
그 추억속에 어리는 이 봉의 길들은
어버이수령님 그리도 사랑하시여
달리던 차도 세우시고 걸어서 오르시던 길
그 추억속에 설레일 이 봉의 청솔은
어버이수령님 그리도 아끼시여
부러진 가지 하나도 정히 쓰다듬으신 나무

오늘 아침도 창문을 여시고
은빛해살너머 정답게 더듬으셨으리

피 흘려 찾은 이 봉우에
인민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자고
해방의 봄날 뜨겁게 하시던 수령님 말씀
그날의 그 음성, 그 사랑을 안고
파도쳐 설레이는 이 푸르름을

아, 모란봉
우리 장군님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해빛을 주시는 모란봉-
정녕 모란봉, 모란봉은
우리 장군님 추억속에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의 모란봉!

청류벽

맑은 물결 굽이 도는 청류벽-
푸른 네 모습
푸른 네 이름
내 마음 불러 세우네

다가서니 바위라기엔
네 모습 너무도 릉름해
우러르니 절벽이라기엔
네 모습 이리도 아름다워

너의 기세찬 이마우엔
세월의 풍상고초 다 어렸어도
오히려 머리 들고 오늘앞에 나선

억세인 저 푸르름

우리 장군님 애국의 의지 버리시던
유서깊은 절벽아
네앞에서 자란 평양의 아들딸들은
불타는 전호가에 서도
마음속에 너를 성문처럼 안고 싸우리

아, 조선의 자랑 청류벽-
울적마다 내 마음속에
이 땅의 팔임을 궁지높이 깨우치며
소리없이 일어서는 청류벽아!
머리 들고 일어서는 청류벽아!

가사

오늘도 혁명의 1세가 서 있네

송정우

수령님 손길에서 자라난 투사들
장군님 품에서 끝까지 혁명하네
붉은기 날리는 주체의 길우에
오늘도 혁명의 1세가 서 있네

수령님 아끼시던 혁명의 원로들
장군님 언제나 보살펴 주시네

승고한 사랑과 의리에 받들려
오늘도 혁명의 1세가 서 있네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치며
마음속에 백두의 군복을 입고 사네
새 세기의 태양이신 장군님 옹위해
오늘도 혁명의 1세가 서 있네

시문학의 붓대는 총대를 노래하는 붓대여야 한다

-잡지 《조선문학》(주체89년 1~5호)에 실린 시작품을 읽고-

김의준

총대는 곧 선군정치의 표대이다.

우리의 총대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강성대국건설의 각오가 다져져 있다.

총대로 개척한 조선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인 것이다.

오늘 시문학의 붓대는 총대를 노래하는 붓대로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문학이 붓대를 높이 추켜 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사랑알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혁명적원칙, 마치고 낫우에 총대가 있다는 혁명사상, 군대는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을 심어 주어 선군정치관철에 떨쳐 나서도록 불려 일으켜야 할 때이다.

시대의 요구를 자각한 시의 붓대는 올해 상반기 다섯달에만도 우수한 시들을 많이 냈다. 거기에는 서정시들뿐 아니라 장시, 서정서사시, 서사시들도 여러편 있다. 큰 형태의 시들에 대하여서는 따로 고찰할 기회가 있을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서정시들을 살펴 보는데 국한시킨다.

선군정치숭배심

선군정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은 곧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다.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부터 선군정치에 대한 견결한 옹호정신, 철저한 관철태도가 나온다.

상반기기간 시문학은 정당하게도 선군정치, 선군령도를 품위 있게 노래하는데 붓길의 중심을 두었다.

시 《경축》(김영길)은 깊은 사색과 풍만한 서정, 값진 량만을 독특하게 결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업적을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뜻 깊은 2000년대 첫 아침을 맞는 시인의 경축체 함부터가 퍼그나 개성적이다.

동녘에 등실 솟은 해를 2천년대 첫 아침의 축등으로 띄워 놓고 설경속에 곱게 비친 쌍무지개를 쌍땡기로 드리워 놓고 맞는 설날이다. 경사스러운 아직 흰 눈이 따뜻이도 감싸 덮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욱, 그 자욱자욱을 새겨 보는 순간 시인의 사색은 깊어 지고 가슴은 마구 달아 오른다.

고난을 헤쳐 가신 흔적입니다

신념을 새기신 증표입니다

세기의 마지막언덕을

구보행군의 결승선으로 앞장서 넘으시며

이 땅 북변의 첫 기슭에서
멀고 험한 최전연 끝까지
끝없이 오고가신 그 자욱자욱

대흥단등판이라
자강땅의 구석진 골이라
차디찬 흰 눈우에 찍으신 자욱자욱은
조국 위해 헌신한 날과 달입니다

천만리 전선길 그 어디메라
위태로운 천길낭끝
진흙탕물 텅기는 고지길에 새기신 자욱자욱은
인민의 행복을 쫓피우며 바치신
휴식일과 명절입니다

인용된 구절만을 통해서도 독자들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날과 달, 휴식일과 명절을 다 바쳐 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자욱자욱을 사무치게 느껴 안는다. 눈은 녹아 사라져도 마음속에 별처럼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위해 헌신한》, 《인민의 행복을 쫓 피우며 바치신》 로고와 심혈의 그 자욱자욱을 소중히 간직한채 시인과 더불어 감격에 겨워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설경축인사를 드리게 되는것이다.

설날은 세상이 다 맞는 날이다. 그러나 시인은 선군정치의 견지에서 세상이 다 맞는 날을 누구도 하지 않은 새말로 노래하였다.

이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할 선군정치를 시화하면서 형상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다. 시에는 요란한 수식사나 험란한 미사려구도 쓰이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옮기거나 사실을 미화분석하고 과장하는 공허한 웨침도 없다.

시는 지난 시기 새해를 맞이하여 씌여진 일부 시들이 구체적인 생활정서가 없이 지나온 한해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운문》으로 《개괄》하던 진부한 창작태도와는 달리 설눈우에 찍힌 장군님의 자욱자욱이라는 구체적인 생활정서를 시의 핵으로 틀어 쥐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시화하였다. 《장군님의 자욱자욱》에 대한 소박하고 진실하면서도 정서 깊고 폭 넓은 시적일반화에는 시인이 독창적으로 찾아 켜 종자가 있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인 얼굴이 있으며 발견이 깃든 참신하고 풍만한 서정이 있다. 독자들은 시인이 선군정치와의 관계에서 의의를 부여하고 평가한 《장군

님의 자옥자옥》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시 《봄날의 꽃속에 꺾어 계시라》(정성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꽃을 마련하는 우리 인민의 깨끗하고 절절한 마음을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시에는 전선길 천만굽이와 공장길, 농장길 천만리를 걸으시느라 로고 많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탄생일에만이라도 꽃향기속에 즐거이 쉬여 주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밝은 서정으로 충만되어 있다.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어버이장군님의 은정과 사랑을 못 잊어 피운 2월의 꽃은 봄에 의하여 핀것이 아니라 봄을 싣고 왔다는데 이르러서는 독자들의 마음이 후련히 열리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게도 된다. 그러나 이 시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창작된 적지 않은 시들과 마찬가지로 꽃에 축원의 마음을 담는다는 내용을 더 벗어 나지 못하였다.

선군정치시대 우리 인민의 숭배감과 의지, 습결과 정서가 덜 느껴 진다. 아쉽다. 아쉬움이 크던 나머지 올해의 2월명절 꽃은 선군정치의 총대에 의하여 보호되고 무성한것이어서 류달리 더 크고 싱싱하고 그 아름답고 향기 짙어 소중히 느껴 지며 이 꽃을 평양으로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는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꽃속에 영원히 꺾어 계시라고 삼가 축원하였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품어 보게 된다.

총대서정

선군정치숭배심은 서정화되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 시문학의 서정은 총대서정이여야 한다. 총대서정이란 총대로 정치도 펼치고 총대로 혁명도 령도하고 총대로 경제도 부흥시키고 총대로 인덕도 베푸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서 환기 받은 구체적인 정서를 시인이 심장으로 려파시켜 분출시킨다는것을 뜻한다. 오늘의 현실은 시문학의 붓대로 하여금 총대서정을 때로는 다정하고 설득력 있게 때로는 격조 높고 열렬하게 때로는 우렁차고 줄기차게 노래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총대서정을 민감하고 진실하게 담은 시라야 실감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큰것이다. 시에 총대서정이 없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선군정치의 서정이 담기지 않았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시의 생활감정이 선군정치현실과는 맞지 않게 조작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시적소재를 능란하게 노래하였더라도 거기에 총대서정이 굽이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적요구를 떠난 한갓 감정의 회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시는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가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울려 줄수 없다. 총대서정이 잘 구현되면 시는 살고 그렇지 못하면 시는 죽는다.

시 《총대는 우리의 운명》(함정연)은 총대로써만 자신의 운명, 민족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고 빛내일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 선군정치의 정

당성을 높은 지성과 심오한 서정속에 장쾌하게 노래하였다. 시를 읊노라면 서정적주인공과 더불어 꿈꿨던 시절 꼭 총대를 잡게 된 절박한 심정이 되살아나고 수난의 시절 총이 없어 왜놈의 총에 맞고 칼에 찌혀 죽어야 했던 처지가 되새겨져 가슴을 치게도 된다.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피로움으로 눈물을 삼키시면서도 오로지 총을 위하여 남모르게 참고 견디어 오신 우리 장군님의 그 심중이 헤아려져 감격에 울먹이게 되고 총을 틀어 쥐면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총이 없으면 노예로 죽는다는 자주적삶의 철리에 가슴이 불 타오르기도 한다.

총이여
네가 없으면
살아 노예의 사슬을 피할 길 없고
죽어 묻혀야 할 한치의 땅도 없어
우리는 총을 잡았다

...
오, 총이여
너는
맞서 싸우면 이기고
앉아 굴복하면 죽는다는
자주적삶의 철리를 깨우치는
혁명의 보검

불속에도
너를 틀어쥐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이긴다

꿈결에조차
너를 놓치면
우리는 죽는다
명줄이 끊어 진다

그때문이며라
장군님의 정치도
총대중시의 정치!
장군님의 령도도
총대위주-선군혁명령도!
장군님의 철학도
용군애민의 철학

음미할수록 시에 열렬히 굽이치는 총대철학, 총대서정이 풍만하게 육박해 온다. 자칫하면 생경한 론리적웨침으로 떨어 질수 있었던 소재를 끝까지 높은 열정으로 시화하였다. 때문에 독자들은 노예의 죽음이나 자주적삶이나 하는 길에서 끝까지 틀어 잡아야 할 우리의 총대는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는 시인의 의미심장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는것이다.

런시 《나는 불이 되련다》(한창우)에서 《나는 불이 되련다》와 《무릎책상》은 박력 있게 빛발치는 총대서정으로 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능히 울릴만하다. 《나는 불이 되련다》는 아직 채 정제되지 못한 생경한 표현들이 다소 없지 않으나 서정적주인공이 백두에서 타 오른 불길을 그대로 심장에 옮겨 놓은 《조선의 총 권 불의 시인》이 되어 온갖 시대의 오물들을 태워 버리고 병사들의 심장엔 용맹의 불길로 타 오르며 장군님 위업 실현하는 길에서 한줌 재로 사라진대도 기꺼이 한몫 내 대리라는 걱정 넘친 토로는 독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 준다.

오, 이몸 불로 타
장군님 사상의 불길에 보람이 된다면
내 통일성전에 한몫 재로 사라진대도
기꺼이 이 몸을 내대리라
온 세계를 주체의 붉은 노을로 물 들이는
그 노을속에 타리라

무게 있는 철학과 풍만한 정서로 하여 사람들을 사색에 잠기게 하는 결구이다.

시 《무릎책상》도 현시기 시인들이 취해야 할 전투적인 창작자세와 창작기풍을 특색 있게 형상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다그치는 전투행군의 실참에 발싸개를 다시 감을 새도 없이 달빛을 조명심아 땀에 젖은 무릎을 책상으로 삼고 전투적인 글을 써 내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에서는 총대서정이 흘러 나온다.

상반년 다섯달동안 시문학의 붓대는 총대에 의하여 지켜 지고 룡성번영하는 인민들의 생활도 다채롭게 서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정서깊이 노래한 시들이 많다. 시 《그 위대한 손으로》(김송남)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범한 과학자대의원립후보에게 찬성의 한표를 마치시려 천리전선길을 지나 달려 오신 감격적인 사실에서 서정을 퍼내고 있다. 선거표를 받아 드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위대한 손으로 과학기술의 제일왕국으로 빛날 조국의 영광을 들어 올리시는 력사적인 모습으로 개성 있게 노래하였다.

시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들으며》는 과학지구 구내에 푸른 숲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가식없이 소박하게 인상 깊게 형상하였다.

총대에 의하여 지켜 지고 꽃피나는 생활을 노래한 시들가운데는 양어를 잘하여 누리는 행복과 토지정리가 멋지게 되어 누리게 된 기쁨을 읊은 시들이 특별히 많다.

시 《풍어기는 날리지 않아도》(리동수)는 중대 양어장에 풍어기는 나뭇가지 않아도 그물이 터지도

록 떠내는 잉어풍년의 자랑 큰 생활을 통하여 산중 초소에 양어장을 마련해 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 그에 따르는 병사들의 양양된 충성심을 총대서정이 출렁거리게 랑만적으로 노래하였다. 시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장원준)는 바다 멀리 떨어진 산촌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 조건에서 풀뿌리를 씹고 나무껍질로 끼니를 이으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작은 시내물을 막아 큰 바다-양어장을 만들고 누리는 긍지와 행복감을 감동 깊게 서정화하였다.

토지정리로 하여 전변된 고향땅에서의 절절한 체험을 총대서정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시로서는 《젊어 진 고향벌에 첫씨를 뿌리며...》(고남철)가 감동적이다. 젊어 진 고향땅의 솟부드러운 흙을 살결로 지니고 흐르는 맑은 물을 피로 가진 서정적주인공은 기껏 감이 들어 흙발 고운 모판에 금싸락 같은 벼씨앗을 뿌리는 순간 한드레벌의 꿈같은 전변을 두고 환희의 걱정을 터뜨리기전에 어찌하여 눈물머금고 울먹이는것인가.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벌의 전변이 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가 아니다. 대한날 새벽 이 벌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욱 따라 기계화군단을 이끌고 달려 온 차수도 장령들도 병사들도 《눈비속에 연밥을 깨물며/무엇이 없으면 생을 바치면서》 이룩해 놓은 전변이어서이다. 선군정치의 덕으로 한껏 젊어 진 고향벌에 뜻 깊은 첫 씨앗을 뿌리는 서정적주인공의 벽찬 감정세계를 절제 서정화한것으로 하여 시는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이밖에도 양어의 기쁨과 그에 잇닿은 생활의 행복상을 맑고 락천적인 정서속에 노래한 시들로는 《호수가의 생각》(박경심), 《내 고향의 새 풍경》(리영철), 《해가 웃네 물이 웃네》(박정애) 등이 있고 토지정리로 면모가 일신된 협동벌을 감격에 겨워 읊은 시로는 김휘조의 《나는 지금 태천땅에서 있다》, 《장산리라 오리골에》와 《토성벌의 봄밤》(김명철), 《고향벌에 울리는 발동소리》(한기운) 등이 있다.

이 시들은 그것대로 일정한 감흥을 자아낸다고 할것이다. 양어의 보람찬 생활정서를 담은 시들만 하여도 살진 고기떼 뛰노는 천리양어장이 생겨 변모된 고향의 눈 부신 새 풍경을 바라보며 실버들 흐느적이는 호수에서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하고 웃음짓는 물과 함께 해와 함께 행복의 웃음발 날리며 즐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은 독자들의 마음을 맑게 해준다. 토지정리로 변모된 농촌모습을 노래한 시들에서 불도젤동음을 강성대국으로 된 조국이 새 세기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으며, 대평원으로 펼쳐진 태천땅을 세상에 부럽없을 락원의 한 구역으로 느끼며 변모된 토성벌에 나와 봄밤을 지새우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정서도 독자들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시들을 읽고 나면 허전한 감을 금할수 없다. 확 끌리어 들어 가게도 안되고 다시 읽고 싶은

욕망도 안생긴다. 오늘의 숨결, 현실의 박동이 덜 느껴 온다. 전후부터 90년대초에 이르는 사이 이런 시들을 많이 읽은듯한 감이 든다. 왜 그럴까?...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고 본다. 시대정신, 시대정서인 총대정신, 총대서정이 풍만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 아닐까?...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할 생각으로 시인들은 새로 생겨 난 양어장들과 한드레벨이나 토성별로 달려 갔다. 보는것, 듣는것이 모두 희한했고 감탄을 자아냈다. 그래서 지체없이 붓을 들어 노래했다. 화려한 시들이 나왔다. 끼마다 펄펄 뛰는 물고기반찬이 오르는 푸짐한 식탁, 기계가 룬무하고 오곡이 물결치게 될 규격포전들, 웃음꽃 만발하는 행복한 살림살이... 시인들은 황홀한 결과만을 보았다. 그들의 붓대는 감동적인 생활을 소묘하였을뿐 총대서정을 깊이 파고 들어갔는 하지 못했다. 양어장물가에 서서, 한드레벨과 토성별 한복판에 서서 눈앞의 풍경을 《관망》하면서 감탄하기전에 참으로 팔목할만치 희한한 사실인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양어장을 파주고 토지를 정리해 주는 경이적현실을 직시했어야 하였을것이며 심장으로 절감했어야 하였을것이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그것을 위하여 《눈비속에 언뱓을 깨물며/무엇이 없으면 생을 바치면서》 해낸 군인들의 고결한 넋과 위훈앞에 감격의 눈물을 아니 흘릴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시인들치고 인민들이 새로 마련된 양어장의 물고기를 건져 안고 그리도 대견히 여기고 농장별의 정리된 한평 논밭을 밟으면서 그리도 소중히 여기는것은 그것들이 다 적의 악랄한 봉쇄, 고립, 압살, 제재속에서 총 멘 군대의 힘을 입어 이룩해놓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이기때문이라는 것을 모를수 있겠는가.

양어를 잘하고 토지를 잘 정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이미부터 집행되어 오는 항구적인 일이다. 따라서 양어나 토지정리를 소재로 창작한 시들이 많

상식

다. 앞으로도 계속 창작될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것은 같은 생활소재라도 노래하는 시대가 다르고 서정적주인공이 다른것만큼 담겨지는 시대정신, 시대정서가 같을수 없다는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선군정치보검이 땅에 닿아서 토지가 정리되고 양어장이 생겨 나며 바다에 닿아서 소금밭이 펼쳐지고 하늘에 닿아서 인공위성이 날아 오르는 시대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에는 반드시 총대서정, 선군정치서정이 풍만히 일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억압받던 농민들의 재생으로 특징지어지는 해방직후의 시대와도 다르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개조로 특징지어지는 천리마시대와도 다르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와도 같지 않은 선군정치시대의 특징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창작되는 모든 시에 꼭 《선군정치》라는 표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것이 아니다. 직선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모든 생활이 선군정치의 관계속에서 탐구되고 분석되고 형상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시의 전면에 선군정치시대의 숨결과 맥박이 형상적으로 참신하고 역세고 즐기차게 태동하여야 하는것이다.

오늘 총대서정을 구현하는것은 시의 소재나 주제, 형태나 양상의 특성에 따라 실현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총대서정은 시의 종자와 소재, 형태와 주제, 양상에 관계없이 모든 작품에 구현하여야 할 형상적피이고 살이고 넋이고 숨결이다. 총대서정이 충만되지 않은 시는 강성대국건설에 펼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큰 가치가 없다.

시문학의 붓대는 반드시 총대를 노래하는 붓대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명시풍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우리 나라에서 전기의 도입

전자기현상에 관한 일련의 과학적법칙을 기초로 하여 발전, 송전, 배전과 축전, 리용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전기에네르기공학이 생겨났다.

19세기 초 영국의 길 볼트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전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자공학이 창설되고 발명이 에디슨에 의하여 백열전구가 생겨난 후 전기의 리용분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인류문화의 급속한 발전이 이룩되게 되었다.

전기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 온것은 1883

년이다. 미국 에디슨전기회사의 전기기사 윌리엄은 고종황제(1852-1919)의 요청으로 경복궁안에 3kw 용량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하여 궁중건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에 전등을 켜게 하였다. 그후 1889년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서울 종로의 가로등 3좌에 전기불이 켜졌다. 1905년에는 평안북도 운산군에 광석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작가의 참모습

김 철

나의 행운

나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우리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우리 문학작품도 알게 되었다. 만일 조국 해방이라는 민족적대행운을 받아 안지 못했더라면 오늘에 와서 작가는 고사하고 제 나라 글과 말, 이름조차 못 가진 식민지노예로 값 없는 생을 마쳤을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글로 씌어 진 시와 소설을 읽고 우리 말로 대사를 주고 받는 연극을 감상하게 된것은 나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나에게 훌륭한 문학작품을 선물해 주는 작가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 《백두산》을 쓴 시인들은 어떻게 생긴분들이고 《개선》과 《땅》, 《퇴성》을 쓴 작가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만나 봤으면... 만나서 말이라도 해봤으면!...

훌륭한 문학작품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 졌고 보고 싶은 모습도 많아 졌다.

도서관에서, 학교, 문학소조에서, 전선길과 초소, 전호속에서 그들은 내 생활의 다심한 길동무였고 문학수업의 선배들이며 선생들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속에서》, 《나의 따발총》, 《어려리별》, 《증오의 불길로써》, 《영웅의 땅》, 《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시집들과 서사시의 갈피갈피에서 나를 부르는가 하면 《불타는 섬》, 《승냥이》, 《구대원과 신대원》, 《싸우는 마을사람들》속에서 은근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고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 《우리를 기다리라》, 《바람 부는 고원지대》의 무대막뒤에서 손짓하기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많은 작가들이 종군하였다는데 우리 부대에 오는 작가는 없었다. 우리 부대에는 기자도 배우도 지어 소좌급이상의 군관조차 나타난 일이 없었다. 우리 부대장도 소좌였다. 최고사령부로부터 전선군부대 지휘부들까지 여러갈래 수백키로메터구간에 수십개의 통신초소가 분대단위로 분산배치된 그런 독립구분대의 일개병사였고 외딴 독립초소의 초소장이었던 나에게까지 어찌 온 나라에 몇사람밖에 안된다는 작가들이 찾아 올수 있었겠는가.

다행한것은 출판물이 빠짐없이 배포되어 오는 것이었다. 부대 기동통신원들이 수백키 불비속을 뚫고 배낭짐으로 날라 오는 각종 신문, 잡지들, 소책자와 《전선문고》들, 문학도서들이 부대 정치부에

도착하면 정치부에서는 내가 있는 초소에 제일 많은 몫을 배정하였다. 내가 한개 초소의 초소장이면 서도 중대민청위원장, 대대예술소조책임자에 자칭 《철필신문》, 《혈맥》의 《주필》이고 《조선인민군》의 열성통신원이었기때문이였으리라.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출판물이 오는 날이면 휴대용전화기와 예비선통구리를 메고 선검열을 나갔고 이웃 초소에서 마주 오는 통신병의 어깨에서 출판물보따리를 넘겨 받았다. 그런 날을 나는 작가들을 만나는 날이라고 불렀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 최고사령부로부터 우리 부대에 장령 한사람이 내려 왔는데 그가 부대의 전투정치훈련정형을 료해하고 돌아 가기에 앞서 부대지휘부에 나를 불렀다.

어깨우에 주먹만한 왕별을 엮고 바지에 손바닥만 큼 넓은 붉은줄을 쌍으로 드리운 장령이 잔뜩 긴장한 자세로 들어 서는 애젊은 중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동무가 이 시편들을 썼다면서? 부대장동무가 하도 자랑하기에 나도 읽어 봤더니 정말 그럴듯하오.》

장령은 군대출판물이랑 문예총기관지 그리고 전승기념도서로 출판된 종합시집 《수령은 부른다》들 가리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조기천... 박세영... 안룡만... 김조규...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이 프르르한 시인들이 아닌가. 응 이런 사람들이 쓴 시와 동무가 쓴 시가 어깨를 맞대고 있잖아. <김일성장군께>, 이 시를 정말 동무가 썼나?!》

《...》

정치부대장이 나를 대신하여 대답해 주었다.

《제작년 장군님 탄생 40돐때 부대 씨클에서 랑송하구 연락선을 통해 각 초소에도 알려 주었던 시지요. 제가 부대에서만 알고 있기 아쉽다고 중앙에 보내자고 했지요. 그 누구드라. 오, 김상오, 그 시인에게 이 동무가 편지와 함께 보냈드랬지요. 그랬더니 몇달후에 이 잡지에 <군관 김영철>이라는 직급과 이름이 붙어 발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무 시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이 동무 시가 100% 옳았지요. 아마 <문학예술> 편집부에서는 <승리를 위하여>신문사 기자동무의 시겠거니 하고 군관 아무개라고 작자 이름을...》

《아니, 어째서?! 왜서 군관 아무개것이겠거니 했단 말이요?! 중사 아무개는 이런 시를 못쓴다고 단

정했는가? 엉?)

장령은 정치부대대장의 말허리를 탁 꺾으며 성을 벌컥 냈다.

《그 군관동무는 전문가, 전문작가랍니다. 그렇지만 저야 어디...》

나는 장령의 노여움을 가서 줄 심산으로 이렇게 편집부의 실책을 밀막아 나셨다.

장령은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책상을 탁 치며 가슴을 제치었다.

《좋아, 부대장동무, 내 이 중사동무를 사령부로 데리고 올라 가겠소. 지휘국 가까이 있는 부대에 배치하구 총정치국이랑 인민군신문사랑 아니 문예총, 지금은 작가동맹이라지, 그 작가동맹에도 직방 갔다왔다하게 해주겠소. 어때? 중사 김영철! 그렇게만 되면 전문작가들과도 가까이 알게 되고 더 본 때 있게 시를 써낼수 있지 않겠나. 응?》

나는 장령의 너무도 급작스럽고 단호한 결심에 열떨떨해 저서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내놓기는 아깝지만 이 동무의 장래발전을 생각한다면야.》

부대지휘관들은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표정으로 장령을 쳐다보았다.

장령은 자못 심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선심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마오.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자는것이요. 최근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후 새 환경에 맞게 문학예술기관들을 복구정비확장하고 새 사람들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소.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겠나. 우리 인민군대에 그 원천이 있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직접 총을 들고 체험했기에 이 동무도 이런 시를 쓰지 않았소.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에도 대학생들을 대학에 소환했드렸는데 전쟁이 끝난 오늘 이런 인재를 외판 산중초소에 붙잡아 뒀야 되겠소? 동무네 부대에서는 지금껏 군무자예출축전에도 참가하지 못했지. 참 안됐소. 내 정치부에도 실태를 통보하겠소. 자, 떠납시다!》

이렇게 되어 나는 그날저녁 장령이 타고 온 차뒤 좌석에 몸을 실었다. 나를 로동당원으로, 시인으로 키워 준 지휘관, 정치일꾼들, 개성-평양도로에 나섰을 때 전조등 불빛속에 언뜻 드러났던 나의 분대병사들... 아마, 지금 그 전쟁로병들은 어디 있는지...

내옆에는 내 나이포래의 말쑥한 부관이 앉아있었고 앞좌석 등받이너머에는 시누런 장령견장이 흔들리었다. 몇달전만 하여도 온통 폐허이던 도시와 마을들이 전등불을 환하게 켜들고 차를 맞받아 왔다가는 획-획 뒤로 물러 갔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 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장령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기천의 시 한구절을 외우고 나서 등받이 너머로 나를 돌아 보았다.

《조기천이 죽지 않았다더라면 지금 이런 때 어떤 시를 뽑어 댔을가.》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 키가 동무만치나 작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시를 썼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호기심이 동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장령동지는 조기천선생을 만난 일 있습니까?》

《있잖구. 8.15때 우린 같이 원산에 상륙했드렸으니까. 그때에는 <백두산호랑이>의 시인인줄은 짐작도 못했지. 음... 멋쟁이드렸어. 담이 크겠어...

쉬-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셨다

백두산 호랑이 나셨다...》

장령의 시랑송에 부관이 합세하고 운전수까지 한 마디씩 잇대었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 뻗치고

남쪽하늘 노려 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쳐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따-웅-》 소리는 세사람-장령과 부관, 운전수가 합창으로 해제졌다. 그리고는 모두들 기분이 등 떠서 노래까지 불렀다.

문경고개는 얼마나 높던고

오르면서 70리 내리면서 70리...

나도 함께 《문경고개》를 부르면서 나에게 그렇듯 큰 충격을 주고 간 시인의 모습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었다.

...중학생때... 고향도시 바다가... 바위우에 펼쳐진 《백두산》.

겹으로 겹은 누르스름한 종이에 테를 두르고 그 안에 널찍널찍 시줄을 내리 짚은 부피 두터운 책.

그 책에 있던 삽화까지 선명히 떠오른다.

...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는 재쳐 부르짖었다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 떠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

20세기 조선문학의 최대명작 《백두산》! 《백두산》에 비낀 시인의 모습은 거인이다, 영웅이다, 호걸남아이다.

...역시 그 바다가 벚꽃이 핀 봄날이다. 나는 야의 극장무대에 나타난 인민군대 남녀배우를 주시한다.

흰 종이 두루마리를 무대바닥까지 드리우며 남성군
인 배우가 먼저 랑송한다.

...비바다에서 몰려 온 젖은 안개속으로
침묵이 소리날듯 흐르다가도
땅! 총소리
밤을 깨여 날아 지난다
여기는 조선의 남단 려수
인민항쟁의 려수!
...

녀성군인배우가 다음 시편을 랑송한다.

...
어머니!
저 포격소리를 들습니까?
하늘이 찢지듯 땅이 깨지듯-
바로 항구편에서입니다
저기로
번개 다닥쳐 부서 지는듯 하는
바다쪽으로
오빠는 갔어요!
...

이렇게 배우들은 다음 다음 시편들을 엇바꾸어
랑송한다. 《그들은 셋이었다》, 《새벽에》, 《바
다여》...

주체39(1950)년 10월 조선의 남단 려수에서 폭
동이 일어난지 며칠후 우리 당보에 번개같이 나타
났던 조기천의 서정시초 《항쟁의 려수》, 그 작품
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시인의 모습이 그 이듬해 봄
날 야외무대에서 다시 더 크게 확대되어 안겨왔다.
투사, 애국자, 열혈의 전사, 이것이 조기천의 풍모
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

...
오늘저녁에도 휘파람 불었다고
복순이네 집앞을 지나며
벌써 몇달째 휘파람 부는데
휘휘... 호호...
그리고 그는 몰라 준다고
...

내 입술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가슴이 따뜻해진
다. (선생님, 당신의 모습이 이렇기도 했군요.)

조기천선생을 만나러 간다. 주체38(1949)년 12
월 함박눈 내리는 날, 그이가 내 시 2편을 보내주고
나를 만나보고싶다고 하였다지 않는가. 나는 함께
걸어가는 문학교원에게 묻는다.

《시인선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지 않은분이더라. 점잖고 친절하고 목소리는
맑고 하얀테안경을 끼더구나. 너를 꼭 데리고 오라
고 직접 만나보겠다고 거듭 말하더라.》

울렁이는 가슴을 달래며 한 신문사 접수구에 다
가선다. 주필선생-조기천선생을 만나러 왔다고, 그

런데 그때 경비원이 하던 대답-《주필선생은 오늘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감기가 도져서.》

아아, 내 그날 얼마나 실망했던가. 대시인 조기천
도 감기를 앓을수 있는 보통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가.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제 꼭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써가지고 선생님을 다
시 찾아 오겠습니다!...

그랬던 그를 미국놈들이 살해하였다. 바로 이 도
시 이 강변에서... 전리품군용차가 대동강기슭을 따
라 달릴 때 나는 무작정 뛰여 내려 시인이 전사한
집으로 가보고 싶었다.

...
나는 강변리에 산다
폭격에 지붕이 날아난 집-
불하늘이 천정이다
강둑밑에 간신히 남아 있는 방-
나는 여기서 글을 쓴다

밤마다 다정한 물결소리
꿈길을 대동강에 이끌어 놓고
만조때면 집은 부두의 선체모양
방금 어데론가 떠날상싶어
기어이 님와 만날듯하여...

마음 가벼이 설레는 물결 따라
훨훨 물 차는 갈매기를 탄듯하다가도
그만 부산히 공습싸이렌이 울리며
고사포성에 하늘이 떨칠 때면
마음은 그만 돌맹이로 파도에 떨어 저...

그담엔 공중을 물어 뜯듯 발악하는
적의 비행기소리 어지러워 지면
강 저편 거리들에서 불이 번쩍-
폭음속에서 불속에서
집들과 진주들이 부서져 솟으면

검은 연기 흙바람이
내 가슴에 가득차 숨을 막는듯
이럴 때마다 나는
붓대를 꺾을지경 누른다
이 글에 심혈을 쏟는다-

마치 먹을 늘이는 붓끝이
방금 보복의 불을 토할듯이
마치 적기와 맞선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듯이

마치 비행기사냥군이 된듯이
...

나는 승용차 앞좌석 등받이를 꼭 틀어 잡으며 마
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나라의 화가들이여, 그대

들이 시인의 초상을 그리려거든 이 화폭을 옮기라.
이 나라의 작곡가들이여, 당신들이 교향곡을 지으려거든 이 시인의 미완성유고 마지막줄에 악상을 잡으라. 《원주놈들아! 어디 보자!》

마치 내 마음속 부르짖음을 듣고나 있은듯 장령이 다시 어깨를 움찔하였다.

《조기천같은 시인이 되라구. 응 중사!

최고사령관동지의 시인이 되란 말이야!》

최고사령관동지의 시인! 이 호칭에 조기천의 참모습이 어려 있는것이 아닌가. 또한 이 호칭에 그를 닮으려는 나의 지향도 비껴 있는것이 아닌가.

승용차는 어느새 대성산언덕에 들어 섰는지 최고사령부의 불빛이 보이였다. 나는 마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는 전사같았다. 나는 행운아였다.

작가들이 모이는 집

장령은 나를 최고사령부 직속 중앙통신결속소 도서실에 배치해 주고 외출도 자주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총정치국 선전선동부며 《인민전사》 편집부, 《조선인민군》 신문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기자이며 작가들인 대위 김영철, 대위 신상호를 만나 그들과 함께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도 방문하였다.

우리가 작가동맹을 찾아 갔을 때 조기천이 《비행기사냥군》을 쓰던 집은 보이지 않았다. 시인은 자기 거처를 《폭격에 지붕이 날아난 집》이라고, 《강퓌밀에 간신히 남아 있는 방》이라고 밝혔었던 만 그런 집, 그런 방조차 사라진것이였다.

60년대초 천리마대고조시기에 그 집터우로는 옥류교가 지나갔다. 시인은 죽지 않았다. 죽일수가 없었다. 그는 오늘도 살아 있고 래일도 이세기에도 살아있을것이다...

나는 다리밀을 빠져나와 옥류관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옥류약수 음천장》이라는 간판이 붙은 나지막한 집이 다시 내 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래 이 집이지. 이 집이야. 이 집이 전후 첫시기 작가동맹청사였다. 46년전 그 봄날에는 지상 2층 반지하에 2층이었는데 지금은 지상에 한층 반지하에 세층, 주변의 지대가 높아진 관계로 집이 낮아진것처럼 보일뿐이다.

그때 맨 윗층에는 시, 소설, 아동본과가 들고 그 아래에는 조직선전부서들, 또 그아래 반지하 첫층에는 출판사가 들어 있었지. 그리고 맨아래 동그란 창문으로 강물이 내다보이는 방은 회의실로 쓰다가 그해 가을부터는 작가학원교실로 리용하였지...

잊지 못한 집, 난생 처음 이름있는 작가들을 만난 본 집이였다. 내 그때 누구를 제일 처음 만났던가. 《아침은 빛나라 선생》 박세영이였다.

그당시 인민군대출신 신진작가들이 그를 그렇게 부른데는 이런 일화가 있었다.

조국해방전쟁때 어느 한 전선사단 위수구역에 소

좌 두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차림새며 거동이 도무지 정규군대 군관들답지 못했다. 보조병인 에어린상등병은 위수규정의 요구대로 엄하게 다스렸다. 《엇! 누구야?》

눈이 툭 불거진 통토무례한 아바이소좌가 혀 짹은 소리를 했다. 《나 송영이야. 연극대본 쓰는... 요즘 이 사단에서도 그 연극 봤겠는데.》

《뭘 연극? 3보 뒤로 물러 섰!》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역시 키가 쪼꼬마하고 얼굴이 갈죽한 령감소좌가 애교 있게 웃으며 다가섰다.

《이보라구, 상등병동무.》 귀속말하듯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으로 가득한...》 《애국가》! 송엄해 진 보조병 게양되는 국기를 우려를 때처럼 꾀꾀한 자세.

《김일성장군님께서 날더러 이 노래 가사를 쓰라 하시고 친히 지도해 주셨다네.》

《아아- 그러니 <아침은 빛나라> 선생님이지군요요!》

《그래 그래, <아침은 빛나라>작가야. 우린 장군님의 파견장도 가지고 있다네.》

보초병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존함이 인찍힌 문건까지 받아 보고는 들어총! 《건강을 축하합니다. 아침은 빛나라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가 문단의 로시인 박세영에게 불어다니는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시인을 작가동맹 문가에서 만났던것이다.

일찌기 1930년대에 《산제비》를 쓴 시인, 조국해방후에는 시집 《진리》를 우리 인민에게 선물한 시인,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 《승리의 5월》을 부르게 해주었고 전화의 나날엔 《나팔수》의 쟁쟁한 목청으로 전사들을 고무하여 준 《아침은 빛나라 선생》을 만나고 보니 참으로 그는 산제비같은 사람, 맑은 아침 빛발같이 깨끗하고 맑고 다심한 분이였다.

《앵이, 나도 다시 군복을 입고 싶구만.》

신상호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대위 김영철과 나 중사 김영철에게는

《이젠 어떻게 해? <큰 영철> <작은 영철>? 이렇게 불러?》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은 묘하게 오무린다.

《그전날 같으면 긴 영(永)자하구 꽃부리 영(英)자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별문제겠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렇게 할수 있나. 내내 대위 아무개, 중사 아무개 할수도 없구. 독자대중을 생각해야지. 안 그래? 필명, 별호를 써? <민촌>, <서해>, <려수>라 했듯이? 아니야 옛날식이야.》

《제가 이름을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굴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

《아니 제가...》

대위 김영철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로시인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 좋구만. 역시 새 세대가 다르구만. 장호동무, 그렇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아무래두 작은 영철동무가 이제부턴 꽃부리 영 한자를 꼭 빼고 올림도 더 좋게 그냥 밝을 철(哲) 한자로만 이름 달아서 작품을 발표하세. 응 김철, 이미 내놓은 시가 많아서 그 작품들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아주 남에게 주는것도 아니구 앞으로 더 많은, 더 멋진 시를 써낼터인데 뭐라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인사 드렸다.

그날 로시인은 퍼그나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 주었다.

시분과사무실에 데리고 올라 가 이 동무가 아무개다, 후보맹원으로 동맹대오에 받아 주자고, 보증인 한사람은 자기가 되겠다고 했고 아 참 잊을뻔했다며 편집부에 다시 내려 가 그동안 주지 못한 원고료가 이렇게 많았구만. 뜻이 깊게 쓰라면서 돈 봉투까지 들고 와 찢어 주던 박세영선생.

그후 수십년세월 그와 접촉하고 함께 살며 일한 기회가 많았지만 첫 상봉에서 받은 인상은 변함없었다.

아마 주체48(1959)년이었던것 같다. 무산지구전투승리 20돛이 되는 해였으니까. 그때 함경북도지부의 작가들은 무산-대흥단-갑무경비도로로 해서 삼지연, 보천보, 혜산까지 답사행군을 했고 평양작가들은 혜산-보천보-삼지연 방향으로 행군하였다. 그무렵 함경북도에서 창작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보천보에서 박세영일행과 상봉하였는데 그의 차림새가 꼭 항일빨찌산 소년중대원 같은데는 웃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왜 웃어? 이 막대기때문어? 지평인줄 아나? 총이야. 총! 나처럼 감발도 하구 도시락도 메라구. 우리도 오늘은 빨찌산이야.》

구시등판을 내내 앞장 서 걸었다. 배낭 지고 총을 멘 소년빨찌산같이...

《야, 때목다리가 아니야? 건너 보자구!》

물동에 이르러서는 막 달려 가 첨병.

공무년에 찻던 고뿌에 압록강 물을 떠 쪽 들이키고서는 《에-맛 좋군. 백두산천지에서 내려 온 물이야!》

숙소에 돌아 와서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하면서 시를 썼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하더니 정말 문제 없이 쓰는것이였다.

몇해후 주체50(1961)년 가을이었던지, 원산에서 《시인의 밤》을 조직하였던 시인들이 외금강유람까지 하기로 했다. 일행은 김복원, 김조규, 동승태, 리호일, 상민, 방금숙... 그들과 더불어 제일년장자

는 박세영, 년소배는 나였다.

삼일포, 만물상, 구룡연을 거쳐 상팔담에 오르는 날엔 시인들의 기본이 한것 부풀었는데 의례히 앞장 서 오를것만 같은 《산제비》 그 갑작한 선생이 제일 뒤꽂무니에 떨어 지는게 아닌가.

물안개 자오룩한 담소들을 굽어 보며 먼저 오른 시인들이 박세영선생을 근심하였다. 역시 나이 많으니 힘든 모양이지. 그래서 나와 리호일이 마중 내려 갈가 하는데 《영차! 영차!》 박세영선생의 목소리가 들리고 가파로운 돌벼랑모서리에 김복원선생의 장대한 몸집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아차, 김복원선생도 올라 오지 못한걸 잊었었구나. 그런데 박선생은? 김복원의 영치를 받들어 울리며 한다는 소리가 《팔선녀야, 마중 하거라. 초립동이 박세영이 복원대감 모시고 인제야 행차하셨다-》 과연 불만하였다.

60나이에도 소년이요, 동료들에겐 시중군이요 조국산천에는 티없이 맑은 가수인 《아침은 빛나라 선생》이였다.

대동강변의 자그마한 4층 반지하실, 러객선같은 그 집에서 나는 이름 있는 작가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시분과위원장 민병균, 이미전부터 《해빙기의 재령강반》, 《굴포의 애가》, 《본노의 서》, 《어려리별》, 《조선의 노래》 등 작품을 통해 친숙해 진 그는 40대의 장년, 만나고 보니 자기 시처럼 다습 다혈질이었다.

《내 뭘 좀 쓰느라구 자리를 떴더니 그새 동무가 나타났더구만. 순석동무, 룡악동무 모두 칭찬하기에 인쇄에 넘어 간 동무 시를 나도 보았는데 <기뻐하노라> 정말 기뻐할만한 시였소. 그래 오늘은 뭘 가지구 왔소. 어디 좀 보지요.》

그는 내놓을가말가 망설이는 나의 새 초고를 빼앗듯 받아 쥐고선 소리내여 읽는다. 한쪽 눈섭우에 두드러진 기미가 푸들푸들 떨린다. 거뭇거뭇한 입술에서 침방울이 툭-툭- 튀겨 나온다.

《음-쭉 빠졌구만, 량만이 있어. 바이론, 뿌쉬킨이 유럽에만 있었다던가. 조선에는 더 많지. 흥》

털썩, 수화기를 든다. 《조선문학이요? 좀 올라오우. 멋진 물건이 또 생겼소.》

나무층계를 삐걱이며 올라 오는 발자국소리.

《가만 김철동무, 여기 이 줄과 이 줄은 바꿔 놓는게 어떻겠소. 그러면 정서의 굴곡과 폭발이 더 세질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줍시다.》

그는 나의 시 《갈매기》를 편집원에게 주고서는 자기 시를 끄집어낸다. 《좀 봐 주오. 동무 시처럼 시원하게 빠져야겠는데. 기탄없이 말해 주오.》

별거우리 상기된 낯을 저쪽으로 돌리며 성냥을 득 그어 담배를 붙여 문다. 연기를 뻑 빨아 삼킨다. 만약 좋다고 하지 않으면 와락 원고를 구겨던지길라도 할듯.

그때 일은 아니지만, 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무슨 일로선가 그의 집을 찾아 간적이 있었다. 강건너 지금의 문수거리 초입에 단층집들이 있었다. 쌀쌀한 계절이었는데 부인이 문밖에 하는 일없이 서 있었다. 손님이 온것이 다행스러운듯 문을 열어 주었다. 한구석에 수저를 대지 않은 음식상이 있을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 포복전진하는 병사마냥 시인이 었드렸다. 기여다닌다. 앞뒤 좌우엔 굴 쓴 종이가 흩어졌다.

웅얼웅얼...꼭꼭...갑자르는 소리,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영탄조로 내뿜는 읊조림...

《에이구 손님이 왔는데.》 부인이 등을 쿵 찌르니 《아, 아, 가만 있어.》 만년필을 한손에 쥔채로 다른 한손으로 마누라의 종아리를 꼭 쥐어박는다.

《아이구나. 망신스럽게는! 손님이 왔다는데두.》

그제야 시분과위원장은 자기 명원을 돌아본다.

《오오, 때마침 왔소. 들어보오. 언젠가 동무가 바준 일이 있었지. 그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쳤소. 공장 당위원장이 경비대원의 어깨에 비옷을 씌워 주자 비도 바람도 멀리 달아났다. 비옷 벗어 씌워 주자 비도 바람도 멀리 달아났다... 어쩡소? 좋지?》

《예, 뜻이 깊어졌습니다. 여운도 있구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됐소. 아, 그런데 어떻게 왔소? 이렇게 루주한 집에. 여보, 뭘해. 이걸 거두지 않구. 자, 앉소. 앉소.》

또 몇해후 이런 그도 보았다. 황해남도 별방의 협동농장 녀성관리위원장 집이었다. 그는 부엌쪽에 대고 소리질렀다.

《누님!- 거 탁배기라두 내왔으면 좋겠다. 평양에서 <갈매기>가 날아왔는데 맨승맨승해서야 되겠소?!》

《아니, 저 관리위원장동무가 누님이란 말입니까?》

《뭘, 내 그저 그렇게 부르고파 부르는 소리지. 내저 너자에게 반해서 아직두 여길 뜨지 못한다니까. 또 한사람의 유만옥 <어려리별>의 속편을 쓰고 싶어서. 아 참 저 애국동민녀성을 따라다니느라 발등에 눈물이 떨어져...》

그의 격한 눈물을 나는 평북도 피현의 영예전상자학교에서도 보았다.

그때 내가 무슨 일로 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던지는 딱히 기억되지 않지만 시인 민병균이 자기의 서사시 《사랑의 집》 초고를 읊어 주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전상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굽이 뜨거웠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과격하고 직선적인 다혈질의 성품, 좁이 넘쳐나는 기질때문에 동료들에게서 오해와 반감도 사고 실책과 탈선을 범하는 일도 있었으나 자기 창조물에는 크게 나무람할것을 남기지 않은, 아니 오히려 우리 문학사에 지우지 못할 뚜렷

한 흔적을 남긴 시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병균이 좁이 남아 돌아 가는 시인이었다면 김순석은 정이 넘쳐 나는 시인이었다. 작가라면 다정다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만 김순석의 경우에는 그것이 늘 얼굴에 드러나고 언행에 반사되었다. 그는 자기의 누를길 없는 정서적충동을 작품에 그대로 다 쏟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하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와 나의 첫 교제도 내가 시한편을 들고 시분과위원회에 갔을 때에 이루어졌다. 민병균이 한동안 자리를 뜨면서 《조선문학》 편집부장인 김순석에게 분과위원장 사업까지 넘겨주었던 때였다. 오전에 편집부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점심밥팩을 들고 분과위원회에 올라왔다.

《이거 미안합니다. 밥도 먹어야겠기에...》

하면서도 채 축 내지 못한 밥그릇 뚜껑을 닫고 나를 마주 걸어 나왔다. 그 물동적인 바이론식 걸음을 걸이를 보고 나는 아차! 하고 자신을 뉘우쳤다. 그가 한쪽다리를 보기 좋게 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내 원고를 정히 받아 들고 다시 책상에 가 앉았다. 밥팩을 밀어 놓고 원고를 반듯하게 펴놓았다. 몇분이나 흘렀을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눈을 껌벅이었다.

《용악선생, 이걸 좀 보십시오.》

로대에서 강 저편을 바라 보고 서 있던 사람이 방에 들어 왔다. 리용악이었다.

《북원선생도 봐주세요.》

옆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동분과위원장도 건너 왔다.

《건방지게는...》 리용악선생의 첫 대사.

《기뻐하노라?》 김북원선생의 미심쩍어해 하는 듯한 혼자소리.

김순석은 어느새 내옆에 와 있다. 내 손을 꼭친다. 그리고는 내 원고를 읽고 있는 두 선배시인을 초조한 기색으로 바라본다. 그들이 읽고 있는 시가 나 김철의것이 아니라 김순석 자기의 시라고 확신하고 있는듯이 ...

《어떻습니까? 좋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감정이지요?!》

《당돌하구만.》 리용악의 대사. 《부럽소.》

《나 역시 부럽소. 새 사람의 새로운 목소리요.》 김북원의 너그럽고도 꾸밈 없는 찬사.

김순석은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 갔다. 물동적인 그 걸음에 나무충계가 몹시도 삐걱이었다.

그날저녁 나는 퍼그나 늦어서야 부대에 돌아 갔다. 김순석이 싸주는 원고용지를 거드랑이에 끼고 ...

김순석은 참되고 의롭고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을 심혼을 다 바쳐 사랑하였다.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 생활에 대한 끝 없는 애정을 그는 자기 작품에 쏟아 부었다.

그가 조국해방 직후부터 지기 생애의 마지막날까

지 성심성의를 다해 써놓은 길을 나는 이즈음 다시 읽어 보면서 우리 문학은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재부를 쌓아놓았는가를 새삼스레 절감하였다. 김순석의 작품만 하여도 《산향》, 《벼가을 하러 갈 때》, 시집 《영웅의 땅》, 《황금의 땅》, 《찌플리산의 등잔불》, 《호수가의 모닥불》, 말년에 남긴 서정시들인 《당》, 《벽동계선장》.

나는 그를 존경하였고 그는 나를 사랑하였다. 그는 나를 후배로, 제자로 여긴것이 아니라 벗으로, 동지로 대해주었다. 그는 자기 책을 나에게 줄적마다 꼭꼭 《사랑하는 시우 김철에게》라고 써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애정은 나만이 아닌 수많은 신진작가들에게서도 그 표현을 보게 되었던것이다.

또한 그는 일단 기용인 정을 끊어야 할데 가서도 몹시 끊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쓴 한편의 시가 시단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비판을 얼마나 받아 들이기 힘겨워 했던가. 얼마나 오래동안 괴로와 하고 슬퍼하고 외로와 했던가.

하면서도 일단 끊어야 될 애착심이라면 단호히 무자비하게 결별할줄도 안 사람이라는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로시인 김상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순석동무가 나를 보고 <상오형, 우리 담배를 끊지 않겠습니까.>이러더라 말어요. 그는 장이 나뻐고 나는 가슴이 약했으니까. 나는 그때 그를 보고 <순석동무가 끊는걸 보면 나도 끊겠소.>라고 대답했지.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 그렇게 해낼가 하고 말어요. 나는 애당초 그렇게 할 용감성도 결단성도 없는 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웬걸. 순석동무는 그날부터 탁 끊더라 말어요. 며칠 몇달이 지나도 아예 깨אות한 결별상태. 그래서 나는 용서를 빌었소. <여보, 나는 동무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니까 절대로 끊지 못하겠거니 생각하고 한 대답이었는데 아무튼 동무는 용소.> 이렇게 말했지.》

로시인은 담배불에 구멍이 숭숭 뚫린 적삼깃을 의미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러던 그가 끝내 암과는 결별 못했지. 나보다 먼저 갔지.》

참으로 아쉽게 60전에 사망한 시인은 김순석뿐이 아니였다. 리용악, 나는 왜 그를 잊지 못하는가.

리용악은 일찌기 조국해방전에 《분수령》, 《낯은 집》, 《오랑캐꽃》을 내놓은 시인이였고 6.28 서울해방때 서대문감옥에서 풀려 나와서는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 와 《평남관개시초》를 비롯한 좋은 시를 적지 않게 쓴 시인이였다. 그의 시는 다져지고 닦이운, 알알이 빛나는 보석이였다. 엄하고 검박하고 분출하는 열정을 속깊이에 감춘 사람이였다고 할가. 시분과위원회 로대에서 회 돌아 서던 순간 아니 내 작품원고를 받아 쥐고 《건방지계는...》 한마디 던지며 나를 쏘아 보던 순간부터 나는 온몸을 떨며 그에게 끌려 들었던것이다. 괴이한 매력이었

다. 대하기가 어려웠지만 대해 주면 고마왔다.

내가 작가학원을 졸업하고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일하던 때였으니까 주체44(1955)년 하반기였던것 같다. 그의 집이 동평양에 있었고 나의 근무장소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가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김철동무, 평남관개건설장에 갔다왔다면서?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뭐 좀 미리 참고할만한 말을 해주오.》

선생이 학생에게 뭘 좀 배워 달라는것인가.

나는 송구스러우면서도 기뻐서 연풍저수지로부터 열두삼천리벌을 쭉 돌아 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사실은 주마간산격으로 돌아 본것이였지만 큰 시인이 미리 참고로 하겠다기에 내게 있는 밑천을 다 털어 바쳤다. 그는 그 미미한것이나마 깊이 새겨 들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러행가방을 빌려달라고 까지 하였다. 아니 어쩌면 이 선생, 가방하나 없이 살더랬나...? 나는 별로 볼품 없는것이지만 선생이 부탁하는것이기에 한쪽 손잡이가 떨어 질사한 러행가방을 급히 손질해 드렸다.

흰줄이 가늘게 박힌 밤색 단긴것 옷을 단정히 입은 시인이 나의 러행가방을 들고 현지체험을 떠나는것을 바래 드리며 나는 진심으로 부탁하였다. 《몸 조심하십시오.》

몇달이 지났던지 시인이 가방을 돌려 주려 또 찾아 왔다. 《이거 빈 가방을 돌려 주누만.》

《필요.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었다면...》

나는 별에 타고 혈غم해 진 그의 안색을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다. (퍼그나 고생했구나.)

또 몇달이 지났다. 그의 시뭇음이 발표되였다.

그때 나는 얼마나 놀랐던가. 그리고 부러웠던가.

시초는 참으로 훌륭하였다. 깊이와 폭과 무게가 있고 짜이고 다듬어 진 작품이였다.

리용악의 시초는 조선인민군창건일을 기념하여 제정했던 《문학예술상》 1등을 받았다. 우리 시문학사에 하나의 큰 봉우리로 자리 잡았다.

나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때 같은 시기에 같은 고장을 다녀 왔는데 나는 어찌하여 한두편의 미흡한 시를 썼고 리용악선생은 그렇듯 값진 창조물을 내놓았던가.

작가의 참모습, 그것은 그의 외모인가 초상인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격 또는 기질인가. 어째서인지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평남관개시초》가 없었다면 나의 추억의 갈피에 리용악이 살아 있을 까닭이 있겠는가. 《평남관개시초》가 리용악이고 리용악은 《평남관개시초》가 아니겠는가.

나를 만나려거든

며칠전에도 나는 련광정과 마주 서 있는 3층돌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일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언급되어 있는바 현세기 초엽에 《백선

행기념관》 또는 《백과부네 집》이라 불리우던 집이다.

지금은 이 집에 다른 기관이 들어 있지만 5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초까지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출판사가 들어 있었다.

오늘날의 옥류약수터장이 전후 첫시기 작가들이 모이는 집이었다면 이 돌집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작가들이 분주히 들락날락한 집, 작가들이 전국 각지로 떠나 가던 집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형상화하여야 할 새 인
간들은 가는곳마다에 있습니다. 기계제작공장,
야금공장, 방직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과
어촌들에 수많은 천리마기수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가들은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와 농어촌, 건설장으로 떠나 갔다. 취재수첩이나 여행가방을 들고 간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집을 꾸려 가지고 갔다.

공장, 기업소와 건설장에 간 작가들은 그곳 신문주필로 임명되고 농촌에 나간 작가들은 농촌민주선전설장이 되였다.

그 당시 작가학원을 졸업하고 인민군대 총정치국의 한 부서에 가서 일하다가 제대되어 작가동맹출판사에 와있던 나는 이 모든 움직임을 낱알이 보았고 《문학신문》에 보고도 하였다.

《나를 만나려거든 공장과 농촌으로 오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기 타오르는 들끓는 현실로 오라!》

그 당시 우리 작가들은 자기 주소를 이렇게 밝혔다.

그 시기 《문학신문》엔 독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흥미 있는 그림이 2~3면 가득히 실린적이 있다. 조국의 지도를 작가들의 얼굴로 가득 채운 그림이었는데 참으로 볼만하였다.

그 그림을 보면 압록강 해류 신의주에는 《카프》작가이며 조국해방전쟁시기 문고판 시집 《나의 따발총》의 저자인 시인 안룡만이 틀고앉아 있었다. 그와 이웃하여 있는 북중기계공장의 선반공은 풍자시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로 유명한 백인준이다.

《카프》의 시인이며 시집 《나의 조국》의 저자,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가사를 쓴 《인민조선》 부주필 김우철은 락원기계공장에 가서 기대를 잡고 있다.

열두삼천리벌에는 벼랑가리를 안고 웃는 소설가 리근영의 둥그런 얼굴이 그려 져고 공도 흥남에는 《빛나는 전망》을 써낸 변희근이 열풍로에 기여오르는 리상현을 뒤에서 떠밀고 있었던것 같다.

다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 가면 수풍언제, 거기서는 시인 상민이 배전반공으로 일했다. 상민의 본명은 정기섭, 정다산의 몇대 후손 량반가문출신인

데 한생을 근로하는 인민에게 바치겠다는 의지를 담아 항상 상(常) 백성 민(民), 상민으로 이름을 고치고 리용악, 리병철, 박산운, 한진식 등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온 시인이다.

장자강발전소건설장에서는 젊은 작가 전관진이 휘틀연공으로 일하면서 서사시를 쓰고 있었다. 밤낮을 가림없이 로동과 창작에만 열중하다나니 집에 땀나무가 떨어 진것을 알지 못했다. 안해가 어느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딱한 말을 비쳤다.

《그래?》 작가는 부엌이며 프락을 휘-둘러보다가 《별수 있나. 저 책상이라두 꽤 때지뭘.》 하고는 훌쩍 나가 버렸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또 작품 쓸 생각만 하면서 집에 돌아 오니 문제의 그 책상우에 저녁밥이 쟁겨져있고 밥상도 안해도 보이지 않았다. ?? 하거나 말거나 밥을 대강 퍼넣고 또 작품과 마주 앉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이튿날 아침 휘틀작업반 천리마기수들이 거의 한 자동차나 땀만큼의 땀나무를 메고 오는것이 아닌가. 작업반장은 새 밥상까지 들고... 시인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저 《장자강》이라 달았던 서사시제목을 《흐르라 나의 강아》라고 고쳐 달았다.

이 이야기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릴적 고향친구 김옥근공화국영웅을 노래한 시 《장자강기슭에서》를 쓴 시인 김학연이 내게 들려준것이다.

장자강을 따라 강계를 지나 가면 아득령이다. 랑림땅, 이리떼의 수풀이라는 스산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고장에 장진강을 가로막는 언제가 일어 선다. 피 뚫어라 청춘아 불 타라 심장아... 《사회주의청년건설자행진곡》을 부르며 얼마전까지도 《조선문학》 편집부장 자리에 교대로 앉았던 현희균, 강립석동무들이 언제를 쌓으며 감자밭 김을 매고 있다. 작가학원을 졸업한 박경빈은 나무에 톱질을 하고 있다.

나는 요즘 텔레비죤화면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랑림땅에서 맞이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웨치는 그곳 사람들을 보면서 40여년전 우리 젊은 작가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나도 한때 그 고장에서 언제를 쌓았고 광차를 밀었다. 그 고장을 떠날 때 랑림읍농장 농장원이였던 강립석의 집에 들러 연감자국수를 먹었다. 그는 그전에 서사시 《밭갈이노래》를 썼고 80년대에는 우산장에 와서 두번째 서사시 《땅의 노래》를 써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는 새 작품, 원고들을 배낭에 진채 명문고개 철길가에 쓰러졌다. 그가 사망한 후 출판된 시집 《심장의 대답》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써놓았다. 《우리 당과 우리 수령이 없으면 나의 삶도 없고 나의 시도 있을수 없을것이다.》

강계정신의 발상지에 오늘도 살고 있는 그의 부

인이 얼마전에 그 유고시집을 내게 보내주었다....

다시 추억의 노를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조국의 북변으로 저어가보자.

조국의 북변 바다가 XX조선소에는 나와 이름이 같았던 대위 김영철이 제대군복차림으로 가있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전에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만경대혁명학원 교원생활을 하였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 학원에 오시면 정구를 치기도 하시었는데 김영철은 자기가 장군님의 정구상대방이 되었노라고 여러번 자랑하였다. 전쟁시기 그의 부모처자 여섯이 적들에게 학살당했다. 그 원통한 심정을 담아 쓴 시가 《기어이 복수하리라》였다. 《당과 조국을 위하여》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시문학의 성과작이었다. 그는 XX조선소에서 로동하다가 송남청년탄광에 가서 탄을 켜다. 일을 어찌나 직심스레 했던지 채탄작업반장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도 이 시기 그는 시집 《마음의 고향》을 출판하였다.

탄을 캐는 시인들중에는 특색있는 서정시 《감자현물세》로 소문난 김광섭로인이 있었다. 로인은 조국해방전에 중이 된적도 있었고 생식을 한적도 있었다. 유선탄광에서 10년 가까이 막장일을 하다 나니 호흡기가 좋지 않았다. 함북도지부 작가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할 때 나는 그와 같이 걸었는데 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가봐 손수건을 입에 물고 앉아 맑혔다. 그 손수건이 이튿날 아침이면 가루가 되었다. 기침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발로 찢고찢은 가루가 된 손수건, 《감자현물세》의 서정적주인공 소박한 촌젊은이와 로약해진 탄부시인 김광섭, 왜 잊혀지지 않는지.

무산, 연사, 청진 일대를 현실체험기치, 창작기지로 튼튼히 점거한 시인 정문향, 그에게는 여러편의 시대의 명작이 들려 있다.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새들은 숲으로 간다》는 우리 나라 대야금기치 김책제철소의 산물이고 《벌목부의 호소》는 연사, 유평, 립산에서 찍어 낸 거목이요, 《조국땅 한끝에》는 백두 5호대지, 오늘날의 대흥단벌에서 거둔 수확이다. 그는 늘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에 대하여 사색한 시인이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그의 서사시 《눈보라》가 자주 생각났고 철학적인 서정시 《시대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은근히 두드렸다. 그가 오늘 살아 있다면 감자꽃이 설레는 대흥단벌에 가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시형상의 중심에 모신 또 한편의 《조국땅 한끝에》를 쓰지 않을가.

그는 속이 깊은 시인이었다. 그는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주을영예전상사병원에 달려가 한 영예군인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었다. 《창을 열어다오!》이렇게 웨치며 완전하반신마비의 특류영예군인이 주체의 문학대오에 우뚝 일어섰다. 김시권에 대한 장편실화문학 《병사시인》에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준 정문향의 모습이 있다. 정문향은 분계연선

도시 개성에 살아 있다. 개성시 작가들은 정문향의 묘비에 고(故)자를 새기지 않았다.

청진에 살 때 정문향의 옆집에 아동문학작가 황민이 살았고 길 건너집에 시인 리병철이 살았다.

청진철도관리국에서 기관조사체험을 쌓은바 있는 리병철은 청진제강소 회전로직장에 일터를 옮기고 그 직장 휴계실에서 시집 《천리마시절》을 묶었다.

천리마시절! 작가동맹출판사에도 천리마바람이 불었다. 로동현장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단행본과 잡지권집부들, 《문학신문》 편집국에 들이닥쳤다.

열두삼천리벌에서는 리근영의 중편소설 《첫 수확》이 실려 왔고 함흥 5대공장지구에서는 리상현의 첫 중편 《열풍》이 불어 왔다.

김상오는 안악농장에서, 민병균은 어지돈관개공사장에서, 《동트는 바다》를 노래하던 동승태는 강원도 금강군의 산골농장에서 땀내나고 쇠소리나는 시뭍음들을 보내 왔다.

력사소설가 박태원은 실명되어가는 눈에 도수안경 하나를 더 걸면서 10여편을 예견하는 다부작장편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를 속속 추진, 대성산기슭 안학궁 옛터근처 반토굴에서 《서산대사》(최명익)투진.

거의 모든 작가들이 로동현장, 생산현장에 거처를 옮겼으니 도지부 사무실들이 시내 북판에 있어야 할 명분이 서지 않았다. 각도 지부도 공장으로!

이리하여 함경북도지부장 황민은 자기 사무실을 김책제철소 해탄로직장에 옮겼고 함경남도지부장 변희근은 흥남비료공장에 책상을 지고 갔다. 황해제철소 구내에는 혁명시인 리찬이 진두지휘하는 작가동맹 황해북도 지부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되니 작가들뿐아니라 로동자 문화애호가들, 문학신인들도 도지부사무실에 무시로 드나들게 되었다. 작가들이 있는 곳에서 작가후비부대가 자라났다.

황해제철소에서만도 장건식, 리석형, 권태영, 리일북, 허춘식이, 강선제강소에서는 계훈, 김리돈이, 성진제강소에서는 정동찬, 김현, 김책제철소에서는 김홍권, 최학윤이, 작가 김북향과 김순석이 나가 있는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리금녀, 박상호가 머리를 들었다.

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두말할것 없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일군들도 책상머리를 떠나 현지로 나갔다. 그들도 작가였다. 사무원이 아니며 행정관이 아니었다. 워낙 작가의 자질, 창작가적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창작기관의 지도일군이 될수도 없었거니와 창작실적이 없이 지도적지위에 앉아 있어 가지고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도 씹 싸우듯 해서 글쓰는 사람의 고향인 벽찬 현실속으로, 근로하는 인민의 생활속으로 달려 가려 하였다.

그 당시 분과위원장들은 1년에 3개월 또는 6개월의 창작휴가를 따냈고 그것으로 불만스러우면 분과위원들을 교대로 앉혀 놓고 현지로 나갔다. 소설분과위원장 황건이 개마고원에 자주 갈수 있는것은 그래서였고 시분과위원장자리에 어제는 민병균이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김순석이 앉고 김순석이 자기 창작거점인 어랑으로 《도망》 처 가면 지도원인 전동우가, 전동우가 한사코 성진제강소로 떠나 가면 최원근이 군말없이 사무실을 지켰고 전초민, 한진식이 분과연구모임을 조직하곤 하였다.

전동우는 내가 신문주필로 있던 성진제강소 강철 직장 안상조영용작업반에 가서 땀을 많이 흘렸다. 습진이 온몸에 퍼져 정말 고생하였다. 그렇지만 전기로앞에서 얼굴가죽이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그슬리는 체험을 하였기에 시집 《청춘》을 묶을수 있었고 후날 그렇듯 요묘하고 아름다운 노래가사들을 쓸수 있었다.

나역시 성진제강소에서 신문주필체험을 하고 김책제철소에서 전로공생활을 체험했기에 두번째 시집 《철의 도시에서》 첫 페이지에 《이 시편들을 성진제강소와 김책제철소 로동자동무들에게 드린다》고 써짓하게 쓸수 있었다.

《조선문학》 편집부에 등기우편이다, 소포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연재물이다 연방 들이닥쳤다.

그런데 석개울은 대동강가에 흘러흘러왔지만 석개울의 천세봉은 끈질기게 그 기슭을 뜨지 않았다.

도지부에서 부르는것쯤은 서너번만에 한번정도 일가, 중앙위원회 회의에 부르면 마지못해 나타났다가는 말없이 앉았다가 회의가 끝나는 그 밤으로 사라졌다. 그의 머리속에는 애오라지 한 생각 소설 쓸 생각밖에 없는것 같았다.

그런 때 지방에서 올라 오는 작가들은 《서문려판》(지금의 《승리》 지하역근처에 있었다.)에 들고 점심식사 한끼는 종로동에 있던 단고기국집에서 하였는데 려판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는 구석자리에 두무릎을 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강굴뿐 입을 열지 않았다. 아마 그때에도 그의 머리속에서는 석개울이 흐르고 《대하는 흐른다》가 사품친 모양이다.

나는 그와 단 한번도 속 시원히 말해보지 못했다. 그의 소설만이 그의 말을 대신했다.

전화가 걸려 온다. 시외전화란다. 수화기에선 응접봉이 우는 소리, 권양기쇠바줄이 굽히는 소리, 구내기관차의 새된 기적소리, 그 소음을 헤가르며 석개울의 목소리가 떨려 나온다. 윤세중은 옳은데 편집원이 와달라는 소린지, 작가가 올라 오겠다는 소린지는 분간하기 어렵다. 《시련속에서》의 속편인 《용광로는 숨 쉰다》의 운명과 관련된 전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서 담당편집원이 부랴부랴 송림으로 떠난다.

황철, 용광로현장이다. 우람하게 솟아 오른 용광로에서는 단김이 확확 풍기는데 독촉전화를 걸어 왔던 당사자는 운동장에 갔을거란다. 송림바닥잔치집, 상가집 어디라 없이 제집 드나들듯 하는 윤세중작가가 오늘은 체육경기장에? 그래서 또 그곳에 가보니 어랍쇼, 용광로와 강철 두팀 축구시합에 응원대장 아닌가.

《강철 이겨라-》, 《용광로 이겨라-》

이쪽에 대고도 등-등- 저쪽에 대고도 등-등- 북치고 박수 치며 와-와-

이편 저편에서 최장대 같은 팔뚝들이 뻗쳐 나와 응원대장 등어리를 비틀어 댈다. 《도대체 누구편이야, 누구편?》

《야, 야, 이놈들아, 이걸 못 놓겠냐. 난 황철편이다. 조선로동계급 응원대장이다. 강철 너희도 이기고 용광로 너희도 이기란 말이다. 조선의 본때를 보이란 말이다. 응, 야!-》

작가는 용광로 로체공과 평로 용해공의 목을 두팔로 꼭- 그러안고 5월 푸른 하늘에 와하하 큰 웃음을 뿜어 올린다.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 쉰다》는 초고가 마무리되어 거센 숨을 쉬는 용광로직장 합숙방 앓은뱅이 책상우에 울방자 틀고 앉아 있었던것이다.

천세봉과 윤세중은 천리마대고조시기 빼여 지게 두각을 나타낸 조선 소설문학의 빛나는 얼굴이었다.

한편 문학신문지상에서는 단편소설계주가 불바람을 일룬다. 잡지와 단행본에 새 세대 작가들이 출마한다.

당정책, 시대정신, 번쩍이는 성격, 다양한 개성, 단편소설 아니고서야 어찌 최대기동수단을 갖춘 돌격대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랴.

《명령》(리종렬), 《두번째 대답》(석윤기), 《빛나는 전망》(변희근), 《직명반장》(유항림), 《길동무들》(김병훈), 《해주-하성서 온 편지》(김병훈), 《백일홍》(권정웅), 계주로에 애젊은 군인 김원종이 나타나고 시만 잘 쓰는줄 알았더니 소설에도 재사인 최승철이 등장한다.

김학연은 《소년빨찌산 서강령》(서사시)을, 신상호는 《련대의 기수》(서사시), 최영화는 시초 《당의 숨결》을 내놓는다.

그러니 황해제철소 로동계급은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 쉰다》에, 장막극 《위대한 힘》에, 시초 《당의 숨결》에도 천리마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셈이다.

7월-8월-9월, 연극축전계절이다. 수도의 극장들은 장막극풍년이다. 문학신문기자들은 관평조직에 끌머리를 얹는다. 하거나말거나 나는 그 계절에 하루 한끼는 굶고 지냈다. 저녁마다 4막, 5막짜리를 보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했으니. (그래서 위병이 도지였던가...)

내가 본 장막극만 해도 1871년 미제의 강화도침

입사건을 취급한 《강화도》(송영), 분계연선도시 개성시립극장이 들고나온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리종순, 최건), 함남도연극단에서 들고 나온 혁명전통주제의 《해바라기》(박령보), 《태양의 딸》(박령보), 평북도에서 들고 나온 《견습공의 일기》(김형), 리현리의 선동원 리신자를 형상한 《붉은 선동원》(조백령), 우리 나라 연극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형상을 받들어 올린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리종순), 밝은 웃음 활짝 웃은 《산울림》(리동춘),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준 《위대한 힘》(리동춘), 항일유격대의 무산지구전투를 배경으로 한 함북도에술단의 《동지들》(한문), 《불사조》(송영)… 무대에는 극작가들의 덕분에 명배우들의 얼굴이 더 크게, 뚜렷하게 드러난다. 황철, 배용, 리단, 박영신… 수도의 거리거리 골목들에선 《해바라기》 주인공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방진동… 당신은 누구요?

리순실… 나는 공산주의자요!

…

훌륭한 극을 보여주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극작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대 뒤에 있기때문에, 그러나 작가야 작가를 어찌 아니 생각하랴.

나는 리종순, 리동춘, 최건, 박령보, 김형을 찾아냈다. 조백령도, 한문도 만나보았다. 그들은 이 축전계절에 무대에 실현되는 자기 작품 가까이에 와 있었다. 막내딸 시집보내는 어머니 어찌 그날에 판고장 나들이를 갔을가.

그런데 오래전부터 품을 들여 만나보리라던 송영 선생은 이때에도 볼수 없었다. 죽마고우인 박세영 선생에게 물어보는수밖에…

이무렵 압록강반의 국경도시 혜산시의 한 려인숙에서 연극 아닌 짤막한 실극이 연출되고 있었다.

썰렁한 방에 장돌뱅이 떠돌이군 같은령감이 누워 있었다. 모자 쓰고 외투 입고 장갑까지 낀 손에 상아물부리를 천채 베개는 저리 밀어 놓고 불룩한 가방을 벤것이 더욱 유표하였다.

희끄무레 밝아오는 새벽빛을 등지고 허우대 큰 청년이 슬금슬금 다가갔다. 아무리 눈을 밝혀 보아야 돈이 들어찬것이 분명한데 저걸 어떻게 뽑아가지고 똬다? 청년은령감의 머리맡에 조심조심 베개를 밀어 넣으며 가방 한귀퉁이를 잡아 당긴다. 그래도 체소한 로인은 다름다름 코만 끌고… 그렇지, 되는구나. 조금 더, 조금만 더 드디어 가방을 다 빼내가지고 들고 뛰려는 순간

《애, 애 그럼 되니?》

이크, 자는줄만 알았던령감래기 한쪽손에 가방 끈을 감아 쥐었을줄이야. 그러거나말거나 이젠 힘내기라도 할수밖에. 헌데 또다시 울리는 엄한 소리. 《너 이놈, 저기 백두산이 지켜 보는줄 몰라?!》

이 소리에는 그만 털썩 주저앉는 젊은이.

득-가방을 열어 제끼는 소리, 활짝 밝아진 아침 빛발에 원고뭉치가 드러났다.

《이게 뭐 돈인줄 알았더니. 봐라-어서!》

그제야 청년은 똑똑히 보았다.

《장편기행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 송영》.

청년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청년은 허리를 구뭇하니 꺾은채 물러 갔는데 후에 그는 송영선생앞으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다고 한다.

…광산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리마작업반원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그때 가방속에 있던 글이 책으로 되었다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다가 통성기계공장 청년조기직장 호빵그공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시인 김조규를 알아 보셨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의 기를 묻은 손을 다정히 잡아 주시고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너무 오래는 하지 말라고, 작가는 가장 힘든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작가의 참모습

추억의 갈피갈피에 떠오르는 작가는 아직도 많다. 하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제한된 지면에 어찌 다 그려 보이겠는가. 한두마디만 더 하련다.

최근에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 하신 작가가 있다. 한설야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퍼그나 오래동안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애국렬사릉의 돌사진들을 감회깊이 여겨 보시다가 한설야의 이름을 외우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는 새삼스레 깊어 지는 생각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설야는 《카프》의 중심인물이었고 《황혼》을 비롯해서 《승냥이》, 《대동강》, 《개선》, 《력사》 등 수 많은 소설을 써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작가였다.

8.15해방후부터 60년대초까지 줄곧 위대한 수령님의 지극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문학예술분야의 책임적인 일군으로 사업한 사람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그의 소설들을 문학수업의 교과서로 삼고 탐독했고 작가동맹 회의집행부에 그가 나올 때마다 수령님의 교시들을 거듭 거듭 힘 주어 전해 주는 그를 높이 쳐다보곤 했었다.

한번은 김책시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함께 타고 오면서 그를 정말 작가구나 하고 생각한적이 있었다.

나는 그무렵 성진제강소 신문주필사업을 하면서 시집 《철의 도시에서》에 수록할 시편들을 쓰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공장 외래자합숙에 와서 글을 쓰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찾아 가 만나볼 엄두를 못내다가 현지파견작가들의 회의에 참가하며 평양에 가게 되었을 때에야 그와 한침대칸에 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차에 오르자 여러날 밤잠을 못 자서 그러는 지 불깃해진 눈을 슬벅이더니 흰 머리를 베개에 얹으면서 《이거 미안하오. 먼저 눕겠소.》 하며 나에게 량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그가 나에게 그런 량해를 구해야 될 사람이겠는가.

나는 그러는 그의 곁에 있기가 오히려 거북하고 송구스러워 복도에 나가 서성대기도 하고 렬차에 그 누구 안면있는 말동무라도 나지 않았나 해서 차 칸들을 앞뒤로 가고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렬차식당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한 때에야 그가 자고있을 침대칸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런데 그는 언제 일어났는지 창문이 앞락에 흰 종이를 퍼놓고 열심히 연필을 달리고 있지 않는가.

늘 글을 시간을 얻지 못하여 외국출장 갈 때면 비행기에서도 글을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참말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영, 왜 나가 있었소. 일없소. 난 라디오를 들어 놓고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표를 떼겠습니다.》

《뭘 났िका? 런치, 오무라이스? 그런겁데? 난 싫소. 홍원역에 닿으면 털게가 오를수 있는데 그거나 사먹지요. 오래간만에 동해털게맛을 보고싶소. 자, 이 돈으로.》

그는 지전 한장을 꺼내 내앞에 밀어놓고는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웃사람, 간부, 아니 역시 작가구나. 민촌(리기영)을 늘 부러워 하더니 만사 제껴 놓고 글 쓰는 일에만 전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김치, 깍두기, 부루짖, 국수, 명태국과 털게 이리루한것을 좋아 했다. 신약을 먹지 않았다. 좌골신경통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잡병도 있어 출장길에도 약탕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려약을 달여 먹곤 했다.

호텔침대보다 따스한 온돌을 택했다. 청진에 내려 올 때에는 화가 리운사의 집에 들었다.

운사는 우스개소리 잘하고 술 즐기고 누구앞에서도 언행을 삼가하는 일이 없는 위인이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 교육상, 문화상이기도 했고 작가동맹과 문예총의 책임일꾼이기도 한 그가 상스럽다 할 정도로 이웃나라 사람들을 불러 제끼면서 조선말이 제일인데 자기는 조선말을 너무도 모른다고 작가의 밀천이 언어인데 자기는 함경도사투리에서 벗어 나지 못하니 내 무슨 소설가겠는가. 우리 작가

들이 어휘공부를 너무도 안한다고 욕질할 때면 이령감 민족주의감투를 쓰려고 이러는가싶어 지곤 했었다.

기차를 함께 타고 털게를 뜯던 그때만 해도 그에게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로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그는 나에게 꽤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현지체험을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박웅걸이는 제강소 신문주필할 때 공장당위원회에서 붙여 준 보조원에게 신문발간사업을 전적으로 떠맡기고 집에 들어 앉아 장편소설을 썼다는데 그 소설은 잘 썼다치고 다음번에 로동계급형상을 내야 할적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강소에 와서 아무것도 본것이 없으니까 작은 머리속에서 꾸며 낼수밖에 더 있겠는가. 생활을 깊이 있게 그리자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나는 동무들이 부러워 죽겠는데 동무들은 자기가 어떤 행운을 지냈는가를 모르고 결발림식 현지체험을 해서는 못쓴다. 제강소동무들이 말하기를 동무는 그만하면 주필사업을 열성스레 한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경험도 내놓고 비판도 하라. 군대생활을 잘했기때문에 좋은 시를 썼듯이 공장생활을 잘해서 로동계급의 생활을 잘 그려 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날 함북도에서 작가가 된 최서해, 현경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기가 며칠전에 큰 실수를 할뻔 했다는 말도 했다. 밤에 잠옷을 입고 글을 쓰었는데 새벽에 사택마을을 돌아 보려 외투를 입고 나가다 나니 무릎아래로 잠옷이 보이는걸 미처 감추지 못했다고 합숙 경비원이 키득키득 웃으며 일깨워 줬기 망정이지 그대로 나갔더라면 사택마을 아낙네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릴뻔 했는가고 하며 웃기까지 하였다.

그 다음해 설날 그때 나는 재차 문학신문사에 소환되어 문학부를 맡아 보았는데 당번주필 일을 끝마치고 로작가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젊은 작가 몇이 리기영선생부터 한설야, 박팔양 이렇게 나이순서로 설인사를 하자고 약속하고.

리기영선생은 우리를 아래방에 들어 오게 하고 음식도 권하며 복도를 왔다갔다했다. 《많이 들라구. 변변히 차리진 못했는데 많이들 들라구.》 웃방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도, 아래방 우리에게도...

한설야선생집은 요란하였다. 전기온돌 큰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책소리, 굵새춤을 벌려 놓았다.

《이거 기분 나쁘다. 다른데 가보자.》 동행중 누군가 팔을 잡아 당긴다. 그래서 그 집에선 술 한잔 안마시고 박팔양선생집을 찾아 갔다. 조용하였다. 바깥손님은 하나도 없었다. 《진달래》 선생이 어찌나 반가와하던지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볼들고 울것이외다-그의 시 한구절이 생각났다.

로작가 세사람의 설맞이모습은 이렇게 판이하였다.

한설야는 시조를 써내고 썩소리를 허용하면서 복고주의적경향에 빠져 들었고 당조직생활을 게을리하고 당의 정도체제와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게 되었다.

그때부터 스무해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의 작품집들이 서가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사진들이 앨범에서 뜯겨 나간지 오래되었다. 그러던 그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잊지 않고 계시었다.

어째서? 무슨 근거로? 그의 그 무엇이 귀중하여서?

그가 준 작품때문이었다. 당에서 그의 작품들은 되살려 준지가 퍼그나 오래다.

수령님께서 맡겨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던것만도 사실이다. 그의 열성, 그의 재능, 통털어 우리 당 문학건설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때문이었다.

그의 작품이 죽지 않아서 그를 기억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서를 보내주신 날 감당키 어려운 흥분을 누락하지 못해서 심장의 고통을 멈추고 만 한설야, 위대한 정도자께서 추억의 말씀을 하여 주신 날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받은 한설야, 20세기 조선의 문학사에서 어찌 그의 모습이 지워

졌다고 하랴.

한설야가 위원장자리를 내놓은 후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자리를 맡아 보던 천세봉이 가고 석윤기가 가고 백인준도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1월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일 일흔ढ을 맞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작가 김병훈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그날 나는 40층 고층살림집 김병훈의 집에 초청받았다. 장형준, 최영화, 권정웅, 신상호, 리종렬, 최로사, 오영재 등 로세대작가들과 함께 동맹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들, 당일군들, 새 세대 작가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강능수문화상이 장군님의 배려를 전달하고 김병훈이 감사의 눈물을 지으며 결의를 다지었다.

김병훈은 위대하신 스승을 모시고 걸어 온 주체문학건설의 길을 돌이켜 보며 다가오는 21세기도 보람찬 길을 계속하게 되는 우리모두의 행복감을 피력하였다.

수령의 기억에 남고 당의 기억에 남고 인민의 사랑 받는 작품을 쓴 작가가 우리 시대의 참된 작가이다.

주체시대, **김일성**, **김정일**시대에 명작을 써낸 작가들, 그들은 다음 세기에도 빛나게 살아 숨 쉴것이다. 작품이 작가의 참모습이다.

명언해설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그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다.》

김정일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성공의 비결은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을 통일적으로 잘 구현하는데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예술은 예술적화목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그 어떤 인간의 운명문제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견해와 립장을 떠나서는 풀수 없다. 문학예술에 철학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작품에서 제기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옹게 세워 지고 사상이 심오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에서 철학적인것은 생활적인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문학예술에 철학적인것을 담는다고 하면서 생경한 론리만 추구한다면 예술성을 살릴수 없는것은 물론 철학성도 옹게 보장할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 진다. 결국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는 철학성의 심도와 생활반영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란봉 꽃시초

김은숙

오르니 꽃산이요
걸으니 꽃길이라
굽이굽이 모란봉
눈에 보이는건 꽃송이 꽃송이

동화속의 꽃대령인가
신선속의 꽃궁전인가
세상에 이런 곳은 없으리
꿈에도 이런 곳은 못 보리
모란봉은 꽃의 산, 꽃의 봉우리

최승대의 진달래

오를수록 승지요
볼수록 유정한 모란봉
청류정, 울밀대를 지나
굽이굽이 돌고도니
붉게붉게 피어 난 최승대의 진달래
나를 반겨 웃어라

숲속의 골짜기엔
상기도 녹지 않은 잔설이 덮였는데
눈속에 어여쁜 꽃잎 펼치고
망울에 감추었던 향기 피워 올리는 진달래

내 아노라
있있마다 봄을 물고
봄바람 반겨 방긋 웃는 네 마음을
모란봉에 이른 봄을 남먼저 부르는 네 마음을

그해도 이른 봄, 눈석이 흐르던 봄
이 산정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
따라서는 총련일군들에게
이 꽃만은 꼭 보고 가게 하려고

돌아 갈 날자를 내가 미루었다고
다정히 하시던 그날의 그 말씀
오늘도 못 잊어 피고핀 네 마음을

뵈고 싶어
수령님 다시 뵈고 싶어
간절한 마음 안고
떨기떨기 피어 난 꽃
이렇게 피면

이렇게 만발하면
수령님 오실것만 같아
오시여 다시금 보아 주실것만 같아
불 타는 그 소원에 물 들어 더욱 붉은 꽃

아, 최승대의 진달래
모란봉의 봄만을 부르던가
진달래
진달래
아버이 못 잊는 그리움의 진달래

구름나무꽃

대동강 물안개 여기 피었나
흘러 가던 흰 구름 내려 앉았나
하늘은 푸르청청, 강우엔 금물결 출렁이는데
어인 일이냐 어디서 피었느냐
아, 구름나무꽃

흘어질라 떨어 질라
별들도 조심히 꽃잎에 앉아라
꽃꽃들 제 빛갈 뽀내며
아름다움 다투는 모란봉에
유난히도 눈부신 하이얀 꽃

몽계몽계 피어 난 구름나무꽃
조국에 개선했신 장군님 우리러
흰 옷 입고 구름처럼 모여 오던

인민의 모습이런가

아, 반만년 처음으로
수령님 모신 이 나라 사람들
맑고맑은 가슴에서 피여 올린
구름나무꽃, 송가정의 꽃이여

해방의 봄을 안고 오신 수령님
만세로도 못다 불러
노래로도 못다 불러
한없는 흙모의 결정우에 피여 난 꽃
순결한 마음의 정화우에 피여 난 꽃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에게 주신
절세의 은인을

산천도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고 싶어
흰 꽃을 피웠구나

아, 땅우에 하늘꽃을 피웠구나

청류벽의 개나리

노랑나비 떼지어 내려 앉은듯
아슬히 깎아 지른 청류벽우에
층층이 피여 난
개나리
개나리

인사를 하네
아침이면
붉은 옷 입혀 주는 노을에게
저녁이면
포근히 잠 채워 주는 별에게

그처럼 높은 곳에 뿌리 내렸건만
너 어이 고개를 숙이었느냐
모란봉의 일만경치 황홀함앞에
네 모습 무색해서인가
네 밑을 감도는 대동강의 노래 듣고파선가

아, 찬바람 비바람 다 막아
삶의 보금자리 지켜 주고 꽃을 피워 준
청류벽이 고마워
이 땅이 고마워
개나리, 너는 머리 숙여 큰 절을 하네

줄줄이 피었네

장미
장미
줄장미
칠성문 석축우에 줄장미 피었네

아름다운 모란봉에 꽃도 많아
백화를 이루지만
이런 꽃도 있었나
장미라도 이런 장미 처음 보아라

한송이 너를 따다
내 입은 저고리에 달아나 불가
줄줄이 내리 뻗은 너의 그 꽃줄기
우리네 이 세월에 없어나 불가

한송이 피어도 칠성문 단장하고 싶어
또 한송이 피어도 성벽을 단장하고 싶어

남이야 한송이도 피기 힘든데
너는 줄줄이 피여
이 평양성 문을 온통 다 휘감았구나

천년세월 피고피며
어느 줄에 감았느냐
원췌왜적 쳐부신 계월향의 고운 웃음은
그 어느 줄에 감았느냐
고구려무사들 애국의 말발굽소리는

장미
장미
줄장미
너를 쓰다듬는 내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
조국에 바치는 나의 한생도
네 줄기우에 비길수 없을가...

모란봉의 꽃왕

손을 뻗치면 구름도 잡을듯
아슬아슬 높이 솟은 을밀대
울긋불긋 꽃울타리 두르고서
송이송이 모란꽃 아름답게 피었네

만산에 흐르는 향기 실고서
저 함각지붕은 방금 날듯
창공에 깃을 치는 새처럼 나래 폈는데
내 서 있는 이 높다란 축대는
모란꽃바다를 헤가르는 배전이런듯

을밀대 높은 란간에 올라

내 꽃향기에 취해 봉이들을 바라보는데
저 골안에서도 들썩이는 웃음소리
이 골안에서도 들썩이는 웃음소리
내 넋을 다 앗아 가네

경상골 골안에서
넘겨라 받아라
까르르 웃으며 정구 치는 처녀들
칠색무늬 고운 옷 떨쳐 입은
그 모습도 한송이 꽃모란
《애련정》 정각에서
노들강변 흥겹게 춤을 추는 할머니들

그 얼굴도 또 한송이 꽃모란
 올려 봐도 웃음꽃이요
 내려 봐도 웃음꽃일세
 모진 고난 이겨 낸 그 마음들
 굽이굽이 봉이마다 웃음꽃 피우니
 모란이 많아 모란봉이라 했건만
 모란보다 더 많이 핀것은
 아, 사람들 웃음꽃이여라

옛 시인들 모란에 담아
 모란봉을 노래하고

을밀대를 울조렸건만
 내 아니 붓을 고를수 없구나
 모란보다 더 많은 행복의 웃음꽃을

아, 장군님 해빛아래 빛나는 이 강산
 을밀대우에 높이 솟고
 인민의 웃음꽃 이 산성 가득히 피었으니
 절승경개 모란봉의 꽃왕은
 모란아, 네가 아니였구나
 진정 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활짝 핀것은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로구나

향기봉

모란봉의 절승경개
 부벽루에 올라 서니
 꽃이로다 백화로다
 이 가슴에 젖어 드는 향기로다
 꽃향기의 물결이로다

양지쪽엔 두봉화
 팔안에는 목란
 올려 보니 정향꽃
 굽어 보니 황목련

꽃이라면 향기라지만
 억만 꽃송이 다투어
 향기를 내뿜으니
 이 아닌 장관인가

어데서 어디까지 거닐면
 이 향기 다 안을가
 내게도 날개 있어 하늘을 날면
 이 향기 그 끝을 다 알가

꽃속에 꽃이 피어 내 걸음 붙잡고
 향기끝에 향기 있어 내 뒀을 앗아 가네
 꽃향기 황홀경에 잠겨 내 붓을 잡았건만
 부풀은 시정 다는 못 담아

아, 모란봉은 꽃의 봉인줄만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나도 몰래 터치는 느낌의 소리
 모란봉은 백화의 향기봉!

숲속의 패랭이꽃

오는 이 가는 이 보지 않는 숲속에
 남몰래 조용히 핀 꽃
 아차 나도 지나칠뻔 했구나
 너에게도 인사를 해야지

기특도 해라
 해도 밝고 별도 밝은 모란봉
 백화의 한송이가 되고 싶어
 빈 자리가 있을가 봐 너 여기 피었구나
 아, 패랭이 패랭이꽃

×

모란봉의 그 고운 꽃들
 내 작은 붓에는 다 담을수 없어
 시가락을 고르는 새에
 어느덧 봄, 여름 가고
 단풍 지는 가을도 가고
 눈 오는 겨울이 왔네
 송이송이 흰 눈이 내리고내리니

아지마다 잎새마다 피어 나는 꽃들

락락장송도 꽃나무요
 무성한 수림도 온통 꽃숲이라
 꽃철도 아니 봄철도 아니
 한겨울에 피어 난 꽃송이들
 아, 이 눈꽃 없이야
 모란봉 그 무슨 백화를 이루랴
 꽃이 피어 봄이라면
 정녕 모란봉은 영원한 봄계절을 안고 있구나

651 호 항로

리금철

뉴욕의 밤은 소란스럽게 깊어 가고 있었다.

울긋불긋 번쩍이는 네온사인등의 어지러운 불빛, 거기에 났을 뻗힌듯 거리마다 혼잡을 이루고 거끔 내기로 내뿜는 자동차와 승용차들의 경적소리, 그 소리에 불협화음을 이루며 카페와 식당들에서 울려 나오는 자크의 란잡한 선률과 녀인들의 자지러운 웃음소리... 이 모든것이 혼탁을 이루며 도시는 지금 밤의 미궁속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의 야음속에 묻힌 어느 카페안의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밀레르는 취기로 흐릿해 오는 혼미속에서도 조국을 버리고 온 자신을 한탄하며 연방 고개를 주억거리었다.

《미쳤어. 너도 나도 모두가 돈에 미쳤어. 아, 돈! 돈!》

그리고는 형클어진 살색머리카락을 또다시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그의 머리우에서 석신했던 목소리가 저력 있게 울리었다.

《밀레르씨, 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밀레르는 게슴츠레한 눈길을 들었다.

검은색 코트에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 쓴 두 사나이가 식탁옆에 와 서 있었다.

한 사나이가 위엄 있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뚫어 지게 밀레르를 쏘아 보더니 이윽고 석신했던 목소리로 말했다.

《밀레르씨,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당신은 지난한때 조선에서 류학을 하였다던데요.》

《그렇소.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는거요?》

밀레르는 혀 꼬부라 진 소리를 내뿜으며 또다시 고개를 주억거리었다.

《혹시 이 녀성을 아시는지. 심현아라고 당신의 동창생일텐데...》

그 사나이는 밀레르앞에 한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다. 사진속에는 아름다운 조선처녀가 밝게 웃고 있었다.

밀레르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아, 비너스! 웬소. 이 녀자는 조선의 비너스요!》

밀레르는 사진을 두손으로 덥석 집어 들었다.

이제는 헤어진지도 거의 7년 세월이 흘렀지만 외국인류학생들속에서 미의 녀신인 비너스로 불리우던 현아의 그 미모는 여전하였다.

밀레르는 류학시절에 그한테서 조선어수업 과의

지도를 받군 하였었다.

그런 현아의 아름답고 리지적인 모습을 이러한 어지러운 카페에서 다시 보게 된 밀레르는 그 사나이에게로 의혹이 실린 눈길을 돌렸다.

그 사나이는 대답대신 자리에서 일어 섰다.

《밀레르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하겠습니까.》

《그건 어째서요. 당신들은 누구요? 난 망명객이요. 보호권을 가지고 있소.》

밀레르는 강경하게 항의했지만 두 사나이는 그의 랑팔을 하나씩 붙들어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밀레르를 끌고 나온 바깥에는 이미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밀레르를 태운 그 승용차는 곧 거리의 혼잡속에 끼여 들었다. 승용차가 가닿은 곳은 뜻밖에도 미항 공우주국의 청사였다.

밀레르는 이곳에 와서야 조선의 어느 한 우주탐험대가 머나먼 우주공간에서 《은하-26》이라 명명한 소행성을 발견하였다는 희한한 소식과 함께 그 탐험대의 대장이 바로 자기의 류학시절 옛 동창인 심현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소행성 《은하-26》에 대한 현지탐험을 수행한 제58우주탐험대 대장 심현아는 요즘 복잡다단한 탐험대의 일거리보다도 해설원사업으로 더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구에서는 얻기 힘든 희유금속광물이 300억톤 켜나 묻혀 있는 이 소행성을 발견한것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후 세계의 여러 나라 우주탐험대들과 과학자들이 람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된 《은하-26》으로 꼬리를 물고 떼없이 찾아 왔던것이다.

다행히도 현아에게는 과학원 우주연구소의 자료해설원이라는 탐험대 전 생활이 있어 그 사업에서는 누구도 대신 못할 능수였다.

지금도 단아한 몸매와 아련한 얼굴생김의 현아로서는 차라리 우주탐험가라기보다 우주의 《성지》를 지켜 선 성녀로 불리우는것이 더 어울릴런지도 모른다.

그만큼 현아의 우아한 미모는 쓸쓸한 풍경의 우주세계에서 갈증난 사람처럼 아름다움을 그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송이의 생신한 꽃송이였다.

바로 그 현아에게로 오늘은 대학시절의 동창생이였던 게. 페. 밀레르가 우주비행선 《위싱턴》호를 타고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찾아 왔다.

현아는 소행성의 표면에 착륙해 있는 자기네 탐험선의 응접실에서 옛 류학동창생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제 얼마만이예요, 밀레르씨.》

《허허... 현아씨의 미모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밀레르와 마주 앉아 지나간 학창시절에 대한 애뜻한 추석과 회상담을 나누던 현아는 그에게 넋지시 물었다.

《참, 밀레르씨가 자기 조국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세요?》

밀레르는 아픈 곳을 찔려온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조국보다 돈이 더 귀중하게 되었지요.》

현아의 얼굴은 금시 어두워 졌다.

《유감이군요. 것처럼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포부가 크던 밀레르씨가 아니예요.》

《나쁜만이 아닙니다. 그 땅의 많은 과학자들이 다 조국을 떠나 인생로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다 돈때문이지요. 돈때문에.》

밀레르는 또다시 무거운 한숨을 토하더니 슬며시 현아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어떻습니까? 현아씨, 당신들의 이 <은하-26> 개발은 현실성이 있는것입니까? 우주개발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아실테지요.》

밀레르를 바라보는 현아의 표정은 진중하였다.

《우리에게는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신념이 있어요.》

《내 당신네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몰라서 하는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이란 역시 재력에 의해서 담보될 때에만... 레를 들면...》

밀레르는 자기의 얼굴을 뚫을듯한 현아의 눈길에 주눅이 들었던지 잠시 말꼬리를 흐리었다.

《미국의 우주과학을 들수 있지요. 그 나라는 화성에 우주개발기지를 꾸리는데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쨌다는거예요?》

밀레르는 함께 온 동료들을 힐끗 바라보고는 왜서인지 떠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지구까지는 3억 4천만 km 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를 술한 운반선들이 왕복비행하면서 이 소행성의 희유광물을 실어 나르자면 엄청난 자금이 들것입니다.》

밀레르는 현아의 얼굴표정을 주시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화성에 있는 미우주개발기지를 중간정류소로 정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정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 소행성의 보물

을 조국의 자원으로 리용할것입니다.》

밀레르는 놀랍다는듯 두팔을 벌리며 두어깨를 으쓱거리었다.

《그러면 우주중간정류소를 따로 띄우겠다는겁니까? 허! 운반비행선만도 수백대나 제작해야 할텐데 거기에도 우주중간정류소까지 만들어 띄우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것입니다. 조선속담에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지요.》

《<한번 말하기전에 두번 들으라>. 이것은 당신네 나라 격언이지요. 우리에게는 운반비행선도 그리고 중간정류소도 필요 없습니다.》

현아의 이 대답은 밀레르뿐아니라 함께 온 그의 동료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그건 어째서입니까?》

《이제 얼마후이면 이 소행성이 지구의 <달>로 되니까요.》

《지구의 <달>?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안이 병병해 있는 밀레르와 그의 동료들의 모양을 보며 현아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었다.

《지금 이<은하-26> 소행성은 지구로부터 거의 10억만리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인공적으로 변화시켜 지구가까이로 끌어 가 정지위성자리길을 따라 도는 지구의 위성으로 만들것입니다.》

밀레르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사람의 힘으로 우주천체의 궤도를 변화시킨다? 소행성을 끌어가 지구의 위성으로 만든다?

밀레르의 동료들중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은 한 사나이가 현아에게 석실했던 목소리로 물었다.

《현아선생, 하늘의 별을 따오고 싶어 하는것은 누구나 유년시절에 가지는 철 없는 꿈이지요. 현대 선생은 아직도 그 꿈에서 깨여 나지 못한것이 아닙니까?》

《꿈을 안고 사는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그 꿈을 실현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과학이예요.》

다기차게 울리는 현아의 말소리는 계속되었다.

《지금 지구의 정지위성자리길에는 우리 나라의 우주제련소들과 우주공장들이 떠 있어요. 우리는 이 소행성을 그곳으로 끌어 가 지구를 도는 세계최초의 대우주야금기지로 만들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개발이 아니라 우주개조이며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밀레르는 현아를 두려운 눈길로 훑쳐 보았다.

류학시절 것처럼 우아하고 아련하게만 보이던 현아의 모습이 지금 밀레르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안겨들었다.

이제 보니 이 조선처녀는 결코 비너스가 아니였다.

고대신화의 많고많은 너신들중에서 밀레르의 눈앞에 언뜻 떠오르는것은 과학과 평화의 수호신인 팔라스였다. 지금 밀레르에게는 현아의 아름다운

미모가 도리어 위압적으로 안겨 들면서 그 고대 그리스 여신의 너신앞에 앉아 설교를 듣는듯 가슴이 옥죄여 들었다.

강요와 돈의 유혹에 못 견디어 우주로 올라와 《은하-26》을 추격해 오던 도중 커다란 소행성과 맞부딪칠번까지 하였던 《위성론》 호이고 보면 밀레르의 앞일은 그때 벌써 징조가 불길했었다.

그런데도 석심한 목소리의 사나이는 현아에게 비양조로 말했다.

《현아선생, 당신들의 그 일은 이제 자연 대 인간이라는 무서운 혈투극으로 될것입니다. 그런 혈투에 몸을 내대기에는 선생의 그 젊음과 미모가 너무도 아까운데요.》

현아는 자리에서 일어 섰다.

《우리의 청춘과 아름다움은 다 조국을 위한것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량으로 궁지로 여긴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난 세기에 지구의 자연을 개조한것처럼 현세기에는 우주를 개조하여 이 우주공간의 모든 천체들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자기의 궤도를 돌게 할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간 넓이기도 합니다.》

발짓하던 현아의 아름다운 얼굴은 점점 근엄한 기색으로 물 들어 갔다.

현아의 그 기색은 밀레르네 일행이 떠나간 후에 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자기네가 벌리게 될 우주개조의 거대한 사업은 현아의 가슴속에 걱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것이다.

우주개척에 한생을 바치신 아버지의 념원!

바로 그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온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떠나 우주라는 엄혹한 세계로 날아 오른 현아였다. 현아는 그 길에 청춘시절의 사랑까지도 바쳤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그때 벌써 현아에게는 처녀의 순진한 가슴속에 사랑의 불길을 지펴 놓은 한 청년이 있었다.

현아가 지금껏 남자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림진명이라는 연구사청년 한사람뿐이었다.

...그날도 그들은 저녁노을 비낀 옥계천의 유보도를 나란히 걸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날따라 빈민에 잠겨 있는 진명과는 달리 현아의 표정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진명동무, 앞으로 우리의 이 행성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가요?》

《글쎄...》

《전 그것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우리의 지구위를 도는 수많은 위성도시들, 우주제련소, 우주발전소들... 호호... 그때면 아마 우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지요?》

여느때없이 다사한 현아의 태도는 진명이에게 의

문을 가져다 주었다.

《현아동무,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그러자 발랄하던 처녀의 모습은 서리 맞은 함박꽃이 되고 말았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망설이던 현아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이제부터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건 무엇때문이요?》

《전 이제 곧... 우주탐험을 떠나요.》

현아의 대답은 나직했으나 진명의 대꾸는 우뢰처럼 울리었다.

《뭐요?!》

그 소리에 현아는 찬비 맞은 병아리처럼 몸을 웅송그리며 고개를 숙이었다.

《미안해요. 동무와 사전토의도 없이...》

진명은 대꾸없이 거친 숨만 내쉬었다.

《그래 꼭 가야겠소?》

《...》

《우주탐험이란 험치 않소. 남자들도 힘겨워 하는 거요.》

하지만 현아는 떠나야 했다.

자기네 우주연구소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우주탐험을 펼기해 나섰을 때 제일 선참 연단에 나선것이 바로 현아였다.

바로 그 길이 연구실에서 순직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을 받들고 빛내이는 길임을 자각했기에 현아는 연단에서 불 같은 열변을 토하였던것이다.

《정말 놀랍소.》

이렇게 나직이 중얼거리는 진명의 목소리는 침울하였다.

한동안 선 자리에서 강물우에 눈길을 준채 묵묵히 서있던 진명은 무슨 결심이 섰는지 단호히 고개를 돌리었다.

《우주비행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동무에게 내 말 못하고 있던것을 다 이야기하겠소.》

하지만 진명은 현아가 떠나는 날 우주비행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바래움을 받지 못한채 우주로 떠나는 처녀의 마음은 실로 서글펐다.

혹시 이렇게 자기들은 영영 헤어지는것이 아닐가?

현아는 후날에야 진명이 그날 시험도중에 일어난 폭발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채 병원으로 실려갔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흘러서 아득한 우주공간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현아는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였다.

현아는 그런줄도 모르고 순간이나마 진명을 의심했던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하였다.

(진명동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후 현아는 탐험의 나날 멀리서 반짝이는 지구별을 바라볼 때면 진명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리고 그와 다시 만나 피우지 못한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울 그날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기
다려 왔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명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딸자식까지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현아는 실
련의 고통으로 침식까지 있었다. 진명의 안해는 장
기간 외국에 나가 국제물리학회센터에서 사업하다
가 귀국한 미모의 현숙한 여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현아는 진명을 탓하지 않았다. 나이서
른살을 눈앞에 둔 처녀를, 그것도 머나먼 우주에서
언제 돌아 올지 모를 여성을 세월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라.

결국 현아와 진명의 인생로는 하나로 합쳐 지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현아는 애당초 진명과 헤어져 우주탐험
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기 동무들의 충고에
자신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 왔기에 오늘은 대우주개조의 성스러운 위
업에 한몫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조국에서는 《은하-26》 소행성의 인공적인 궤
도변화를 위한 기술적방조를 위해 두명의 연구사를
떠나보냈다.

두 연구사는 오늘래일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현아네는 그들이 도착하면 인츰 《은하-26》 소
행성의 인공적인 궤도변경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다음날 조국에서 파견한 두 연구사가 《은하-
26》 소행성에 도착하였다.

반가움에 젖어 그들을 마중하던 현아는 그만 온
몸이 굳어 지고 말았다.

탐험선의 조종실로 들어 서는 나이 젊은 두 연구
사중의 한사람이 바로 림진명이었던 것이다.

함께 온 다른 연구사도 현아에게는 낯이 익은 최
동훈이라는 진명의 친구였다.

《현아동무!》

진명은 벅글거리며 현아앞으로 다가왔다.

《아-》

현아는 가벼운 신음소리를 지르며 두눈을 꼭 감
았다. 옛 연인과의 너무도 뜻밖의 상봉은 현아에게
파종한 심리적부담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처녀의 가슴속에서는 지금 5년만에 진명을 다시
만난 기쁨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실련의 상처로 오
는 모진 아픔이 서로가 엉켜 돌며 소용돌이를 일으
키고 있었다.

하지만 현아는 자기의 그 마음속 감정을 애써 누
를 줄 아는 여성이었다.

《기다렸어요.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시다.》

《정말 반갑소. 현아동무가 그간 큰 일을 해놓았
더구만.》

진명이 역시 별다른 내색을 나타내지 않고 웃으
며 현아를 대하였다. 현아는 그에게 웃음을 지어보
였다.

《진명동무도 그간에 많이 변하셨어요. 박사학위
를 받으셨다지요. 축하합니다.》

진명은 어쭙게 웃음을 지었다.

《허참, 어느새 벌써 그걸 다 아오.》

《호, 제가 진명동무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있는줄
아세요? 참, 딸애이름이 꽃순이라 했던가요?》

진명이 얼굴이 벌개서 미처 대답을 못하자 곁에
있던 동훈연구사가 능청스레 웃으며 현아에게 대꾸
했다.

《정말 꽃처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만나보십시오. 아마 현아동무를 반겨맞을
겁니다.》

진명은 친구에게 피곳 언짢은 눈길을 주었다. 잠
시 방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명은 그 침묵을 가실양으로 인츰 화제를 돌리
었다.

《〈은하-26〉 소행성의 현재위치는 확정되어 있
소?》

《예.》

현아는 조종대의 전자항도판을 켜놓고 복잡하게
나타나있는 친구의 별자리들을 가리키었다.

《현재 〈은하-26〉의 위치는 적경 128도, 적위
252도 근방인 여기 227공간구역이예요. 앞으로 소
행성은 이곳 354공간구역에서부터 궤도변경을 시
작하여 화성자리길을 지나 지구로 향하게 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은하-26〉 소행성이 가게 될 이항
로에 651이라는 수자를 붙이였습니다. 우리 탐험대
는 그간에 모든 준비사업을 다 끝냈어요.》

현아의 담담한 어조에는 자랑과 공지가 넘쳐 있
었다.

실로 천체의 자리길을 변경시키는 대우주개조의
거창한 위업에 현아네 탐험대는 많은 일을 해놓았
던 것이다.

354공간구역에 이른 《은하-26》 소행성은 곧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공적인 천체의 궤도변화를
시작하였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이끌려 수십억년동안이나 불
변궤도를 따라돌던 우주의 천체.

바로 그 천체가 지금은 인간의 힘과 지혜에 의해
서서히 자기의 운동궤도에서 벗어 나 651호항로에
들어 섰다.

《은하-26》 소행성의 앞쪽에서는 연이어 고능력
에너지재료의 작열로 눈부신 화광이 일어 나고
있었다. 소행성은 그로 인한 반충력으로 자기의 운
동속도를 조금씩 늦추며 화성의 자리길쪽으로 움직
여 갔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다 그러하듯이 소행성
《은하-26》도 항성의 인력과 자기의 운동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길을 따라 돈다. 그러한 《은하
-26》의 속도를 조금씩 감소시키면 그 균형이 파
괴되므로 소행성은 태양쪽으로 끌리우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태양쪽으로 끌려 가던 소행성이 지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는 지구의 인력권안에 들게 되는것이다.

《은하-26》 소행성은 이러한 자리길변화원리로 이제 얼마후이면 화성자리길근방에 이르게 된다.

조종대에 마주 앉은 현아옆에 서서 전자항도판에 나타난 《은하-26》 소행성의 운동궤도를 주시하던 진명은 현아에게 은근히 물었다.

《어떻소, 현아동무. <은하-26>이 화성자리길근방을 지나게 될 때의 화성인력의 영향을 고려해보았소?》

《저도 그것이 걱정돼요. 651호항로에서 화성이 멀지 않게 놓이게 될거예요. 사소한 항로편차만 생겨도 우리는 화성의 인력에 끌려 들어...》

현아는 뒤말을 잇기가 두려운듯 말꼬리를 흐리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처럼 될수 있단 말이지.》

진명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화성의 자연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태고적에는 소행성들이었다. 그런 두 소행성이 언젠가 화성자리길근방을 지나다 인력에 끌려 들어가 지금은 그 행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변해버렸던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은하-26》 소행성도 지구에 가깝게 접근하면 지구의 인력에 끌려 들게 된다. 이때 지구와 소행성간의 거리가 3만 5천 8백 km 에 이르러 《은하-26》의 접선방향운동속도를 초당 3.1km 로 해주면 그것은 정지위성자리길을 따라 도는 지구의 영원한 자연위성이 된다. 이 모든 공정은 지구와 소행성 두 천체의 자리길방향과 위치, 질량, 제돌이와 남돌이속도 등의 정확한 관측과 컴퓨터의 정밀계산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니 항로가 조금만 편차나도 이 행성이 화성쪽으로 끌리우게 된다는 현아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합시다. 화성의 인력을 무사히 피하기 위해 <은하-26>의 속도를 003으로 가속시킵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치인가?》

동훈연구사가 진명에게 묻는 말이었다.

《내 이미 계산을 해보았네. 위성이 행성에 가까이 있을수록 운동속도가 커야 한다는 법칙이 있지 않나.》

《케플레르의 제2법칙 말인가?》

《옳네. 그 법칙은 바로 화성과 우리 <은하-26> 소행성에도 성립되네.》

이런 진명이 곁에 있음으로 하여 현아는 마음이 든든하였다.

비록 그와의 사랑은 이루지 못했어도 현아는 진명의 과학적재능과 침착한 일처리에는 탄복을 금할수가 없었다.

하기에 현아의 아버지 제자인 천상렬상급연구사

도 전공부문이 서로 다른 진명이지만 그를 알게 된 후부터는 마치도 친동생처럼 아끼고 믿어 주었었다. 지나간 현아와 진명간의 사랑도 실은 그 상급연구사부부가 맺어 준것이였다.

그러한 그들부부는 우주태양발전소건설중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수많은 생명과 귀중한 설비, 자재를 구원하고 자기들의 꽃 같은 생명을 바치였다. 그것은 현아가 우주탐험의 길에 오른 후 잊은 일이었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자기들의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며 간 우리의 과학자들.

바로 그들이 남기고 간 념원을 안고 오늘은 현아네가 우주개조의 거창한 위업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별안간 조종관의 신호등이 붉은 빛을 깜박이며 다급한 비상신호를 울리기 시작하였다.

현아는 흠칫 몸을 떨며 조종관의 여기저기로 눈길을 누벼 냈다. 항로표식판의 그래프가 경련을 일으키는 광경이 눈에 미치자 현아는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듯 하였다. 그것은 《은하-26》 소행성의 속도조종에 이상이 생겼음을 보여 주기때문이다.

무슨 일일까?

현아는 금시라도 심장이 튀어 나올듯한 가슴에 두손바닥을 꼭 가져다 대고 진명을 바라보았다.

《16호구역이 사고요.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화기들이 작용하지 않고 있소.》

《예?!》

이것은 정말 뜻밖의 비상사고다.

《은하-26》의 운동방향과 속도는 24개로 나눈 구역마다 설치된 고능력에너지재료의 순차적인 발화에 의한 반충력으로 자동조종되고 있었다. 때문에 어느 한 구역에서라도 발파가 진행되지 않으면 《은하-26》의 속도변화에 불균형이 생겨 소행성이 651호항로상에서 벗어 나게 된다.

매 구역마다에는 발파기들을 감시하고 조종과는 로보트들이 배비되어 있는데 16호로보트한테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는것이 이상했다.

현아는 급히 우주모를 집어 들었다.

《제가 16호구역에 나가겠어요.》

《함께 갑시다.》

어느새 예비접화기를 집어 든 진명은 어깨우로 넘어 간 산소흡입관을 손질하고 있었다.

급히 준비를 끝낸 현아와 진명은 탐험선의 조종실을 나섰다.

바깥은 지금 태양과 마주한 곳이어서 《은하-26》 소행성의 표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우주복의 등에 진 소형로켓의 분사력으로 날아 16호구역에 가닿았을 때 그곳은 《밤》이였다.

직경이 1.8km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천체이지만 이 《은하-26》도 행성이라고 남돌이와 함께 6시간 15분을 주기로 제돌이를 하여 《낮》과 《밤》

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볍게 표면에 내려 선 현아와 진명은 우주모에 설치된 투광등을 비치며 발화기들을 찾아 내었다. 무엇때문인지 발화기들의 자동장치가 마구 파괴되어 있었다.

현아가 급히 조종기구로 16호로보트를 호출했지만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아는 불쑥 눈앞에 밀레르와 함께 갔던 석유탄 목소리의 사나이가 《은하-26》 소행성을 떠날 때 짓고 있던 음험한 얼굴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섬적해 들었다.

16호구역의 18개 발화기들은 모두 숨 죽어 있었다. 이것이 그자들의 작간질이라면?...

현아와 진명은 급히 량쪽으로 갈라 저 자동장치가 파괴된 발화기들대신 예비점화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중력이 미미한 이곳 소행성에서는 걸기조차 불편하였다. 조금만 발에 힘을 주어도 몸은 풍선처럼 허공으로 둥둥 떠오르려 하였다.

현아가 다른 발화기로 또 다가갈 때였다.

별안간 현아의 머리와 어깨에 둔중한 타격이 가해졌다.

《아!-》

현아는 눈앞이 아찔해 지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우주도에 설치된 송수신장치로 현아의 비명소리를 들은 진명이 다급히 웨치었다.

《현아동무! 무슨 일이요?》

현아는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었다.

자기의 등뒤에서 얼씬거리는 몇개의 검은 형체들을 알아 보았던 것이다.

현아는 급히 허리춤에서 레이자빛총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 또다시 달려 드는 그 검은 피한들에게로 연방 빛줄기를 뽑아 댔다. 강력한 레이자빛에 얼어맞은 그것들은 맥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몸을 일으키려던 현아는 숨이 껍 막히어 다시 주저앉았다. 왜서인지 숨이 가빠나기 시작하였다.

피곳 뇌리를 치는 생각에 간신히 우주복의 어깨우로 손을 더듬던 현아는 흠칫 몸을 떨었다. 어깨의 산소흡입관이 터져 구멍이 나있었던 것이다. 이 일을 어찌나? 이제 그곳으로 산소통의 산소가 모두 새여 나가면 그때는 마지막이다.

이어 진명이가 현아에게로 날아 왔다.

《무슨 일이요?》

진명은 현아에게 다급히 물었다.

《저... 저것들이...》

현아가 비쳐 대는 투광등의 불빛에 쓰러져 있는 세계의 검은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들은 록키드항공회사에서 만든 우주용로보트들이었다.

《다친 곳은 없소?》

《전 괜찮아요. 빨리 발화기부터...》

아직은 현아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진명은 다시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흡입관의 터진 구멍으로 하여 제정량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현아는 마치도 100m 달리기 하고 난 뒤처럼 계속 숨이 가빠 났다. 그 가쁜 호흡도 당분간일 것이다. 이제 몇분후이면 산소통의 산소가 모두 새여 나가게 된다. 그 시간이면 자기는 얼마든지 탐험선으로 되돌아 갈수 있고 생명은 구원될수 있다.

그러면 저 숨 죽은 발화기들은?

안간힘을 써가며 또다시 예비점화기들을 설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다섯개, 여섯개...

이제는 현아의 정신이 혼미해 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우주모의 수화기에서 진명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현아동무, 그쪽 일은 어떻게 됐소?》

현아에게는 그 목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간간히 들려 오는듯 하였다.

《현아동무, 왜 대답이 없소? 현아동무!》

(진명동무, 이 소행성을 부탁해요. 《은하-26》을 꼭 조국으로...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현아는 떠나온 탐험선쪽으로 간신히 고개를 돌리었다. 우주탐험의 기나긴 나날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정다운 동무들이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단 한번만이라도...

(동무들, 안녕히... 이 몸은 죽어도 녀만은 살아서 동무들과 함께 꼭 조국으로 가겠어요.)

진명이 날아 왔을 때 현아는 이미 질식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였다.

이제는 《은하-26》 소행성이 화성자리길과 가까와 졌다.

별처럼 깜빡이던 화성인 이제는 지구에서 보는 보름달보다 더 큰 구체가 되어 불그스레한 빛을 내고 있었다.

치료실의 침대에서 일어 난 현아는 아직도 추서지 못한 몸을 가누며 탐험선의 조종실로 나왔다.

그를 먼저 알아 본 동훈연구사가 펄쩍 뛰며 나무랐다.

《여기 일은 걱정 말라는데 왜 또 나왔습니까?》

《이젠 괜찮습니다.》

현아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앞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올리었다.

사실 진명이가 그곳에 조금만 늦게 가닿았어도 그는 생명을 잃었을것이다. 현아는 그때 맥박조차 겨우 알릴듯말듯 하였었다.

탐험대의사는 그에게 아직 더 며칠간 안정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사정하였건만 현아는 자리에 누워 있을수가 없었다.

《은하-26》 소행성이 화성자리길쪽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현아는 마음이 긴장해지기만 하였던 것이다.

소행성에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우주용로봇들과 자동발화기들의 파괴, 16호로봇의 행방불명은 《은하-26》에로 어떤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현아는 화성에 있는 미우주개발기지로 자기네를 꼬드기던 밀레르의 표상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워싱턴》호가 우리 《은하-26》 소행성을 노린다며?...

진명이도 같은 생각인듯 긴장한 얼굴로 항로표식판의 그래프만 주시하고 있었다.

항로표식판의 그래프는 변함없이 651호항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정상항로로 얼마간 더 가면 그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구이다.

그들이 이곳까지 날아 온 2억 6천만 km 에 비하면 앞으로 남은 지구까지의 7천 7백만 km 는 실로 지척이라 할수 있는 거리이다.

이제는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별안간 조종실의 통신기에 자동수신등이 켜지더니 어데서 날아 오는지 알수 없는 무선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은하-26> 소행성은 우리 말을 들으라! <은하-26>은 우리 말을 들으라!》

현아의 얼굴에는 한순간 긴장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억양 자체가 불순했던것이다.

현아는 침착하게 통신기앞에 다가섰다.

《<은하-26> 소행성 듣는다!》

《아, 현아씨!》

귀에 익은 밀레르의 목소리가 통신기에 크게 울리었다.

《밀레르씨, 무슨 일이에요?》

《현아씨, 화성에 있는 미우주개발기지에서는 당신들이 <은하-26> 소행성을 자기네한테로 끌어오는 경우 거액의 보수와 함께 우주촌에서의 호화생활을 담보해 왔습시다. 어쨌소, 현아씨. <은하-26>이 갈수 있는 항로야 하나뿐이 아니지 않소.》

《아니! 우리의 항로는 오직 651이예요.》

현아는 뻔뻔하게 대꾸하였다.

《현아씨, 항로야 651이던 652이던 우리야 과학자들이 아니요. 과학자는 어데서 무엇을 위하던지간에 자기의 지식과 재능이면 된단 말이요.》

《그만해요! 설사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기의 조국이 있다는것이 바로 조선의 과학자들이 지닌 신념이예요. 우리의 지식과 재능도 바로 그 조국을 위한것이예요.》

단호한 현아의 웨침에 밀레르는 애걸하였다.

《현아씨, 화성으로 항로를 바꾸시오. 그렇지 않다가는 <은하-26>이 산산조각이 나오. 그러면 당

신들의 생명도 모두... 제발 내 말을 듣소.》

《밀레르씨, 제 말을 똑똑히 들어요. 우리가 가는 항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자 통신기에서는 밀레르대신 악에 받친 석침한 목소리의 고향이 터져 나왔다.

《항로를 바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시키겠다!》

《어리석은 수작 말아! 그 무엇도 우리의 항로를 가로 막지 못한다!》

현아는 야멸차게 웨치고 통신기의 전원스위치를 와락 잡아 제끼었다.

조종실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흐르던 그 침묵을 깨뜨리며 별안간 탐지수치녀의 새된 비명이 터져었다.

《앗! 운석이에요!》

정말 전방탐지기의 커다란 화면에 울퉁불퉁한 운석의 자태가 비쳐 들었다.

운석의 크기는 《은하-26》 소행성만 못지 않았다.

《651호항로쪽이요.》

진명은 얼른 컴퓨터앞에 마주 앉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컴퓨터의 형광막에 나타나는 수자들과 그래프들을 지켜 보던 모두는 깜짝 놀랐다. 이제부터 28분후, 그 운석이 《은하-26》 소행성과 651호항로상에서 충돌하게 되기때문이다.

굉장한 속도와 질량을 가진 두 천체의 충돌.

실로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무서운 일이다.

갑시에 조종실안은 무거운 중압에 짓눌려 졌다.

모두의 눈길이 현아에게로 쏠리었다.

하지만 형광막에 비쳐 진 운석을 지켜 보는 처녀의 표정은 너무도 태연하였다.

현아는 이미 비장한 각오를 하였던것이다.

우리의 651호항로를 절대로 바꿀수 없다. 《은하-26》 소행성앞쪽으로 날아 오는 저 운석을 저지시켜야 한다.

만약 운석파괴발사기로 운석을 깨버리면 그 조각들이 생겨 《은하-26》의 항로에는 더 많은 장애물이 생길것이다. 그렇다고 운석으로 로봇들을 보낼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저 운석에 가면 어떤정황이 생길런지를 전혀 알수 없는 한 로봇의 조종프로그램을 짤수가 없었고 또 그럴 시간적여유조차 없는것이다.

그러니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든 운석으로 먼저 날아 가 그것의 앞면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속도를 떨구어 《은하-26》 소행성이 지나갈 때까지 651호항로에 와닿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현아는 침착하게 동무들을 돌려 보았다.

《소형비행선을 시동시키세요. 그리고 빨리 비상용 고능력에너지재료들과 자동발화기들을 적재하세요. 작업완료시간은 10분! 자, 모두 자기 위치로!》

아직은 현아의 속마음을 알수 없는지라 탐험대원들은 재빨리 조종실에서 홀어져 나갔다.

최동훈연구사까지 조종실에서 바빠 나가자 현아는 점화기와 자기의 우주모를 손에 들었다.

《어찌자는거요?》

조종실이 남아 있던 진명이 현아에게로 다가섰다. 현아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를 지못게 바라보는 진명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리었다.

《현아동무, 안되오. 동문 여기 있어야 하오.》

진명은 걸음을 옮기려는 현아의 앞을 막아 섰다.

현아는 고개를 떨구고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나가면 무사히 되돌아 오겠는지를 기약할수 없는 길, 바로 그런 길이기에 더더욱 자기가 가야 하는것이다. 현아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깔끔한 눈매로 진명을 쏘아 보았다.

《비키세요!》

《아니! 내가 나가겠소!》

그러자 도고하던 현아의 얼굴은 삽시에 겁 먹은 어린애처럼 울상이 되었다.

《안돼요! 동문 절대로 안돼요.》

《왜 안된다는거요.》

현아는 고개를 외로 돌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동무에겐...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그만하오!》

벼락치는듯한 진명의 큰 소리에 현아는 흠칫 몸을 떨며 얼굴을 쳐들었다.

진명의 두눈은 사납게 번뜩이고 있었다.

《사람은 결코 나약성의 함수가 아니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 대담해 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서슴없이 바치는거요.》

진명은 현아의 손에서 점화기를 와락 나꿔 채었다.

《안돼요. 제발 제 말을 들어요.》

현아는 애원하며 진명이에게 매여 달리었다.

지나간 자기의 사랑이 소중했기에 그만큼 그를 위해 바치는 다른 녀성의 사랑을 지켜 주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는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싶은 현아였다.

진명은 그러는 현아를 밀쳐 버리고 문가로 씨렁 씨렁 다가갔다.

《진명동무.》

애절하게 울리는 현아의 물기어린 부름에 진명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리었다.

《현아동무, 걱정 마오.》

진명은 현아에게 다정히 웃어 보였다.

아, 저 눈빛.

깨끗하고 인정에 넘친 진명의 저런 눈빛을 처녀는 5년전 옥계천의 유보도에서 보군 했었다.

한순간 현아는 지금 자기가 그때의 진명이앞에 서 있는듯 가슴이 확 달아 올랐다.

현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였던 진명이인가.

그런 진명이 지금은 자기를 대신해서 위험한 길을 떠나게 되니 현아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흑! 진명동무, 무사히... 꼭 무사히... 기다리겠어요.》

곧 《은하-26》 소행성에서 앞방향으로 소형우주비행선이 불줄기를 뿜으며 날아 갔다.

조종실에 다시 모여 든 탐험대원들은 진명의 우주모 송수신기와 련결된 확성기만을 애 타게 쳐다 보았다.

현아는 송화기를 쥐고 연방 진명을 찾았다.

《진명동무! 진명동무!》

시간이 얼마간 흐른후 조종실의 확성기에서 진명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나 진명이요. 운석에 착륙하였소. 지금 운석뒤쪽 30km 방에 <워싱턴>호가 따라 오고 있소.》

《진명동무! 조심하세요.》

모두는 손에 땀을 쥐었다. 그들에게는 한초한초 시간의 흐름이 가슴을 저며 대는 비수 같았다.

이어 조종실의 시창밖에 651호항로쪽으로 다가드는 운석의 자태가 자그마하게 육안으로 안겨 들었다.

《진명동무! 5분 남았어요.》

《걱정 마오. 장약을 끝냈소. 이제 자동발화기만 설치하면 ...》

동훈연구사는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연방 소리를 질러 댔다.

《진명이! 빨리! 빨리 하라구!》

시창으로 내다보이는 운석은 계속 맹렬한 속도로 《은하-26》 소행성의 앞방향쪽으로 날아 오고있었다. 그뒤로 얼마간 거리를 두고 따라 오는 《워싱턴》 호도 눈에 띄었다.

별안간 확성기에서 진명의 짙막한 비명소리가 울리었다. 현아는 덜컥 심장이 멎는듯 하였다.

《진명동무! 무슨 일이에요?》

대답이 없었다.

《진명동무! 진명동무!》

한동안 침묵하던 확성기에서 안간힘을 써대는 진명의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 나왔다.

《그자들이 여기에 록키드로보트들을... 그것들때문에... 제거해 버렸소.》

《진명동무, 이제 160초 남았어요. 빨리 운석에서 리탈하세요!》

모두는 너무도 안타까와 마구 발까지 탕탕 굴러댔다.

《현아동무, 자동발화기설치가 아무래도 시간이... 직접 발화하겠소.》

《뭐예요?!》

현아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몸을 떨었다.

직접 발화를 하려면 폭발순간까지 진명이가 운석에서 떠나지 못하게 된다.

《안돼요! 진명동무, 위험해요. 빨리 리탈하세요.》

이윽고 확성기에서 진명의 비장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현아동무, 우리 가는 이 항로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이 아니겠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청춘도 있는것ियो. 마음을 굳게 먹소. 조국에 돌아가면 동무가 내대신 우리 꽃순이를…》

현아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진명동무! 안돼요!》

확성기에서 진명의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나왔다.

《동훈이! 동무들! <은하-26>을 꼭 조국으로…》

진명의 절절한 부탁의 말소리가 끝을 맺기도 전에 운석앞쪽에서 굉장한 화광과 보기도 무시무시한 폭풍이 터지었다.

《아!-》

현아는 얼굴을 싸쥐었다.

모두는 시청가에 매달려 가슴을 쥐여 뜯으며 저저마다 오열을 터뜨리었다.

《진명이!-》

《연구사동무--》

모두가 진명을 부르며 목이 터지라 웨쳐 댔건만 그 부름에 회답하는것은 운석에서 병긋거리는 시뻘건 화광뿐이었다.

진명이 일으킨 거대한 폭발로 흩칠 요동을 치며 운동속도를 떨군 운석에서 일어나는 화염과 포연, 먼지의 어마어마한 폭풍에 질겁한듯 뒤따르던 《위싱턴》호는 황급히 어둠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진명은 바로 그 폭풍치는 포연과 먼지에 휩싸여 캄캄한 우주공간으로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던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대우주개조사업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한 청년과학자의 위훈을 온 우주에 빛내이는듯 운석에서는 계속 눈부신 화광이 일어났다.

《은하-26》 소행성은 이제는 맥이 진한 짐승처럼 움직이는 운석을 뒤에 남기고 진명이 희생으로 열어놓은 651호항로를 따라 계속 지구를 향해 날아갔다.

《진명동무, 흑!-》

현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었다. 기다리는 사랑, 기다리는 행복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영영 가버린 진명이기에 현아는 더 가슴이 아팠다.

현아의 등뒤에서 동훈연구사의 목 갈린 음성이 울리었다.

《현아동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자, 어서 일어 나시오.》

《흑! 지금 조국에서는 진명동무의 딸이…》

동훈연구사는 가볍게 목소리를 떨었다.

《진명동문 그 딸을 현아동무에게 부탁하였습시다. 사실 그 꽃순이는 천상렬상급연구사의 부부가 남기고 간 딸입니다.》

현아는 얼굴을 싸쥐었던 두손을 맥없이 떨구었다.

《예?! 뭐라고요?》

꽃순이가 천상렬상급연구사의 딸이라니.

어쩌면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들부부한테 딸자식이 있었다는것조차 모르고 있었는가.

《그때 꽃순이는 겨우 한살이였습니다. 그런것을 외국에서 돌아 온 진명동무의 사촌누이동생이 맡아 키웠지요. 그 녀성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건만 현아동무가 우주에서 돌아 올 때까지 꽃순이를 잘 키우겠다고 아직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있답니다.》

현아는 이 말을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망연히 앉아 있었다. 정말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진명의 희생도 그가 여직껏 독신으로 자기를 기다려 왔었다는것도…

동훈연구사는 눈굽을 닦으며 갈린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현아동무, 미안합니다. 사실 내가 이제야 동무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것은 진명동무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소행성을 지구로 끌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이 사실을 현아동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아마 진명동문 그때 벌써 오늘과 같은 희생을 각오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제 가슴에 재가 앉도록… 흑-흑!》

현아는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현아동무, 그렇지만 동무는 진명동무의 가슴에 큰 불길을 지퍼 놓았습니다. 사실 5년전 그때 진명동무는 큰 실험을 앞에 두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험과정에 폭발이 일어 나 생명이 위험해 질수가 있었던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주탐험의 험한 길에 주저없이 오르는 동무를 보고는… 그도 위험한 실험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뒤흔치며 우주로 떠나는 현아동무를 바래워 주려 하였던겁니다. 그때 비록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진명동문 귀중한 발견과 수치를 얻게 되었고 오늘은 천체의 인공적인 궤도변화에 과학적인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진명동무, 어쩌면 그리도 야속하세요. 동무의 그 진정을 받아 들이기에는 제가 그렇게도 나약한 녀성으로 보이던가요.)

그렇지만 현아의 입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것처럼 사랑했고 소중했던 사람과 지금껏 하나의 인생로를 함께 걸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현아는 행복했던것이다.

(진명동무, 전 언제나 동무와 함께 있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동무와 함께…)

현아는 거연히 자리에서 일어 섰다.

《자!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세요. <은하-26>의 항로 곧바로! 속도 12! 방향각 008! 651호항로에서 단 1m의 탈선도 없게 할것! 전방, 후미, 좌우 선측 탐지는 이미 준 지령대로 하세요.》

《알았습니다.》

모두는 울먹거리며 대답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은하-26> 소행성을 지구로 끌어 가야 해요. 이것은 진명동무가 남긴 부탁입니다. 그는 죽지 않아요.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센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법이에요.》

×

그후 세계는 두가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하나는 조선의 우주과학자들이 머나먼 우주공간에서 보물소행성을 끌어 와 지구의 정지위성자리길에 진입시켰다는 경이적인 사변이고 다른 하나는 제. 페. 밀레르의 량심선언발표였다.

밀레르는 량심선언에서 《은하-26》에 대한 미항공우주국의 모략과 책동을 세상에 폭로한 후 국내외 기자들과의 회견을 가지고 651호항로에 대한 신비한 뜻풀이를 하였다.

그는 《6》과 《5》를 더하면 11이 되고 거기에다 《1》을 덧붙이면 111이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조선의 과학자들이 가는 길은 어제든 하나, 오늘도 하나, 래일도 하나임을 계시하는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우리의 주인공들이 실제 그러한 의미에서 불인수자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공갈에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의 인생로만을 걷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아마 밀레르로 하여금 그러한 신화적인 수자풀이를 하게 하였으리라.

여기로부터 유래해서 그후 세소에는 《변함없이 오직 하나의 길로만 간다》는것을 뜻하는 《651호항로》라는 새로운 격언이 생겨 나게 되었다.

그들은 열명이였다

리명근

전화의 그날

우리 수령님 찾아 오시여
허물없이 마주 앉으셨던
락원땅의 크지 않은 선전실
그곳엔 주물직장 당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열명이였다

우리 수령님 가슴깊이

신념의 불을 받아 안으셨던
그날의 락원땅
소박하고도 역센 심장을 터놓은
잊지 못할 당원들
그들은 열명이였다

수령님 한생토록

놓지 않고 안고 계신
락원땅의 신념에 찬 목소리
싸우는 인민의 넋을 합쳐
수령님께 드린 그 거대한 힘을 낳은
그들은 열명이였다

아, 오늘도

우리 장군님 지퍼 주신
락원의 거세찬 봉화의 불길속에
변함없이 울리는 그날의 목소리
그 불길속에 더 뚜렷한
빛나는 모습들
그들은 열명이였다

허나 정녕 열명이 아니구나

그들과 함께
우리 당기발을 더 붉게 물들인
우리의 당원들이
락원의 봉화를 가슴에 안고
전화의 그날처럼
자기 수령앞에 나섰다

신념과 투쟁과 승리를

자기의것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장군님과 하나의 운명선에 선
그들은 백만당원들이다!
그들은 천만인민들이다!

붉은 복숭아 외 2 편

김병익

바람도 맑은
전쟁도 끝나가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 드는 《그라망》 편대
파원에 《USA》 폭탄을 떨구 었다
애어린 소녀
한입 깨문 복숭아를
하얀 손에 전체
파편을 맞아 뜨거운 흠에 묻혔다

세월은 흘러
소녀의 굳어 진 손에선 자라올랐다
한그루 복숭아나무가
가지치고 구름꽃을 피우더니
해마다 복숭아가 주렁주렁...

하지만 마을사람들
차마 따지를 못했다
무르익은 복숭아는
그대로 땅에 떨어 지고
무수히 열렸다가는 또 떨어 지고
마치도 오늘토록
원한이 맺혀 주렁주렁 떨어 지는듯

아 붉은 복숭아
이해도 그 다음해에도
년년이 그렇게 떨어 지리
이 피어린 대지에...

숲

-강동땅에는 한 오랜 산림감독원이 있다-

울창한 숲을 휘젓는 비
이깔, 삼송, 자작, 송림속으로
저벅, 저벅- 걷는 사람이 있었네
산협에서 맹수들이 들뛰며
그에게 달려 들었네
하건만 물리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목메인 사나이 웃음소리
《아--이 숲에 산짐승들이 찾아 들었구나!》
눈가에선 흘렸네 비물인지 눈물인지
이 얼마만이더냐
여기 산판에 첫 나무모를 내던 그때가
어허라 이제는 스무해도 지났구나

우우우... 우우-
7월의 비발은 한것이나 퍼붓고
비물은 땀속까지 젖어 드는데
굳어 진듯 애어린 이깔목을 그러안고 있었네
어느덧 고요가 내리고 황혼도 내리고
저벅, 저벅-저벅, 저벅...
수림을 헤쳐 나오는 그대
내물에 언듯 비쳐 지는
젖은 얼굴을 얼쓸어 내리는데
희여 진 머리에선 흰 머리칼이 떨어 졌네
푸른 숲 비끼인 파아란 수면위에
조용히 얼굴 들어 앞을 바라 보니
아, 산천은 푸르구나!

우산장의 밤

-우산장에는 당의 작가들이 있다-

고요한 숲속에 불빛이 흐른다
풍월루 절벽아래선 철썩-
금빛달을 부서뜨리며 밤잉어 뛰고
바람결엔 술향기 은은한 숲속의 《작가촌》
두고 온 집은 동서로 멀어도
무척 당중앙이 가까운 정다운 교장이

고요한 숲속에 불빛이 흐른다
가는 해도 음력보름달도 여기서 보나니

이제는 삼백살을 더 산다는 느티나무여
이 밤엔 더더구나 네 말하려나
어허-
이 등불아래서 우리는 백발을 엮는다

고요한 숲속에 불빛이 흐른다
달리는 붓에도 혈조는 어리여
그렇게 쓴 원고장을 뿌리며는
저 국사봉을 하얗게 덮으리

내 특각로대에 올라 웨치건대
여기서 현대조선문학사가 흐르지 않느냐

고요한 숲속에 불빛이 흐른다
풍월루 절벽아래선 철썩-

금빛달을 부서뜨리며 밤잉어 뛰고
바람결엔 술향기 은은한 숲속의 《작가촌》
사철 인간학의 등불이 청산에 흐르는
아, 고요한 숲, 고요하지 않은 우산장아!

붉은기와 대홍단 외 1편

허광길

신선한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이 땅에 붉은기가 휘날린다
분장사무실우에도
청년진출자합숙 지붕우에도
산 같은 거름더미우에도
기계소리 흥겨운 드넓은 벌에도

상패하구나 저 붉은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눈부신 태양을 받들어 올리는 아침노을도
저 기폭의 붉은 빛에 물들었는가
하늘도 땅도 온통
붉은기와 한 빛이로구나

누리를 물들이는 저 붉은기
그날의 격전터에 승리의 총성 올리시며
우리 수령님 이 땅에 날리신
백두의 붉은기가 아닌가

못 잊을 그날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에
모진 바람 몰아 내고
이 땅은 봄기운에 파스해 지고
암흑속에 놀리워
해빛 한점 그림더니
대지는 열려
천만송이 꽃들 붉게붉게 피어 나고
행복의 노래 하늘가에 메아리쳐 갔더라

그래서 우리 수령님
이 땅을 대홍단이라 불러 주실 때
해방조국의 미래 안고
힘차게 나뭇기던 저 붉은기가 스친
그날의 싸움터를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 땅 백두삼천리벌은
우리 수령님 포근한 붉은 기폭으로 덮혀 주시고
붉은기를 휘날리시며 지켜 주시고 가꿔 주신 땅
붉은기를 떠나서 어찌
행복 넘친 백두대지를 생각할수 있으랴

수령님 이 땅에 휘날리신 저 붉은기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 숨결을 더해 주시거니
대를 이어 날리는 저 붉은기가 있어
감자꽃 만발한 백두벌은 끝없이 번영하고
저 기폭의 붉은 빛에 물들어
공산주의 봄노을은 이 땅에 제일 먼저 비끼리라

그래서 붉은기와 이 땅은
더 인연 깊어라
이 벌은 붉은기의 빛발에 더 붉어 질 땅
그래서 대홍단 그 이름은
이 땅 백두벌과 더 어울리지 않는가
오, 대홍단 대홍단
언제나 붉은기와 한빛인
성스러운 땅이여

사랑하는 처녀야

처녀야
너 어찌면 그리도 수수하나
늘쌍 입고 다니는 파란 작업복
기발처럼 나뭇기는 빨간 머리수건
벌에 그을려 감실한 두볼
땀에 젖은 작업복차림새
들에서 일하던 네 모습
마음에 들더라

그지없이 곱더라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들
대홍단에 불러 주실 때
크나큰 꿈을 안은 너
화려한 도시생활 정든 집 떠나
이 땅을 찾아 왔었지

그렇게 소문없이 찾아 와
언제 봐야 들에서 포전에서 살아 온 너
이른 새벽 감자꽃 피여 웃는 사례긴 밭에서
이슬에 함뿍 젖어
밝게 웃던 네 모습

일 잘한다 칭찬하면
수줍게 붉힌 얼굴 그대로 비껴
내가 가꾼 분홍감자꽃 그리도 고왔더니
티없이 맑은 네 마음 비껴
만발한 하얀 감자꽃 그리도 밝았느냐

날알향기 구수한 가을바람이
탐스런 네 검은 머리 부드러이 날릴 때
우뚝 솟은 감자더미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윽한 네 눈가에 고이던 맑은 구슬
내 마음 흠뻑 적시고 있다

아름다운 처녀야
사랑스런 처녀야
너로 하여 이 땅이
더 소중히 여겨 지고
너로 하여 한생토록
이 별에 살고 픈 마음 더 간절해 지누나

그래서 네 모습
불수록 아름답고
그래서 내 가슴에 솟구치는 뜨거운 정
너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구나
아, 내 사랑하는 처녀야

대홍단의 아침에

랑송호

산천이 좋아
내 집이 좋아
젖빛안개도 여기에 머물고
창가에 프락에 이슬은 내리는가
아, 밝아오는 대홍단의 아침이여

불러 정답고
부를수록 힘솟는 그 이름
대홍단의 아침을 맞이할 때면
마음은 언제나 뜨거워지노라
생각은 언제나 깊어만지노라

그 옛날 여기는
누구의 발길도 미치지 못한 땅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결혼식날에도
밀고먼 천리길이 힘에 부쳐
부모도 미처 오지 못한 교장

어이 알았으랴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리 아버이 **김정일**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도 너무도 조용히
우리 집 프락에 들어 서실줄이야

꽃 피는 봄이라 하지만
북방의 3월은 눈꽃이 날리는 계절
문득 이런 날에 그이를 모시어

기쁨 먼저 죄송함이 앞서던 마음이어
해빛같이 환한 미소 지으시며
동무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그리도 다정히 말씀하시며
우리 부부의 손을 잡아 주신 장군님

벽에 걸린 병사시절 해군복이랑
훈장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고
군사복무는 어디서 했는가 물으시며
생활의 구석구석 보살펴 주셨어라

어찌 그뿐이라
그이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대홍이 녀자는 홍단이라
친히 이름까지 지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동무들은 대홍단을 살기 좋은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려야 한다고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진도 찍어 주신
아 장군님의 그 사랑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못 잊어

새날의 아침을 맞이할 때면
언제나 격정에 목메이는 마음
대를 이어 장군님께 감자풍년의 기쁨 드릴
오직 한 생각뿐이여라

단편소설 《옥이》에 비낀 작가의 얼굴

김예성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대영웅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다.

온 나라를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불러 일으키시며 낮에 밤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창조와 위훈, 기적과 혁신의 천리마가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사람도 자연도 날을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오늘의 이러한 영웅적현실앞에서 우리는 지난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생동하게 그린 문학작품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때 우리 작가들은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감수하였고 어떠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시대적요구에 대답하였던가, 다시말하여 지난 천리마시대의 작가들은 시대의 엄숙한 부름앞에 어떠한 전형의 창조로 대답해 나섰던가.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그때의 성과작들을 다시한번 살펴 보는것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 작품창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것이라고 본다.

과거의 성과와 경험에서 배우는것은 오늘의 전진을 위하여 의의가 있으며 지난날을 알아야 오늘의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사물발전의 리치가 아니겠는가. 사실 선배작가들의 창작성과에서 섭취할수 있는것은 섭취하고 경험으로 삼을것은 경험으로 삼는것이 오늘의 창작실천을 위하여 리로우며 창작적개성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천세봉의 단편소설 《옥이》는 천리마시대에 나온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등 추억에 남는 여러편의 작품들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 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옥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작가 천세봉이 주체 50(1961)년 3월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그러니 거의 40년 세월이 흘러 갔다. 하지만 소설은 높은 시대정신과 인간과 생활반영의 생동성, 진실성, 현실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호흡으로 하여 깊은 여운과 사색속에 읽히우고 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도 있듯이 단편소설 《옥이》에는 천리마시대의 시대적본질이 훌륭히 반영되어 있고 저명한 소설가로서의 천세봉의 작가적얼굴이 뚜렷이 비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천세봉을 장편소설작가라고 한다. 그는 생전에 10여편의 이름 있는 장편소설들을 세

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30여편의 단편소설도 창작하였다. 《옥이》는 그중에서도 이채를 띤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에는 시대의 본질과 함께 소설가로서의 작가의 특기가 어려 있다.

단편소설 《옥이》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금할수 없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것은 작가의 능란한 전형화의 솜씨이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이다.

전진속도가 비상히 빠른 시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질풍같이 앞으로 내닫는 시대,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인간개조운동이 힘 있게 벌어진 시대, 근로자들의 개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되는것으로 특징 지어 지는 천리마현실은 작가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시대의 감동적인 전형을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천세봉은 이 천리마시대의 시대적본질의 한 측면을 옥이라는 농촌천리마기수의 성격형상속에 구현하였으며 그것을 독특한 개성으로 창조하였다.

그러면 단편소설 《옥이》의 주인공 옥이에게 시대의 본질,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었고 전형으로 그려 졌던가.

옥이는 작업장에 나오거나 집에 들어 가거나 언제든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며 아무 일에서나 남보다 앞서고야 직성이 풀리는 처녀이다.

또한 옥이는 새 세대 청년답게 민청학습회, 농산기술전습회에 앞을 다투어 참가하고 새 기술과 새 지식에 대한 탐구심과 연구심이 강한 처녀이다. 역시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 엿보이는 인상 깊은 인간형상이다.

특히 천리마기수로서의 옥이의 전형적인 성격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인간개조자라는데 있다.

남보다 키가 작아 어린애처럼 보이는 처녀이지만 자기보다 허우대가 큰 처녀들을 설복하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이끌며 더우기는 자기의 애인인 봉국의 허영심을 타일러 그가 농촌기술혁명의 기수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도록 개조해 나간다.

창조적로동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새것에 대한 열렬한 탐구정신, 보수와 침체에 대한 배격, 부정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생활에 대한 사랑과 혁명적량만성으로 특징 지어 지는 옥이의 성격은 그대로 이 시기 농촌천리마기수의 전형적형상이다.

우리가 오늘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흐뭇한 감을 금할수 없고 탄복을 하게 되는것은 작가가 옥이

를 개성적인 인간으로 그림으로써 개성화의 명수로서의 자기의 특기를 파시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인간성격은 작가자신이 발견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문학의 인간성격은 작가자신이 발견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같은 인물이 둘이 있을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자기 작품의 주인공 성격창조에 그로록 뜨거운 열정을 바쳤는지도 모른다. 작가는 소설에서 옥이라는 개성적인 농촌처녀를 발견했다.

옥이는 단편소설 《길동무들》의 오명숙이와도 또 다르다. 오명숙이가 미래에 대한 랑만을 안고 하늘아래 첫 동네인 자기 고향땅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는 처녀라면 옥이는 사회주의농촌에서 로동의 보람을 느끼며 허영에 들뜬 자기의 애인을 돌려 세우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이다.

작가는 끝 없는 사랑을 기울여 주인공 옥이를 매력적인 인물로 형상하였다.

소설의 첫 머리에 있는 옥이에 대한 초상묘사에서 우리는 평범하고 소박한 언어로 인물의 특징적인 한 면을 부각시켜 그 인물에 대한 표상을 인상 깊게 보여 주는 이 작가의 특기를 볼수 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벌써 소설의 앞부분에 주어진 초상묘사를 통해 키가 몹시 작고 내내 미소어린 이쁘장한 오목눈을 가진 귀여운 처녀-옥이를 머리속에 그려 보며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어 가게 되는것이다.

옥이의 생동한 초상묘사는 그자체에만 머무는것이 아니다. 옥이의 초상묘사가 생동하면 할수록, 독자들의 눈앞에 방불히 안겨 올수록 외형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의 이악하고 대바르고 굳센 성격적특징이 두드러지게 느껴 지는것이다.

키가 몹시 작고 늘 미소가 입가에서 떠날줄 모르는 처녀, 그러면서도 남보다 항상 일에서 앞장서는 담찬 처녀, 허우대 큰 자기 애인을 《보기 좋게》 휘여 잡는 속대가 있는 처녀가 바로 옥이이다.

일석이조란 이런것을 뜻하는것이 아닌가. 작가는 소설에서 생동한 초상묘사라는 하나의 《돌》로 두개의 형상적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할가.

작가는 주인공 옥이의 성격적특징을 인상적인 비유로 놀라우리만치 생동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옥이의 성격적특징은 초기에 《비둘기》라는 애칭과 마감에 《눈우에 핀 매화꽃》이라는 비유로 그려 지고 있다.

《비둘기》와 《눈우에 핀 매화꽃》!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물의 속성이 우리의 매혹적인 주인공 옥이라는 하나의 성격에 다 구현되어 있다.

여기에 주인공 옥이가 단편소설 《길동무들》의 오명숙이나 단편소설 《백일홍》의 현우혁과 구별

되는 성격적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는것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옥이만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도 생동한 개성으로 특징 짓고 있다.

뿔선수-봉국이, 《제사니 같은 처녀》-제숙이, 《본시 기가 과한》-어머니, 《목이 기다란》-부기장 등으로 표현된 등장인물들은 얼마나 특색 있고 인상적인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가 인간을 알고 개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붓을 들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천세봉의 경우 그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의 맨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들, 시대의 본질을 자기의 성격속에 체현하고 있는 인물들이였으며 동시에 한번 읽으면 좀처럼 잊혀 지지 않을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매력적이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였다.

천세봉은 원래 창작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작품의 주인공들에 대한 성격과악작업에 고심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작가있다.

그는 성격속에 시대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특질을 부여하는것으로만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인간들은 예술적인물들이 아니며 그들에겐 피와 호흡이 없고 음성이 없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어떻게 하면 등장인물들을 산 개성으로 보여 주겠는가 하는데 창작적열정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천세봉은 매 인물들을 실지 자기 주위에 있었거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원형들과 같은 개성적인 인물들로 특징화해 나갔다. 마침내 작가는 매 인물들의 생김새, 말소리, 동작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머리속에 생동히 그려 보게 되는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성격과악단계가 끝난 후 창작에 진입하는데 그 과정에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은 더욱 더 자기 모습을 살리며 작품의 생리에 맞게 형상화됨으로써 현실속의 산 인간들과 같은 생동성과 진실성을 띠게 되며 독특한 개성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작중인물들은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훌륭한 전형으로 그려 지게 되는것이다.

천세봉의 작품들이 독자들에게서 그처럼 인기가 있는것은 바로 그의 주인공들이 매우 개성적인 인간들로 형상화된것과 관련된다.

단편소설 《옥이》에 비킨 작가의 창작적개성의 다른 하나는 현실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사실주의적묘사이다.

생활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이 작가의 시종일관한 자세이다. 천세봉은 생활묘사에서의 미화분식과 과장과는 인연이 없다. 아니, 작가는 그것을 제일 싫어 했다.

이것은 단편소설 《옥이》에 그려 진 농촌풍경묘사의 한 장면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런결차우에 앉은 처녀들이 마치 바구니에 담겨가는 오리들처럼 고개를 가지런히 하고 앉아 흔들거

린다는 묘사는 그야말로 농촌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이는 생각해 낼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농촌 처녀들이 처음에는 종달새직성인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고 노래하는 랑만적인 정서로 그려 지고있다면 다음 순간에는 군용트럭에 실려 전장판으로 나가는것 같은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단편소설 《옥이》에서의 봉국의 개조과정은 또 얼마나 진실하게 그려 졌는가.

한 인물의 사상개조과정을 생활의 논리와 성격론리에 맞게 생활 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의 적지 않은 소설들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성격발전과정이 단순화되고 도식화되어 진실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이것은 매우 소중한것이다.

소설에서 봉국의 개조과정을 보면 성격과 생활론리에 맞는 명백한 단계를 이루고 진행되어 나간다.

처음에 프락프르운전수를 그만 두고 《더 높이 발전》해 보려는 봉국의 계획이 옥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봉국은 이에 반발해 나선다.

옥이를 어린애로밖에 보지 않았던 봉국이, 더구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봉국이로서는 이것이 웅당한것이다.

다음으로 소설에서는 자기를 위해 강추위속에서 열음을 까내고 자기의 젖은 옷이며 점심식사를 넘려해 주는 사려 깊은 옥이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봉국의 심리가 그려 지고 있다.

봉국이는 찬물속에서 옥이를 닦아 안아 꺼내며 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킨다. 자기를 리해해 주지 않는것으로 하여 반발은 했으나 역시 옥이는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였다. 봉국은 옥이가 측은하게 여겨 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옥이를 눈에 핀 매화꽃에 비기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작가가 성급하게 옥이의 행동에 감동된 봉국이가 자기의 결함을 뉘우치는것으로 형상하였다면 그것은 생활의 진실에 어긋나는것으로 되었을것이고 성격적 《파탄》을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왜냐하면 봉국이는 옥이를 어린애로 치부할 만치 도고한 인물이기때문이다. 자존심이 높고 자기 생각이 제일이라고만 생각하는 봉국이로서는 옥

이의 사려 깊은 생각에 감동은 될지언정 결코 자기의 결심을 쉽게 철회할 그런 인물은 아니기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일단 봉국이가 감동을 받게 한 다음 작가는 근기 있게 그의 성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것이다.

작가는 다음으로 어쩐지 자기자신이 옳지 못하고 뻔뻔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하여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봉국의 심리변화에 대하여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며 그의 개조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이고충인것이다.

바로 이러한 심리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치밀하고 분석적인 묘사를 거쳐 봉국이는 마침내 들뜬 허영심에서 벗어 나 땅에 발을 붙이는것으로 형상되고 있다.

천세봉은 원래 창작을 시작하는 첫 시기부터 진실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그가 자기가 쓴 소설을 농민들에게 읽어 주고 그들의 소박한 의견을 존중하여 대담하게 작품을 고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였는가 하는것과 동시에 생활의 진실한 반영에 대해 어느만한 주의를 돌렸는가 하는것을 말하여 주는 일화이다.

천세봉의 소설이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것은 바로 그의 소설들에 반영된 생활이 매우 진실하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옥이》는 천세봉의 단편소설계렬에서 볼 때 그의 작가적개성이 두드러 진 작품으로서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거둔 성과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개성적인 농촌천리마기수의 형상과 천리마시대의 현실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반영의 측면에서 단편소설 《옥이》에 대하여 보았다.

단편소설 《옥이》에 비긴 작가의 얼굴은 뚜렷하며 그것이 오늘의 창작실천을 위하여 시사해 주는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작가들은 당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을 안고 창작적열정을 기울임으로써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오늘의 근로자들에게 고무가 되고 힘이 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 와야 할것이다.

시조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

-이 시를 평양의학대학 병원 사지의상외과에 바친다-

홍현양

그 불 같은 마음과 마음앞에

아침에도
푸릇한 새벽에도
흰 위생복을 벗지 않는 사람들
외상외과의사
그 이름을 두고 생각한다

나무마다
초록빛 새잎이 돋을 때
꽃손을 가꾸는 원예사처럼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량심앞에 내 머리를 숙인다

어디서 만나건
평범한 모습이건만
그 손엔 사람들의 피 흐르는 아픔을 가셔 내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그 눈빛엔 죽음을 밀어 내는
생의 미소가 비껴 있다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걷는 그 걸음걸음에
인간의 숨결이 함께 땀다
급히 보는 시간 그 분과 초는
인간의 심장 그 맥박이다

아 부서 진 뼈 한조각한조각마저
다시 이어 주는 그 눈물겨운 사랑을 지너
이 땅에 기념비들을 세워 가듯
꺼져 가는 숨결을 안아 일으켜
불멸의 인간군상을 세워 간다

병상에서 사람들이 일어 나
그리운 장군님의 영상을 다시 뵈옵는
그 감격과 환희는
외상외과의사
그 심장이 지퍼 준 생의 불꽃이 아닌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생의 환희
이보다 더 뜨거운 생의 불꽃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 세차도
이 행복을 가꿔 가는 인간생명의 기사들이여

내 노래를 바친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 없는 충성을 바쳐 가는
그 불 같은 마음과 마음앞에
다시 받은 나의 생 나의 이 시를
꽃다발로 고인다

나는 잃은것이 없다

저 하늘의 해빛이 쏟아 저 내리는
민들레 핀 푸른 잔디밭을 걸을 때
풀향기에만 취해 걸던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엔 내 미처 몰랐구나
아, 그날엔 밟는 땅이 무엇인지
다 알수 없었구나

뜻밖엔
한발을 잃고 땅을 짚자니
그리도 쉽게 걸던 길이 너무 멀구나
한치 또 한치
한자욱 또 한자욱으로 내짚는 땅이여

어이하여 레사로이 걸던 들판이

이제는 아득히 창너머 펼쳐 저
나를 오라 손 저어 부르는가
문 열고 나서던 마당가도
곱씹어 생각하며 나서야 하는가

나를 부촉이지 말아 다오
이 몸엔 이제는
어머니가 준 피만이 흐르는게 아니다
동지들의 말 못할 사랑이
방울방울 피가 되어 흐르고 있다

나는 잃은것이 없다
조국이여
한발을 잃고 진통에 모대길 때도

그 아픔 안고 잠 못든 어머니시여
그 손길이 쓰다듬어 주는
이 몸엔 상처란 있을수 없다

노래로 차 있는 심장은
상처를 알리 없는 시인의 걸음이 되어

장군님 가시는 천만리길에
낮이나 밤이나 따라 서리
따라 서는 그 걸음이 있어
나는 잃은것이 없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수술대우에서

수술칼을 놓는 소리
내 맥박을 알리는 간호원의 목소리
끝났구나 전투는...
이마의 땀을 씻어 주는 간호원의 손길

내 무슨 말을 하라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수 없었구나
수술칼을 놓는 의사앞에
다른 무슨 말을 하라

처음 보는 얼굴
수술복을 벗는 의사앞에
-고맙습니다

나는 이 말밖에 하지 못했구나

생명을 낳는것보다
초볼처럼 생명의 불을 살리는것
그것은 얼마나 넘기 힘든 인생이던가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한 이 몸은
황금의 저울대우에 오르지 않았어라

수술대우에서
내 몸값을 치르었다면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어찌 눈물을 대신해 떨구었으랴
어찌 칼앞에 감사의 인사가 있으랴!

내결에 희디흰 그 빛이

창가에 바람소리
유리창을 조용히 흔들 때도
잠 들지 못하는 간호원처녀
내 침상결에 서서
맥박을 짚어 보는 그 살뜰함

저 멀리서 들려 오는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
새벽을 알리는 이 시각에도
눈을 붙이지 못한 흰 위생복처녀
알아 봐야 그 마음 다 알수 있던가

약물이 혈관으로 흘러 들 때도
그것이 말 못할 사랑의 피가 되어
이 심장의 불꽃으로 뛰게 함을
언제면 다 알수 있으랴

주는것만이 있다

나의 상처를 안고 마음 쓰는
그 눈빛에 담긴 진정만이 있다
내 진통을 안고 순간의 잠에 들 때도
그 순간을 지켜 선 사랑이
아, 나의 조국이다

눈을 감아도
다심한 발자욱소리
내결에 떠날줄 몰라
아픔은 언제 있었던가
때없이 눈물이 두볼에 어리광친다

이 눈물
어머니만이 알아 주는것
바람이 창문을 조용히 두드릴 때도
어쩐지 하얀 위생복이
저 밀림의 한그루 봇나무처럼 서 있구나
내결에 희디흰 그 빛이...

나는 군화를 벗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간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생각을 끌어 간다
나는 어이하여 잠 못 들고
 뜬눈으로 걸어 온 길을 더듬어 보는가

아지랑이 아물대는 대지
보습날이 갈아 얹은 밭이랑에
발을 푹푹 묻으며
제비들이 낮추 날아에는
봄하늘을 꿈속인듯 바라본다

어머니의 치마자락 붙잡고
냉이꽃 꺾어 들고 달리다가
풀밭에 뒹굴 때
나를 안아 일으켜 주던 그 손길
아, 그때는 나에게
꽃신을 신겨 준 두발이 있었다

철갑모에 내리는 비방울 맞으며
강행군의 새벽길을 달릴 때
벼랑도 강물도 헤쳐 날던
피 뛴는 가슴
아, 그때는 나에게
군화를 신은 두발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간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나를 이끌어 간다
붓을 들고
원고지우에 노래를 쓸는 이 시각에
아쉽게도 나에게겐 한발이 없구나
아쉽게도 나는 땅우에 넘어 졌구나

그러나 조국이여
어린 날 어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워 주듯
따뜻이 안아 땅우에 세워 줄 때
나는 군화를 벗지 않은
병사의 두발이 있음을 보았어라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어머니가 꽃신을 신겨 준 두발은
혹시 잃을수도 있지만
군화를 신은 병사의 두발이
어찌 나에게 없을수 있으랴

아, 나는 이밤 걷는다
나의 노래가 발걸음이 되어
벗지 않은 이 내 심장이
끝나지 않은 삶의 행군길을 간다
나를 조국이 일으켜 세워 주었다
봄날의 그 어머니처럼...

멀리에서 찾지 마시라

하늘에 구름은 깰수 있어도
내 마음속엔 흐린 날이 있을수 없다
가없이 맑은 날에만 해빛을 알라
벗들의 따뜻한 정 눈물지게 하누나

한달음에 달려 가 만날수 있는
벗들의 얼굴 못 견디게 보고 싶어
내 때없이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 본다
걸지 못하는 이 순간이여

멀리에서 찾지 마시라
인생의 해빛은 벗들의 우정이었구나
내 구미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어 오고
내 마음 그늘질세라 웃음 안고 오던 동지들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
사랑은 서로 만나고 헤여 지는 시각
사랑은 서로 나누는 마음과 마음
장군님 받들어 합쳐 지는 그 심장이여라

시대의 요구와 단편소설

-상반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읽고-

김순림

작가는 시대의 감각기관이며 시대정신의 촉수이다.

새 세기에로의 교체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력사의 분기점에서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시대와 인간과 호흡을 같이하며 의의 있는 형상들을 창조하고 있다. 상반년 동맹기관지들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다 읽고 느껴 지는것은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시대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련의 시사적인 작품들을 내놓고있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는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이며 현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면 그것이 곧 당을 옹호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대적요구, 현실의 요청이라고 할 때 사상주제적인 견지에서 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정면에 반영하는것이며 사람들에게, 고무적힘과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겨 주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곧 우리의 위대한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청에 대답하는것이다.

문학은 정치에 복무하여야 하며 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문학이 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데서 근본문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형상으로 힘 있게 받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가시는 선군정치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며 사회주의의 운명, 자주적인류의 운명이다.

이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떠나서 우리 문학의 그 어떤 형상도 무의미한것이다.

우리 당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령도를 형상에 구현함에 있어서, 핵은 위대한 선군정치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는 수령의 위업을 뜨겁고 열렬히 노래하는것이다. 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간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과 령도자를 우러러 받들어 모시

는것이며 그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그 사상정신적기초를 두고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문학이 당의 선군령도를 형상으로 힘 있게 받들고 이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수령형상작품창작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상반년도 단편소설들을 읽어 보면 우리 문학은 이 문제에서 드림이 없으며 의의 있는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권정웅, 《조선문학》 4호)은 그 생동한 실례이다.

이 단편소설은 한마디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관에 대한 예술적칭송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소박한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한장의 사진, 가장 친근한 동지인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그 사연 깊은 사진에는 수령님의 동지관이 뜨겁게 체현되어 있다.

단편소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고귀한 철학적신념을 감동 깊은 형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품은 사적내용을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잊을수 없는 한장의 사진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간직하여 오신 그 숭고한 동지관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데로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은 이미 그처럼 귀중한 한장의 사진을 형상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식의 많은 작품들이 나왔지만 새로운 감흥을 안겨 주는것이다.

단편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책동지를 처음 아시게 되고 상봉하신 때로부터 그가 희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감동적인 사실들을 혁명의 성인의 가장 숭고한 동지관을 높이 칭송하는데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나가면서 형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단편소설은 형상전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 오신 숭고한 동지관을 생활적진실과 철학적의미로 깊이 탐구분석하고 있을뿐아니라 작품의 결구에 가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동지관에 대해 뜨겁게 회억하시며 느끼시는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개방해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감화력을 한껏 복돋아 주고 있다.

《참말 감격적입니다. 혁명의 그 모든것이 함축집약된 친근한 부름 동지! 이보다 더 뜨거운 부름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고귀한 호칭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며 또 그것이 영원한... 혁명의 핵이고 혁명의 진리... 우리가 언제나 찾고 있는 혁명의 변증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금고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그 한장의 사진을 보시며 하신 이 말씀은 독자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한평생 지니고 계신 그 위대한 동지판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하며 심장을 울려 주는 것이다.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만능당의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며 하기에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운동에서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며 동지란 말은 혁명에 대해서 모든것을 단 한마디로 말해 주는 실체인 것이다.

이 심원한 혁명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 형상한 여기에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의 사실예술적성과가 있으며 혁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미래에 살아》(현승남, 《조선문학》 2호)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인생관을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활적인 형상으로 뜨겁게 칭송한 작품이다.

단편소설에서는 국토관리문제가 기본이야기로 제시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목전의 수습책만 생각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나무를 마구 찍어 뺄감으로 쓰는 현상도 나타났고 보통강물이 흐르지 않아 불결하게 된데 대해서도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는 소리만 하는 패배주의적인 현상도 표현되었다.

이 부문을 담당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성국으로부터 이 모든 실태를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것이 단순히 연유문제, 석탄문제 그리고 로력문제를 비롯한 경제적인난이 가져 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으시였다. 그것은 우리 일군들의 인생관에 관한 문제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귀중한 나무를 찍어 뺄감으로 써버린 어느 한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놓으시고 것처럼 사색을 깊이 하시는것이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국토건설사상이 뜨겁게 어려 있는 사연 깊은 보통강물이 흐려 지고 감탕내가 풍기고 있는 실태를 두시고도 연유가 없이 대형양수기를 돌릴수 없고 로력이 긴장하여 빚어진 후파라고만 여기지 않으시였다.

작품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앞세우면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배주의적인 경향을 있을수 있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적인생관문제로 심화하여 형상을 끌고 나감으로써 무게 있는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단편소설은 국토관리사업을 나라의 만년대

계를 위한 애국위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무를 망탕 찍음으로써 엄중한 과오를 범한 한 일군의 처리문제를 두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사색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거기에서 혁명의 진리를 도출해 내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형상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수령숭배의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며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안겨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의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단편소설들은 주제의 다양한 탐구에 있어서나 형상적높이에 있어서 일정한 전진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생활적본질, 그것의 반영은 문학일반에 있어서 그러한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단편소설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적특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 단편소설들의 다양한 주제를 받들고 있는 사건, 생활사실, 인간들은 모두 오늘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 그 자체의 훌륭한 반영일뿐아니라 예술적 일반화의 진실성과 심도에 있어서도 진지한 작가적 탐구와 노력들의 흔적을 충분히 보여 주고있다.

특히 상반년 단편소설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그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인간성격들을 훌륭하게 창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편소설들인 《첫 소대장》(리경명, 《조선문학》 3호)과 《초석》(차승철, 《조선문학》 4호)은 매우 인상 깊은 성격들을 보여 주고 있다.

단편소설 《첫 소대장》은 한 공훈탄부의 회상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심한 부상을 당하고 몸에 박힌 파편을 채 제거하지 못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석탄생산을 위해 한 목숨 강그리 바친 첫 소대장 손창조에 대한 형상을 비교적 감동깊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의 견지에서 성격을 보여 주려고 한 작가의 탐구와 사색이 깃들여 있다.

작가는 형상의 각광을 회상자인 공훈탄부 철령이가 탄부생활 전 기간 주인공에 대하여 보고 느낀 그의 체험세계에로 돌리고 있다.

철령이의 눈에 비친 첫 소대장의 생활, 그것은 많은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였다. 작가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손창조소대장의 개성적인 성격, 시대적 전형을 부각하였다.

...세월은 많이도 흘러 어언 안전모를 눌러 쓴 내 머리에도 어쩔수 없이 흰서리가 내비치고 있다.

소대장... 중대장... 갱장을 거쳐 교관이 된 오늘까지 나는 한생을 막장에 살면서 단 한번도 첫 소대장을 잊어 본적이 없다.

늘 손창조소대장이 곁에 있어 《이 손은 뿔다 뿔

하겠다구...》 하면서 두손벽을 딱-딱- 마주 올리며 벌썬 웃는듯만 했다. ...참으로 막장에서 한생을 살아 온 공훈탄부 철령이 것처럼 첫 소대장을 못 잊어 하는것은 그가 전후의 어려웠던 나날에 자기에게 한생을 참답게 살아 갈 신발을 신겨 주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충성으로 참답게 살 줄 아는 넋을 심어 주었기때문이다. 하기에 철령은 늘 자신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그이를 결사옹위해 그날의 손창조소대장처럼 살고 있는가고 묻곤 하는 것이다.

주인공 손창조의 성격속에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 시대의 전형으로서의 매혹적인 특질들이 집중되어 있다.

작가는 시대의 전형을 생동하게 제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현상이상으로 생활의 본질에 심오히 그리고 독창적으로 침투한것으로 하여 첫 소대장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명확한 표상도 주고 있다. 물론 손창조의 언행속에 구현된 내용들은 얼핏 보면 일반적식견의 범주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성격의 호상관계속에서 그리고 심오한 정신적체협속에서 해명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감성적이며 개성적인것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 작품은 회상자인 철령이의 사상정신적각과정에 대한 묘사가 개념이 앞서고 설득력이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작가가 형상의 초점을 손창조에게로 돌리고 철령이에 대해서는 덜 돌리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이 작품의 흠이라고 볼수 있으나 그것이 작품의 전체 성과를 가리운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소설로서의 형상적조화미나 시대적요구를 구현함에 있어 서 차승철의 《초석》(《조선문학》4호)은 일정한 관심을 끈다고 볼수 있다.

이 작품은 언어구사의 배후에서 고통치는 감정의 맥박, 생활의 숨결이 스며 있는것이라든가 서정적 윤색을 부여하면서 회상적수법을 능란하게 활용한 좋은 측면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단편소설로서 보다 앞뒤가 째여 졌고 시대가 절박하게 바라는 량심문제를 제기하고 매 마디가 균형 잡히게 단편적구성을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좋은 인상을 준다.

단편소설 《초석》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의 적절한 도입과 교체가 있으며 성격의 호상관계속에서 제시한 량심문제의 해명, 우리 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참다운 량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인 설계가 우월선이 26년 전에 설계한 프랄선 《미산봉》 호의 미세한 흠집을 없애려고 룡포수산사업소에까지 내려 와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퇴치해 나가는 그의 내면세계의 저 안측까지 들여다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간직하고 있는 참다운 량심의 초석과 접촉할수가 없다. 량심은 외형적생활만이 아니라 도덕률리적인 정신생활의 표현이므로 작가는 응당 주어진 미담

적인 이야기속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량심의 미학적본질을 밝히는데로 탐구를 기울였어야 했을것이다.

상반년도 단편소설들을 읽어 보면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속에서 빛어 지는 아름다운 화폭을 보여주면서 그속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시대적문제에로 작가적사색의 침투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들은 이러저러한 생활적사실의 외면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성격의 호상관계속에서 생활의 의의를 천명하려는 지향이 뚜렷하다.

우에서 언급한 작품들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단편소설 《아지랑이 피는 들》(리성식, 《조선문학》5호)이 그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제사상적목적은 작품의 마감부분의 인상적인 화폭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인생의 높은 교단에 올라 서서 자기와 함께 농촌에 진출한 학급학생들이 다 자라나 농장의 어엿한 초급일군으로 또는 지도일군으로 자라난 그들을 감회깊이 회억하며 그들모두가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영원한 담임선생님이 되고 있는 주인공 정희의 어깨너머로 풍성한 들판이 행복의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니 끝없이 펼쳐져 있는것에 대한 화폭은 많은 여운을 준다.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농촌에 진출하여 작업반장이 된 정희가 농촌을 영원한 교단으로 삼고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감동 깊게 안겨 온다.

하면서도 아쉬운것은 인생의 높은 교단에서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단편다운 구성과 묘미를 가지고 충분히 형상적으로 부각하지 못한것이다.

우선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길다. 그리고 성격론리의 진지한 추구를 위하여 생활자료들을 선정배합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약점을 가지고있다. 원래 작품의 기본사상은 성격의 론리속에서 그들의 호상관계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모든 자료들이 그러한 형상적구도밑에 선정조직되어야 한다.

물론 이 작품에서 오래전에 학급전체가 농촌에 집단진출하여 그들의 성장과정을 제시하면서 총체적으로 통일적인 사상주제적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것이라고 보아 진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처리는 보다 더 긴 형식에서는 효과적일수 있으나 단편소설에는 적합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에서 량만적으로 채색된 주인공들의 형성과 풍부한 예술적환상에 의한 생활세부형상, 진취적이며 생기발랄한 청년본조원들의 개성적형상 등이 빈 구석을 보충해 주고 있다.

앞으로 작가의 창작에 참고가 될수 있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것은 이미 성과작으로 물망에 올랐던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에서 효과 있게 구사했던 수법을 반복하여 쓴것으로 하여 감미로움을 덜고있는것이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새것을 부단히 탐

구하고 새로운 형상세계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과정에 발양되는것이지 한번 효과를 본 수법을 반복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반년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읽어 보면 일부 형상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벽찬 현실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시대가 배출하고 제기하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제성을 일반화하고 해명하는데로 지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 있어서 단편소설들인 《꺼지지 않는 메아리》(림병순, 《조선문학》 4호), 《마지막배우수업》(강귀미, 《조선문학》 5호) 등 많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그러면서도 더 요구하고 싶은것은 아직 일부 단편소설들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깊이 탐구하여 형상하지 못하고 세계가 낮은 문제들을 흥미본위로 비진실하게 꾸미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적인 현상을 가셔야 하겠다는것이

다.

오늘 우리 단편소설의 사상에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들이 선군령도가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현실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자기를 독자적인것으로 만드는 미학적리상을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여 생활에 대한 자기의 독자적인 추구력, 발견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작가는 생활체험, 지성, 수양, 탐구와 사색 등에 걸쳐 시대의 높은령마루를 걸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문학창작의 제반 미학적특성에 관한 풍부한 터득과 숙련된 형상수법, 기교를 훌륭히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시대와 생활에로의 깊은 침투, 생활과 시대에 대한 열렬한 작가적공감과 흥분, 언어의 예술가로서의 창작적기교의 부단한 련마 등 이 모든것들은 문학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단편소설의 혁신적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전제로 된다.

간직하노라

김봉남

간직하노라, 병사는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단발머리선생님 따라 서던
첫 등산길의 그 즐겁던 하루를

간직하노라
소중한 추억으로
폴색배낭 메워 주던 고향의 역두
길게 울리던 기적소리-

간직하노라
뜨거운 추억으로
별에서 집에서 마를줄 모르던
어머니의 그물 젖은 손을

오, 가슴속에 간직할
푸른 추억은 얼마나 많은가
동무들과 함께 심은 백양나무
그 하얀 줄기에 걸어 놓던 표찰이
내 가슴에 군공메달로 빛날수도 있으리

내 열어봬해
소중히 간직해 온 추억들을
군용혁띠 조여 매며
심장의 《책장속》에 가득 채운다
나약해 지고 힘겨울 때마다
때없이 열어 보기 위하여

정녕 장군님의 병사에겐
그 푸른 추억들이 언제나
전호가의 발흠처럼
적진 향해 돌격하게 한다
불발 없는 붉은 명중탄이 되게 한다

아, 아 병사에겐
간직한 추억이 많아서 좋다
추억속에 사랑을 알고
추억속에 증오를 배우며
추억속에 조국과 심장을 맞대인
병사를 조국은 잊지 않는다

대오가 떠날 무렵

조인영

시원한 강바람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지휘관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어루만진다. 봄날의 해빛이 따뜻하게 달구어 놓은 강기슭의 모래불우에서 연대지휘관협의회가 열리었다.

련대장 진정훈은 다림발들이 칼날같이 선 군복들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는 지휘관들에게 더우면 목단추를 끌러 놓아도 좋다고 지시하였다. 허나 군관들은 달아 오른 모래불우에서 따사로운 해벌에 잔등이며 어깨며 정수리머를 내맡기고 있는것이 오히려 흡족한듯 코잔등에 송글송글 땀발이 내돋쳤건만 목단추를 끌러 놓지 않았다. 군복단추들이 금빛으로 빛을 뿌렸다. 련대는 조국이 맡겨 준 수십리 물길굴을 기어이 뚫고 이제 곧 여기를 떠나 새로운 초소로 향하게 된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2전선부대들의 발길이 어린 뒤에는 인적이 스며 들지 않았던 심산유곡. 여기서 련대는 거의 10년세월을 창조와 건설로 보낸것이다. 진정훈련대장은 떠나기전의 마지막날을 뜻 깊게 보내고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군관들의 모임을 가지게 된것이였다. 래일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것인가?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회를 열고 진지하게 논의해 본적이 없었다. 석수와 봉락, 백년래의 폭설과 홍수로 인한 수송로의 두절, 건설용자재들과 후방물자의 부족, 그래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암벽과 석수를 맞받아 나가며 한치한치 굴을 뚫던 전우들의 희생... 이 모든 복잡하고도 운명적인 문제들로 하여 어떤 흥미있는 휴식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적었다. 더우기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과 난관이 빼없이 들이닥치는 수십리물길굴에 들달리느라고 어느 하루도 마음의 공간을 지녀 본적 없었던 련대장 진정훈이였다. 허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련대는 드디어 명령을 관철한것이다. 명령을 관철한 자량을 안고 련대는 이곳을 떠나기전에 즐거운 휴식으로 마지막날을 뜻 깊게 장식하려고 하였다. 어떤 조각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굳혀 놓은 조각상처럼 웃음이나 미소같은것은 잘 그려 지지 않던 진정훈의 서글서글한 두눈이 오랜만에 환히 빛났다.

래일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것인가를 물었을 때 군관들은 저마다 앞을 다루어 나섰다.

《우선 다섯가지 무기의 분해결합경기를 합시다. 우린 군인들이니까.》

련대장의 의견에 군인들이 한결같이 호응해 나섰다. 《좋습니다. 거기에 최고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이어 군관들속에서는 체육경기, 장기, 윗놀이,

주패 등의 오락, 예술소품공연과 응변경연... 짧은 시간에 실로 수십가지의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누군가 발파가스에 거칠어 진듯한 석쇄한 소리로 예술소품경연도 하자고 제기하는 바람에 웃음보가 터졌다. 진정훈련대장은 연방 굵은 왕붓눈섭을 쫓기거리며 그 모든 제기를 다 수첩에 받아 적느라고 바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진정훈련대장은 마음 한구석이 무척하게 내려 누르는것을 주체할수 없었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합시다, 다 합시다 라고 군관들의 제기를 지지해 주고 나서 마감에는 자기 의견을 하나 첨부하였다.

《래일 아침엔 쑥떡을 비롯해서 특식도 하구요. 쑥떡을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꼭꼭 해먹으면 장수한댔소. 햇쑥이 뽕쑥이 돌아 나는 때이니만치 땅을 파 헤치거나 뿌리채 뽑는 일이 없어야겠소. 쑥 한배 낭쯤이면 중대 한끼분 떡을 맛스럽게 만들수 있다니, 그러면 전사들이 고향도 그려 보고 어머니의 음식맛을 보는것과 같은 기쁨도 느끼게 될테니 얼마나 좋소.》

군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중대장들과 독립소대장들은 사업일지 한복판에다 《쑥떡!》 하고 크게 적어 넣었다. 진정훈은 잠시 군관들의 즐거워 하는 모습을 여겨 보다가 짧게 깎은 머리칼을 손빗질로 바다듬고 나서 덧붙였다.

《아참,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종 회고하신 <쫄드기떡>을 군인 한명당 한개씩이라도 돌아 가게 해보시오. 쫄드기떡을 모르는 동무들은 남으시오. 내가 알려 주겠소.》

군관들은 또다시 화기에 넘친 눈길들을 마주하며 싱긋 웃음 짓다가 잊어 버릴세라 《쫄드기떡!》 하고 사업수첩에 써 놓았다.

강기슭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림의 정수리를 스쳐 지나면서 후더워 진 바람이 싸아 소리를 내며 지휘관들의 머리우에서 맴돌이를 했다.

진정훈련대장은 뒤이어 래일 아침의 첫 일과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새벽기상나팔소리와 함께 병실과 일체 건물들을 철수할것, 식당은 오늘 저녁부터 야외에 전개하며 탄약을 비롯한 사소한 폭발물이나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질들이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할것, 건물을 철수한 뒤 터전들을 원상대로 잘 정리할것 등을 하나하나 지적해 준 련대장은 군관들이 모든 내용들을 명심해듣는가를 확인하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

빈 터전들을 원상대로 정리하라는 지시는 햇쑥을

뜯을 때 땅을 파헤치거나 뿌리를 들추어 뽑지 말라는 소리와 같이 일부 군관들이 흘러 버릴수 있겠다고 생각한 진정훈은 그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제서야 그 사항을 방임하였던 군관들은 또다시 시업수첩에 《쑥을 뿌리채 뽑지 말것!》과 《빈터 전 정리!》라는 글을 써 넣었다.

이쯤 해놓고 보니 매일 하루를 어떻게 흥미 있고 추억에 남도록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를 협의한 지휘관들의 모임은 마감을 짓는가 싶었다.

담배생각이 든 일부 애연가들이 부지중 호주머니에 손을 들이밀가 하는 때였다.

왕북논섭을 미간에 모으며 잠시 진중한 생각에 잠겼던 련대장은 매일 아침 체육경기를 하러 모일 때 군인들에게 토공공구들을 휴대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군관들은 저이기 열떠름한 인상들이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즐거운 체육경기에 토공공구들은 무엇하러 휴대시킨단 말인가. 언제나 약삭바르기로 소문난 젊은 공병참모가 입속말로 《오라, 거 참호 굴설과 같은 군사경기종목도 하나 예견한것 같아.》 하고 속삭이는것을 엿들은 군관들이 그럴 법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지휘관협의회를 끝내면서 진정훈은 련대시공참모인 젊은 대위만을 남으라고 지시했다. 련대장으로 부터 임무를 받은 대위는 《승리58》형 화물자동차를 타고 매일에 대한 기대를 안고 흥성거리는 련대를 떠나갔다. 그가 무슨 임무를 받고 어디로 갔는지?...

×

대오가 정렬하였다. 오랜 나날 암벽을 뚫고 끌어낸 버럭산을 닦아 놓은 평퍼짐한 운동장에는 오전한것을 체육경기와 오락으로 즐기고 경기총화를 위하여 련대가 모였던것이다.

한낮의 따사로운 봄별이 하늘중천에서 쟁글거렸다. 몸매 다부진 참모장이 힘찬 걸음으로 정보로 걸어 나왔다.

《련대장동지! 련대는 체육경기총화를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제국을 쟁 하고 울리는 참모장의 보고에 뒤이어 《쉬엇하시오!》하는 련대장의 굵은 저음이 오랜 나날 낮익힌 산발들로 메아리쳐 갔다.

련대장은 이제 곧 경기순위를 발표한 뒤 될수록 빨리 구분대들을 돌려 보내여 행군준비할 여유를 주어야 했다. 허나 무슨 연고로인지 련대장의 입술은 굳게 닫힌채 열릴줄을 몰랐다. 그러던 련대장의 입에서는 잠시후 《련대 뒤로 돌앗!》하는 전혀 뜻밖의 군령이 내려 졌다.

대오는 뒤로 돌아 섰다. 그러자 군인들의 시야에는 그들이 십년세월 터를 닦고 정 들어 살아 온 병실자리며 식당자리 그리고 운동장이 텅 빈듯 애틋하고도 허전하게 안겨 왔다.

10년전 그들이 이 산중에 배낭을 벗어 놓을 때만 하여도 여기는 울창한 수림이었다. 허나 그동안 군

인들의 생활이 깃들고 수십리 물길굴이 뻗어 감에 따라 빼곡했던 나무들은 한대 두대 찍히워 이곳 밀림의 한복판에는 뜸자리와도 흡사한 행태한 빈터들이 남은것이다. 흥성거리던 인적이 사라진 빈터자리들은 군인들에게 고향을 떠날 때와도 같은 허우룩한 감상과 더불어 떠나기 아쉬운 정겨움과도 흡사한 정서를 불러 일으키였다. 어찌 아니 그러랴. 군인들은 누구나 제 나뉠으로 저 밀림속의 터전에서 흘러 간 복무의 나날을 감회 깊게 돌이켜 보며 정 깊은 눈길을 들어 묵묵히 산건너편의 터진 자리들과 운동장을 둘러 보았다.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이겨 내며 수십리 물길굴을 뚫는 나날에 여기 이름 모를 산중에 봉분으로 차취를 남기고 간 전우들도 있다. 련대장은 마치나 정 들였던 고장, 사연 많았던 고장을 떠나는 대원들에게 잠시 석별의 순간을 마련해 주려고 대오를 뒤로 돌려 세운듯 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 갔다. 정든 고장과 석별의 정을 나누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대오에 선 군인들의 시간감각은 누구보다도 예민하다. 대렬속에선 모두가 오랜 침묵을 지겨워 한다. 그러나 련대장의 입에선 다른 구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또다시 한동안이 흘렀다.

련대장은 무엇을 생각하는것일까,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것일까? 병사들과 군관들은 대렬속의 군인은 자의대로 말할수 없다는 규정의 엄정함을 거역할수 없어 지금까지 애써 지켜 오던 침묵을 깨뜨리며 어디선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중에는 감히 고개를 뒤로 젖혀 련대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전사들까지 나타났다.

련대장은 무엇때문인지 팔목시계를 자주 들여다 보면서 서서히 오락가락하였다.

그의 눈길은 자주 산비탈의 차길을 더듬고 있었다. 미간을 잔뜩 좁히고 굵은 왕북논섭을 이따금 쥔 것거리리는 련대장은 경충한 두다리를 옮겨 더디며 대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다시 그 반대방향으로 걸기를 서너번나마 거듭하였다. 성미가 팔팔한 련대장은 산 사람의 생리적특성은 곧 운동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지상태보다 운동상태를 좋아한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군 하였다.

오랜 나날의 군사복무를 통하여 시간의 초초분분을 무엇보다 귀중히 헤아리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자기의 인내성을 시험이라도 하듯 온 대오가 그토록 지루하게 여기는것도 전혀 아랑곳없이 한초한초를 《숨 막히게》 흘러 보내고 있는 까닭은 무엇때문일까.

무엇을 기다리는것일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고 경기순위를 발표한 뒤 오후에 출발구령만 떨어지면 이 산골짜기에는 또다시 태고적의 정적이 깃들터인데 어째서 이제 곧 떠나게 될 터전을 향하여 대오를 이토록 오래도록 멈춰 세워 두는것일까. 대장들과 중대장들을 비롯한 군관들속에서 약간의 소요가 일어 날가 싶은 순간이었다. 제일 약삭바른

공병참모가 또다시 귀속말로 속삭이는 소리에 옆에 있던 군인도 그럴듯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어제 협의회때 지참하라고 한 토공공구가 아직까지 사명을 하지 못한채 기름을 바른대로 번들거리고 있는데 모름지기 경기마감장식으로 전호굴설과 같은 군사경기를 하려는게 분명 하다는것이였다.

련대장이 드디어 웅글진 음성으로 말했다.

《동무들, 우리는 여기를 떠나기전에 한가지 해야 할 일이 있소. 우린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버리고 떠나 갈번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버리고 떠날번 했단 말인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서로 마주 보며 의문을 풀지 못했다.

련대장의 눈길은 1대대에 돌려 졌다.

《1대대장동무는 생각되는것이 없소?》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눈매가 선량해 보이는 1대대장이 무엇인가 자기로서는 알수 없게 놓쳐 버리고 가는것을 사죄라도 하듯 자못 송구스럽게 말했다. 《련대장동지, 우리는 정말이지 조그마한 쇠볼이 하나도 버리는게 없습니다. 중대식당들의 아궁에 걸었던 철근자투리들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련대장은 그가 얼마나 끈진 살림군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나도 다 알고 있소. 허나 우린 잊고 갈번한게 있소. 더없이 귀중한걸 말이요.》

련대장의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대대장들과 중대장들, 소대장들과 분대장들, 아니 모든 병사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저버리고 갈번 했던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다. 군인들은 련대장의 말뜻을 선뜻 헤아리지 못하여 애바른 심정을 감추지 못해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경사진 굽인돌이길의 저쪽끝에서 황토색먼지를 길게 휘말아 올리면서 자동차 한대가 달려 왔다. 차는 대오의 왼쪽에 이르러 급정거를 했다. 운전칸문이 열리자 련대에서 그중 날과람 있다는 시공참모인 대위가 뛰어 내렸다. 그는 련대장앞에 이르러 차렷자세로 멈춰 서더니 임무를 수행했노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왜 약속된 시간을 10분이나 어겼소?》

련대장이 웅곤 목소리로 엄하게 물었다.

《산림경영소 소장동지가 말입니다. 군대가 나무심을 걱정까지 하겠는가고 하면서 딱 잡아 댔습니다. 그건 자기네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나무모를 주

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모는 가져 왔구만.》 련대장은 자동 차쪽을 바라보며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가져 왔습니다. 련대가 진렬해서 나무모를 기다릴터인데 공연히 군대행동을 지체시키지 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저렇게...》

시공참모가 가리키는 적제함에는 민아카시아나무, 잣나무, 수삼나무모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수고했소.》 련대장이 참모의 어깨를 꼭 눌러잡았다 놓자 그는 제식동작대로 각듯이 보고를 하고는 제 자리로 돌아 갔다. 진정훈의 왕벚눈썹이 만족스럽다는듯 종긋하고 움직였다. 그는 더 다른말이 없었다.

모든 군인들이, 줄 지어 선 련대의 대오가 이제는 자기들이 무엇을 저버리고 갈번 했던가를 깨달았다. 수천의 눈길이 자기네 부대장이며 산기슭의 빈 터전들과 딛고 선 운동장을 번갈아 보는것이였다. 이윽고 진정훈련대장이 진중한 얼굴로 대오를 향하여 말했다.

《동무들! 군대가 지나 간 자리에는 애국의 자취가 깃 들어야 합니다. 우리모두 애국에 살고 애국에 숨 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제일 친위병이 됩시다. 자, 지휘관동무들, 우리의 생활이 깃 들었던 빈터들에 나무모를 심읍시다. 여기 운동장자리에도... 그 다음에 우리는 떠납시다.》

《알았습니다! 》

지휘관들뿐만아니라 온 대오가 힘 있게 합창하였다. 군인들은 마음이 후더워 졌다. 나무모를 한아름씩 안은 그들은 산책이라도 하듯 정 든 터전들로 흥겨운 기분으로 흠어져 갔다. 자기의 잘못된 추리로 하여 저으기 머쓱해 진 공병참모는 군인들의 손마다에서 번쩍이는 삽과 팽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 짐을 금치 못했다.

날이 저물자 어느덧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올랐다. 련대는 떠났다.

키가 큰 련대장은 대오의 앞장에서 걸었다.

그의 걸음은 날개라도 돌친듯 빨랐다.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라도 잇달린듯 그를 뒤따랐다.

련대가 떠나 간 산중에는 또다시 고요가 슬몃슬몃 내려를 퍼고 내려기 시작하였다.

허나 수림은 이 나라 군인들이 쏴아 부은 진정으로 하여 다시금 울울창창 무성할것이다. 아니 새로운 의미를 담은 노래를 읊조리며 영원히 푸르려 설레일것이다.

해방전 대중가요와 민족문화유산

리동수

5천년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사의 갈피마다에는 당대 시대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각이한 형태, 각이한 양상의 시가들로 가득차있다. 멀리는 향가, 별곡체가요로부터 시작하여 시조를 거쳐 창가와 신체시 그리고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매 시기의 민요군들이 다양한 정서와 색채와 음향을 가지고 연연히 전해오고 있다. 해방전 대중가요도 바로 근대 이후로부터 창작되어 전해 오던 시가중의 하나이다.

1

지금으로부터 해방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 창가와 계몽가요에 이어 널리 유행된 대중가요와 만나게 된다. 그때 유행된 가요들중에는 서정적인 색채가 강한 가요들도 있고 근대민요들인 신민요도 있으며 일반대중들이 즐겨 부르던 애수적인 군중가요와 아동가요도 있다. 이 가요들은 당대 대중의 요구와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었으며 강한 정서적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유행되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전에 많이 유행되었던 대중가요들이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은 있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요소가 많으며 민족적정서가 짙게 구현된 민족문화유산이라는데 대하여 여러차례 교시하시였다.

해방전 대중가요들은 수난 많던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서정화한 민족성이 강한 작품들이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수난 많던 세월이였다. 《시일야방성대국》의 곡성이 터진 때로부터 근 반세기 동안 긴긴 세월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가 되어 땅도 집도 고향도 다 빼앗기고 정처 없는 류랑의 길을 헤매였으며 조국을 등지고 이국살이의 설움을 강요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기쁜 일 웃을 일이란 없었으며 서럽고 눈물 겨운 일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강점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부른 노래는 거의 다 슬픈 노래들입니다.》

해방전 대중가요는 우리 인민의 이 비극적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노래는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담고 있다. 앞날을 가늠할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과 울분, 향토와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래일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그대로 노래에 담아 불렀다.

가요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던 민족의 넋이

깃들고 민족생활의 정취가 넘치는 부드럽고 경쾌한 민요가락과 평이하고 소박한 노래가사로 하여 고유한 민족적정서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

물론 지난 시기에 창작된 유행가에는 일제가 조선인민을 퇴폐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노래들도 있다. 레를 들면 《장한몽》과 같은 노래라든가 일제의 대륙침략책동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 낸 군국주의정신을 찬양하고 민족말살책동을 추구한 염세적이며 퇴폐적인 노래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들은 우리 인민들이 망국노의 신세를 한탄하여 부른 노래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유행가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유행가가 지난 시기 창작되었다고 하여 다 나쁜것이 아니며 거기엔 인민들의 지향과 감정이 생활적으로 체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인 사상은 없어도 민족적울분과 향토애, 고유한 민족적정서가 있다고 일깨워 주시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선대들이 남겨 놓은 창조물이라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낄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창작된 대중가요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노래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적극 찾아 내어 우리 나라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2

지난 시기 창작된 대중가요들은 짙은 향토애와 민족적울분을 기본정서적내용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고향과 향토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 향토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과 울분의 격정을 짙은 민족적정서에 담아 노래한 대중가요들은 당시 우리 인민의 처지와 운명, 지향과 감정을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가깝고 친근하게 안겨 온다.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정든 집과 땅과 고향을 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설움과 울분은 이를데 없었으며 그만큼 향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남달리 컸다. 이것은 지난날 대중가요들에 애수와 비애의 감정을 짙은 색조로 물 들어 놓았다.

취급된 생활과 소재가 가요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방전 대중가요들은 거의 모두가 고향과 님을 그리는 망향가와 작별의 설움을 반영한 노래

로 하나의 가요군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망향가와 리별가들에 담겨 진 질은 향토애와 민족적울분의 걱정은 서로 땀해야 땀수 없는 하나의 감정으로 유착되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은 곧 정든 집과 그리운 님, 정다운 동무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험악한 현실은 작별의 설음을 무겁게 몰아 왔다. 잠시도 떨어 저 살수 없는것이 고향이였고 꿈에서도 그리운것이 고향이었다. 하기에 작별을 강요한 현실에 대한 울분은 뜨겁고 열렬한 향토애의 감정에서 발아되어 격조높이 울려 나오고 있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 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 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데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리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해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산을 다 넘어 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찌해
(《고향생각》 현재명)

가요는 고향과 강토를 잃은 서정적주인공의 슬픔과 괴롭고 쓸쓸한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지는 달, 고향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생각, 동무생각으로 눈물속에 한밤을 뒤적이며 잠 못 이루는 주인공의 고독한 처지는 멀리 타향에서 고향과 고국산천을 그리며 눈물 짓던 이 나라 인민들의 비극적 처지를 그대로 방불케 한다.

김석송의 《그리운 강남》, 조령출의 《고향설》, 김릉인의 《타향살이》, 윤시정의 《잃어 진 고향》, 리원수의 《고향의 봄》, 《망향가》(작가 미상) 등 많은 가요들이 고향을 잃은 식민지인민의 고독과 슬픔, 고향을 애 타게 그리며 뜨거운 향토애의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타향살이 몇해던가 손 꼽아 헤여 보니
고향 떠나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

...

고향앞에 버드나무 울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타향이란 정이 들면 고향된다지만
꿈결에도 그리운 곳 언제나 가랴

타향살이 10여년에 청춘만 늙고 서글픈 인생체험은 갈수록 고독만 심고 오는데 가슴깊이 맺힌 정은 꿈결에도 그리운 고향이었다. 가요에서는 버들피리 꺾어 불던 옛날을 추억깊이 더듬으며 다시 돌아 갈 기억 없는 그날을 그려 보는 애절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고향을 절절히 그리며 향수의 정은 조령출의 《고향설》에서 더욱 뜨겁고 웅심 깊게 울려 나오고 있다.

한송이 눈을 봐도 고향눈이요
두송이 눈을 봐도 고향눈일세
끝없이 쏟아 지는 하얀 눈속에
고향을 불러 보니 고향을 불러 보니
가슴 아프다

소매에 떨어 지는 눈도 고향눈
땅우에 흩어 지는 눈도 고향눈
타향은 낮 설어도 눈은 낮 익어
고향을 떠나 온지 고향을 리별한지
몇몇해던가

가요는 낮선 타향에서 한송이, 두송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그리운 고향땅에서 끝없이 쏟아지던 눈송이를 그려 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애틋한 향수의 세계를 펼쳐고 있다. 타향은 낮 설어도 눈은 낮 익다는 발견적인 정서적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낮선 타향에서 고향의 꿈이 못 견디게 그리워 몸부림치는 서정적주인공의 인정심리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감각적이며 생활적인 정서로 절절하게 노래되고 있는가를 감동 깊게 느낄수 있다.

고향을 애 타게 그리며 고독과 눈물속에 모대기는 주인공의 내적체험속엔 또한 슬픔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설은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리
끝 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왔는가

...

나는 가리рода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어도
아, 피로운 이 심사를 가슴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잘 있거라
(《황성옛터》 왕평)

집도 고향도 다 잃고 가엾은 홀몸으로 그 무엇을 찾으려 《끝 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온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엔 피로움과 슬픔만이 차넘친다. 고색창연한 한밤의 옛 성터에 고요히 흐르는 처량한 달빛은 지난날의 서러운 회포를 더해만 준다. 가요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그리운 산천을 뒤에 두고 피눈물 뿌리며 떠나가는 서정적주인공의 괴롭고 쓸쓸한 체험세계를 깊이 있게 과해치고 있다. 그러나 그 피로운 심사는 방랑자의 단순한 비판만을 보여 주는것이 아니다. 끝없이 발길 닿는 곳까지 가

고 또 가리라는 비장한 호소는 심중에 품고 있던 격노의 웨침이며 강렬한 울분으로 폭발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기의식의 표현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슬픔과 울분의 감정은 가슴 아픈 작별의 슬픔을 노래한 가요군들에서 더욱 절절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작별은 슬픔을 몰아 오고 슬픔은 울분을 격발시키면서 보내고 떠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뜨겁게 불러 일으킨다. 그렇다면 무엇이 작별의 눈물을 몰아 오며 그리움의 인정에 못을 박고 있는가. 가요는 작별의 슬픔과 그리움의 정으로 엉켜진 인생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내면적인 심리체험세계를 통하여 웅심 깊게 개방하고 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배사공
흘러 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후렴)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 메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 메이는 애달픈 하소
(후렴)

님 가신 이 언덕에 단풍이 물 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옛님이 보고 싶구려
(후렴)

(《눈물 젖은 두만강》 한명천)

두만강 푸른 물에 님 실은 배를 떠나보낸 가슴쓰린 작별의 세계를 뜨거운련모의 정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어디론가 떠나간 님을 그리며 눈물젖은 두만강 강가에서 추억에 목 메여 한숨 짓는 서정적 주인공의 서글픈 인정체험이 사랑과 울분의 격조에 실려 펼쳐지고 있다.

정든 향토와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 이국의 낯선 고장을 정처없이 헤매야 했던 애달픈 심정은 두만강물결과 배고동 우는 목포와 부산항 부두가에 석별의 눈물로 얼룩져 흐른다.

사공의 배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 드는데
부두의 시악씨 아롱 젖은 옷자락
리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음
(《목포의 눈물》 문일석)

울며 헤진 부산항을 돌아다 보니
련락선 란간머리 흘러 온 달빛
리별만은 어렵더라 리별만은 슬프더라
더구나 정 들인 사람끼리 음-음-

(《울며 헤진 부산항》 조령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민이 겪는 설음은 작별의 슬픔과 함께 석별의 정 넘치는 부두가를 눈물로 적신다. 언제 다시 돌아 올지 기약할수 없는 작별이기에 설음은 부두가에 날리는 옷자락우에, 련락선 란간머리 달빛우에 하염없이 쏟아진다. 서로의 그리운 정을 송두리채 앗아 가는 작별을 통탄하며 설음은 다시 울분으로 터져 오른다. 락화류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속에 봄과 인생을 노래한 가요 《락화류수》에서도 작별을 인생윤리에 비겨 노래하고 있다.

가요에서 노래한것처럼 《보내고 가는것이 인생》으로 화해 버린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

이 강산 락화류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잔디 없어 지은 맹세야
세월의 꿈을 실어 마음을 실어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

...
사랑은 락화류수 인정은 포구
보내고 가는것이 인생이더냐
영춘화 야들야들 피는 들창에
이 강산 봄소식을 편지로 쓰자

사랑은 물결우에 꽃잎처럼 흩어져 흘러가고 포구의 물결우에 석별의정이 오가는 속에 인생도 그렇게 흘러 간다는것이 고달픈 인생길을 헤쳐 오는 과정에 서정적주인공이 생활을 통하여 얻어낸 료리였다. 허나 가요에서는 작별의 설음과 울분의 정을 《봄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의 뜻으로 결속짓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김경의 《작별》, 《비 오는 해관》과 같은 가요들에서도 작별의 설음에 겨워 정든 사랑에 진정 못하는 서글픈 인정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사랑과 작별, 님과 작별에 대한 주제는 그리운 모든것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모대기는 인정에 대한 주제이다. 님은 곧 곡절 많은 인생길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언약한 련인이었으며 한생을 품에 안아 보살피 주는 어머니였으며 사랑하는 향토와 정든 집, 잠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그리운 모든것이였다. 그러기에 작별의 설음을 노래한 가요군들도 사랑과 그리움, 민족의 슬픔과 울분의 격정으로 차넘치고 있다.

3

지난 시기 창작된 대중가요들에는 고유한 민족적 정서가 차넘치고 있을뿐아니라 래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열원하는 소박한 꿈과 랑만이 있다. 비감비조로 채색된 가요들이지만 거기엔 민족적울분과 짙은 향토애가 넘쳐나고 있으며 새날을 원하는 열망과 희열이 있다. 이것은 가요에 고유한 민족적향취

와 랑만적서정을 충만케 한 바탕으로 되었다.
 순결한 민족정신과 고유한 민족생활, 아름다운
 민속미풍을 고수하려는 의지와 양심은 대중가요들
 에 넘쳐 흐르는 공통의 감정정서이다.

울밀에 선 봉선화야 네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

복풍설한 찬 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 저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봉선화》 김형준)

아름답게 꽃피나는 봉선화꽃잎을 물 들이며 반겨
 놀던 농촌아가씨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순
 결한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의 질은 향기를 감수한
 다. 봉선화는 일제놈들의 발굽밑에 짓밟혀 신음하
 던 지난 날 우리 겨레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모질
 게도 침노하는 가을바람에 늙어 저 락엽지는 처량
 한 봉선화, 《복풍설한 찬바람》에 형체없이 사라
 저도 민족의 넋을 지켜 내는 결국한 자태, 화창한
 봄바람에 환생기를 열망하는 민족의 의지는 가요의
 전면에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랑만적서정을 넘치게
 한다.

민족의 순결성과 민족적절개를 고수하려는 고결
 한 정신과 애국의 넋은 가요 《락화삼천》을 통하
 여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반월성 넘어 사자수 보니
 흐르는 붉은 돛대 락화함을 감도네
 옛꿈은 바람결에 사랑거리고
 고란사 저문 날에 물새만 온다
 물어 보자 물어 보자 삼천궁녀 간곳 어데나
 물어 보자 락화삼천 간곳 어데나

부여성 옛터를 바라보며 외적의 침략에 맞서 락
 화암 굽이치는 물결우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의 전
 설 같은 이야기를 노래한 가요의 서정속에서 우리
 는 질은 민족적정서를 받아 안는다.

이것은 끝까지 변함 없는 순정을 지켜 나가는 사
 랑의 료리를 통하여서도 인상 깊게 드러나고 있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말아 오빠가 있다
 안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

홍도야 울지 말아 굳세게 살자
 길녘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마음이 젖어 드는 서러운 앞길에
 즐겁게 웃을 날이 다시 오리라
 (《홍도야 울지 말아》 리고범)

사랑을 팔고사는 어지러운 세상은 《순정의 등
 불》을 지켜 가려는 안해의 결국한 마음을 꽃바람
 속에 유혹한다. 허나 운다고 사랑이 되돌아 오는것
 도 아니다. 사랑이 돈으로 유지되는 험악한 세상은
 한숨이나 눈물을 용납지 않는다. 굳센 마음 가다듬
 고 서러운 앞길을 헤쳐 나갈 때만이 깨끗한 순정을
 지켜 낼수 있으며 웃으며 살아 갈 즐거운 날도 맞
 을수 있는것이다.

가요는 돈과 사랑의 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고 그것을 《순정의 등불》을 지켜 갈 의지를 통하
 여 밝히려고 한 점에서 교훈을 준다. 이렇듯 외유내
 강한 조선녀성의 순결하고 부드럽고 강직한 민족적
 성품을 긍정하고 옹호한 노래의 서정은 가요의 바
 탕에 질은 민족적정서를 넘치게 한다.

봄을 맞은 향촌의 서정과 랑만을 노래한 《개나
 리》(조령출), 《봄맛이아리랑》(추야월), 아름
 다운 조국산천의 절경을 궁지높이 노래한 《조선팔경
 가》(왕평), 《진주담의 노래》(설의식) 등에는 농
 촌풍토에 어울리는 민족생활과 민속미풍이 질은 서
 정속에 펼쳐져 있어 고유한 민족적정서를 풍부히
 돋구어 주고 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식민지인민의 고통과 슬
 픔을 노래한 가요에는 비애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정서로 젖어 있는것은 아니었다. 거기엔
 밝고 즐거운 생활과 희망찬 미래를 열망하는 꿈과
 랑만도 있었다. 물론 감상적인 흔적도 없지 않았으
 나 밝고 경쾌한 색조로 물 들어 진 소박하고 깨끗
 한 랑만의 세계는 가난속에서도 희망찬 래일을 꿈
 꾸며 굳세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담
 고 있는것으로 하여 친근하게 안겨온다. 이것은 또
 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적기질이며 특성이기
 도 하였다.

리고범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김룡인의
 《바다의 교향시》, 윤복진의 《우리는 조선의 아
 들》, 리은상의 《조선찬가》 등에서 울려 나오는
 랑만적정서를 통하여 우리는 래일을 내다보며 슬픔
 을 이겨 나간 우리 인민의 강의하고 락천적인 기질
 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며 무엇을 믿고 살수 없는
 아득한 세상에서 세월에 지친 한 녀인이 《억울한
 하소연도 짧은 사랑도/가슴에 끌어 안고 울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고 있다. 그러나 녀
 인의 가슴엔 절망과 비관만이 아닌 래일에 대한 일
 종의 동경과 기대가 있다.

...

래일의 꿈길이 꽃 피는 날에

무엇이 아까우랴 꺼리끼겠소
세상에 검은 구름 개이는 그날
마음에 고인 설음 가시여 지리

너인은 래일의 꿈이 실현될 그날을 믿고 있기에 그날을 위해 몸도 마음도 서슴없이 바칠 결심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검은 구름 개이는 그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날이 다가오리라는 기대와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탄식과 설음을 박차고 희망찬 조선의 미래를 위해 한몸 바쳐 싸우려는 억센 기상과 결의를 노래한 《우리는 조선의 아들》, 《조선찬가》 등에는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랑만적기백이 구절마다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이 가요들에서 우리는 서글픈 비애의 정서를 느낄 수 없다. 그보다 나라 잃은 설음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결심과 의지로 엮여진 격동적인 정서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가요에는 백두의 기상을 타고 난 조선청년의 긍지와 함께 《탄식》을 박차고 돌진하려는 억센 기상과 락천적기백, 단결의 힘으로 동트는 아침을 불러 오려는 투지가 차넘치고 있다.

우에서 본 해방전 대중가요들은 창작가들의 사상적약점과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혁명적인 내용을 보여 줄 수 없었으며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지 못하였다. 가요에 담겨진 향토애와 민족적울분은 단순한 민족주의적감정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비애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지 못하였다. 가요의 바탕에 배여 있는 감상적색채도 바로 이런 본질적약점에서 흘러 나오는것이다.

그러나 해방전 대중가요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억압 받던 인민의 비극적처지와 운명을 고유한 민족적정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상과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깊이 있게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해방전 우리 나라 시가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상식

《노아의 홍수》

오늘 부르조아어용출판물들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인류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노아의 홍수》란 말은 랭전시기 기회주의자들과 투항주의자들이 인민들속에 열핵전쟁에 대한 공포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즐겨 쓰던 말이다. 원래 《노아의 홍수》란 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이다. 그 내용인즉 옛날 어느 시기에 세계가 극도로 타락하여 지상에는 악이 가득 찼다고 한다. 이에 대노하여 《신》은 모든것을 대홍수로 전멸시키려 하였다.

그때 노아라는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은 그에게 3층짜리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 노아 부부와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 여러가지 짐승의 암놈, 수놈 2마리씩 그리고 식량을 실으라고 하였다. 배의 크기를 환산하면 지금의 1만 5,000톤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개심할것을 권고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리하여 7일후부터 40날, 40밤 큰비가 내려 대홍수(이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한다.)가 나서 《노아의 배》에 탄 사람과 짐승 외에는 모두 죽고 말았다.

배는 떠다니다가 물이 찌자 뛰르끼예의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으며 그후 사람과 짐승이 다시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력사적사실이 아니라 한갓 종교적인 허황한 공담이다.

기회주의자들과 투항주의자들은 인민들속에 핵공포증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종교적공담까지 끄집어 내어 핵전쟁이 일어 나면 인류가 《노아의 홍수》때와 같이 전멸될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할것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 핵공갈앞에서 공포에 질려 굴복하는 길로 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비굴한 노복으로 되고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한 목소리

최양수

교구역인민보안서 수사과 부원 채명학이 ○○연구소에 도착한것은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한시간후였다.

구역보안서에 전화를 건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소장은 방안에 들어선 그의 두손을 황급히 잡아 주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첫 대면이었지만 정황이 정황이니만치 인사말을 길게 할수 없었다.

호인다운 길동실한 얼굴에 정수리부분의 머리카락 한오리없이 벗어진 로박사는 신고자들 일반의 심리와 달리 침착하게 방구석쪽으로 걸어 갔다. 금고앞에 선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제 금요일 오후 소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진행한 학위논문심의에 참가했었다. 심의가 늦어져 그대로 퇴근했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한 그는 금고열쇠번호가 한눈금 달라진것을 발견했다. 2. 3수자가 2. 4로 되었던것이다. 방안의 물건들은 다 제대로 있었고 분실된것도 없었으나 누군가 금고열쇠에 손을 댄것만은 확실하다는것이였다. 어찌 보면 지나친 신경과민이 일으킨 착각 같은것이기도 했다.

(여간 깐깐한 사람이 아니구나!...)

채명학은 특이한 모양의 열쇠를 자세히 보고 나서 물었다.

《정확히 2. 3에 놓았겠습니까?》

《틀림 없습니다. 어제가 23일이었으니까요. 이 열쇠는 내 지문이 아니고선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이 점은 담보합니다만...》

소장은 보안서에 굳이 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유를 말했다.

금고안에는 중요한 기술문건들과 시제품들, 연구사들에게 수여할 발명권들과 그에 해당하는 거액의 상금이 들어 있었다.

채명학은 방안을 쪽 둘러 보았다. 소장의 질서정연한 사업규칙때문인지 흠 잡을데가 없었다. 깨끗한 방바닥에는 침입자의 발자국자리도 없었다. 이어 지문현출작업을 진행했다. 금고열쇠와 손잡이에서는 의식적으로 마구 짓이겨 놓은듯한 형체불명의 지문들이 나타났다. 소장의 판단이 옳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침에 찍혀진듯한 출입문 손잡이에서 나온 생생한 지문은 소장의것이였다. 책상우의 물건들은 다친것이 없다고 한다.

현장검증에서 아무런 증거물도 찾아 내지 못한 채명학은 난감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소장은 보안원의 심증을 짐작했는지 연구소의 실태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국가적비밀에 속하는 기술문제들이였다. 이달초에 연구소에선 최첨단 기술성과인 《ㄷ-27》을 개발했다고 한다. 전자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의를 가지는 《국체특허》감이고 나라의 군사과학기술발전에서도 혁신을 가져오게 될 연구성과였다.

신고의 타당성이 있는 조건에서 사건발생시간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라는것과 연구소의 내부규정으로 보아 대상인물이 기관안에 있을수 있다는것, 범죄자가 조급했거나 속대가 허약해서 열쇠번호를 헛갈렸다는 추정밖에 할수 없었다. 범죄자의 목표물이 돈일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외부인원출입이 엄금된 연구소에서 소장의 금고를 노린자가 있었다는것은 간과할수 없는 비상사태이다. 비상사태! ... 채명학은 언뜻 뇌리를 친 이 생각을 직업적인 타성으로부터 생긴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 싶지 않았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서 우리 당이 제시한 과학중시사상! ...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

현시대에는 두뇌전의 시대이다. 적대국들끼리는 물론 동맹자들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넘겨다 보면서 맹렬한 쟁탈전을 벌리는것은 현시기 상식화된 일반개념이 아닌가.

(돈? ... 그건 유치한 범죄이지. ... 연구소! ... 《ㄷ-27》... 《고급한》 범죄라면? ...)

방안에 깃든 어색한 분위기를 뒤미처 직감한 채명학은 자기 생각에서 깨여났다.

《이번에 연구소에서 큰 일을 했군요. <ㄷ-27>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걸 좀 보시오.》

소장은 책상우에 놓여 있는 손바닥만한 사진 한장을 채명학에게 내밀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ㄷ-27》의 시제품사진이라는것이다.

《우리 연구소 한두칠동무가 새로 개발한것입니다.》

채명학은 쥐며느리처럼 보이는 사진속의 《ㄷ-27》에 시선을 준채 물었다.

《한두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탐구심이 강한, 외국어도 다스려나 소유한 수제입니다. 이젠 나혼자 소리가 아님

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소 기술대표단이 XX나라에 갔었는데 그 나라 학자들까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턱밑을 쓸어 만지던 채명학의 손이 한자리에 굳어 졌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장이 긴숨을 내쉬고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런데… 보름전부터, <ㄷ-27>이 성공한 이후부터 두칠동무가 갑자기 우울해 진것이 모를 일이지요. 가정에서 처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풍설이 돌아 가긴 합니다. 그때문이라고 할가, 무슨 큰 고민거리라도 있는지 그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싫어 한단 말입니다. 허참!… 지금이 어느 때라구 어데서 술을 마셨는지 목요일아침에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출근했는가 하면… 집에 정이 붙지 않는지 어제 저녁엔 퇴근도 켜 늦게 했더군요.》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왜 나빠 졌는지 모르겠습니까?》

《글쎄… 본인이 어디 말을 해야지요. 도대체 그 사람일을 통 알수가 없거든요. 워낙 책박에 모르는 어진 사람인데…》

채명학은 소장의 말들이 지나가는 여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한두칠의 고민!… 소장의 금고에 손을 댄 흔적… 그리고 보면 이 사건에서 표면에 드러난 인물은 한두칠이였고 형태적으로나마 단서라고 할수 있는것은 《ㄷ-27》의 성공과 연구사의 고민이라는 모순된 현상이었다.

소장의 방에 자주 드나드는 인물은 연구소의 책임일꾼들 4명과 관리원 1명이였다. 소장의 말에 의하면 석달전 관리원이 새로 들어왔을뿐 그들에게서 특별히 제기되는것이 없었다.

다음날 일요일엔 연구소에서 오래간만에 야유회를 조직했다는것을 알게 된 채명학은 별다른 내색이 없이 소장의 방을 나섰다.

일요일 아침, 채명학은 한두칠의 안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장이 한 말을 듣고 한두칠이네 인민반 생활을 료해해 본 채명학은 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것이다.

(을 시간이 되었는데, 시병원 마취과 의사라고 했지…)

똑똑… 문기척소리가 났다.

《예, 들어 오시오.》

웬 녀인이 두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머리를 숙여 보인다.

《저-어-… 보안서에서 불렀다기에…》

《시병원 의사생생입니까?》

《네, 리옥금이라고 합니다.》

녀인이 피곳 고개를 쳐들 때 채명학은 이상한것을 감촉했다. 툭툭 부어 오른 녀인의 눈가에 불안스러워 하는 착잡한 심리가 짙게 비껴 있었다.

《어서 앉으십시오.》

주저주저하다가 의자에 조심스레 앉은 그 녀자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부위를 꼼꼼히 닦고 귀머리를 쓸어 올린다. 침착해지려고 애 쓰는듯 했다.

(한두칠이네 집에서 소리가 난다더니, 녀자가 좀 센척이겠는걸.)

이런 형의 녀성들은 세대주의 위치를 망각하고 집안에서 남편보다 목청을 더 높이는 법이다.

다혈질인듯 싶은 녀인은 보안서에서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것이 아니라 선뜻 토설할수 없는 자기 내부의 울분을 안고 있는것 같았다.

《아주머니, 어디 편치 않습니까?》

눈길을 떨구고 손수건을 꼬깃꼬깃 말아 쥐던 리옥금이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이런 일이 있을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안서에 찾아 오려고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수도 없지만 가정문제때문에… 그보다 이상한 전화때문에…》

《이상한 전화라니요?!》

채명학은 온몸이 긴장해 졌다.

《이삼일에 한번씩 우리 집으로 별난 전화가 걸려오군 합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 웬 남자가 글쎄… 아이들이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를 찾다가… 저의 목소리이면 말을 끊군 한답니다. 전엔 그런일이 없었는데 한 보름전부터… 주인을 찾는것 같습니다. 헌데 본인은 귀찮아 하다 못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린답니다. 솔직한 말로 처음엔 무심히 대했었는데 이젠 막 불안하고… 저.. 뭐라고 해야 할지…》

(협박전화인가?! 아니면?…)

채명학은 녀인의 두서 없는 이야기를 듣고선 전후사연이 아리송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리옥금이 자못 의아스러웠고 《이상한 전화》라는 그것이 더욱 놀라왔다.

《아주머니, 그 전화가 매번 같은 목소리던가요?》

《목소리가 건강한 사람의… 성대가 굵은…》 고개를 수긏하고 기억을 더듬어 가던 녀인이 눈길을 들었다. 《분명 한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말투도 같고…》

채명학은 오른손 주먹을 턱밑에 가져 갔다. 주의를 집중할 때마다 나타나군 하는 동작이다.

그러니 전화를 거는 사람은 촉박감을 안고 한두칠을 찾고 있다. 길거리에서 만날수도 있고 집에 찾아 올수도 있을텐데… 한두칠이 그를 피하는것이 아닐가? 왜 피할가? 그 사람은 어째서 이 녀인에게 자기 존재를 숨기려 하는가? 보름전부터라면 《ㄷ-27》이 성공한 이후가 아닌가!…

《아주머니, 그런 전화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바닥 한곳을 줄곧 내려다 보고 있던 리옥금이 앉은 자세를 고쳤다.

《이번주 월요일과 금요일엔 새벽 6시쯤이었습니
다. 수요일 밤엔 두번씩이나... 그날 밤 주인은 전화
를 받으면서 무슨 <량심>소리를 하며 누구와 다투
기까지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 다른 소리를 들은건
없었습니까? 자동차소음이라든가, 곁에서 주고 받
는 말소리라든가...》

《저... 오늘 새벽에 무슨 음악소릴 들은것 같습니
다. 록음기소리인지 우리 나라 음악 같진 않았습니
다.》

《네... 전화를 거는 사람이 짐작되지 않습니
까?》

《글쎄... 어디서 들어 본 목소리 같긴 한데...》

고개를 기웃기웃하던 녀인은 채명학을 쳐다 보는
순간 두눈을 크게 뜨며 동공이 딱 굳어 졌다. 신비
한 명감과도 같은것이 피득 떠오른듯 싶었다. 아무
리 머리를 쥐여 짜도 풀리지 않던 수확문제가 시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단꺼번
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리옥금의 태도는 기대와 달랐다. 녀인은
왜서인지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어데다 들지 몰라
허둥거렸다.

아연하게 돌변한 그 행동을 주시해 보던 채명학
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공간을 주지 않고 재차 질
문을 들이댔다.

《아주머니, 주인이 누구에 대해 말한적이 없었습
니까?》

《저- 이따금씩 <고향친구>를 만났했다는 소릴
듣긴 했지만... 그인 집에 들어 오면 책박에 모릅니
다.》

《주인이 술을 좋아 합니까?》

《그닥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기술대표단성
원으로 외국에 갔다 온 후 두루 돈이 좀 생기면서
부터...》

《주인이 금요일날 늦게 퇴근했지요?》

《그날 누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기분이 펍 좋지
않아했습니다.》

《아주머니 전화로 걸어 온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본것 같다고 했지요?》

《네?! 제가 언제... 전혀, 전혀 알수 없는...》

리옥금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하고 나서 호-
하고 모두 숨을 내그었다. 얼굴에 후회감과 안도감
이 뒤섞인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분기가 느껴지
기도 하는 미묘한 기색이 엇바뀌며 비끼었다.

(왜 저렇가?!...)

녀인의 심리반응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 나는 종
잡잡수 없는 변화들!... 이것도 한두칠의 생활과 새
롭게 제시된 《이상한 목소리》와 련관시켜 보아야
할 《흔적》 없는 단서들이었다.

깜부기가 흔들리는 이상 낚시줄을 잡아 췌것인
가? ... 아서라!...

채명학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들을 요점적인
단어와 부호표시로 사업수첩에 적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아주머니, 오늘 이야기를 어디 옮겨선 안되겠습
니다. 무슨 일이 제기되거나 더 생각되는것이 있으
면 아무때건 찾아 오십시오.》

리옥금은 명심하겠노라면서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녀인을 정문밖까지 바래주고 돌아 온 채명학은
가슴우에 두팔을 포개 었고 방안을 거닐었다.

새벽이나 깊은 밤에 걸려 오는 전화, 록음기소리
... 그렇다면 《이상한 목소리》의 임자는 공중전화
소나 어느 기관에서가 아니라 사택전화를 리용한다
고 볼수 있지 않는가. 수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것은 숲속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물론 전화를 받게 된 당사자인 한두칠은 상대방
을 알고 있을것이다. 리옥금은?... 문제는 한가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유명처럼 움직이고 있는 인
물의 흑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이 수수께끼
를 풀자면 한두칠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다.

채명학의 눈가에는 리옥금의 돌연스러운 행동이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그 녀자의 표정변화들
에서 감촉했던 각이한 색조들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
보았다.

이튿날 사복차림을 하고 ○○연구소에 도착한 채
명학은 소장을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찾아 와서 사업에 방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 별소릴 다 합니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해서
... 미안합니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그들은 창문과 마주한 소파우에 나란히 앉았다.

소장이 담배를 피워 물고... 채명학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소장선생님, 최근에 한두칠연구사와 가까이 지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누가 전화를 걸어 왔다는
가...》

《원체 고독을 즐기는 전형적인 학자형이다보니.
가만, 닷새전엔가 두칠동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저 친구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알려주고 오니
전화가 끊어 졌더군요.》

《닷새전이면 수요일이군요. 그때 이상하게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뭇 별루...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는 바스형이
였습니다. 성대가 굵은... 두칠동무가 별로 전화를
달가와 하지 않는것 같더군요.》

휴- 사실말이지 그 사람때문에 속상한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제 야유회에서도 그는 동무들과 어울
리지 않고 혼자서 쓸쓸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 물으면 한숨만 쉬더라 말입니다.》

채명학은 수첩장에 《…<ㄷ-27>의 성공+이상한 목소리=한두칠의 고민?》라는 글을 써놓고 한손을 턱밑에 가져 간채 이윽도록 내려다 보았다. 놀라운 것은 두 목격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표현이 비슷이 일치하는 것이었다.

자리에서 일어 선 소장은 방구석쪽으로 걸어 갔다. 금고문을 연 그는 필갑모양의 투명한 수지판과 서류 하나를 꺼내 놓고 돌아 왔다.

《이것이 두칠동무가 새로 개발한 <ㄷ-27> 연구 자료입니다.》

채명학은 5개의 《ㄷ-27》중 하나를 집어 들었다. 연구자료는 기술용어들을 알것 같지 못해 표지만 눈에 익혀 두었다.

시제품을 박속에 넣은 그는 무심결에 물었다.

《이걸 소장선생님에 누가 또 건사한적이 없었습니까?》

《두칠동무가 연구자료를 재확인하느라고 이틀간 보관했었습니다. 전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수요일인가! 음- 수요일… 금요일… 한두칠을 빨리 만나야 한다, 빨리!…)

채명학은 수요일이란 말을 네번째로 듣고 있었다. 소장은 책상우에 놓인 《ㄷ-27》 시제품통과 연구자료를 거두고 있었다.

신고된 사건과 한두칠의 생활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련관시켜 음미해 보던 채명학은 불현듯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그는 소장에게 《ㄷ-27》의 허위연구자료를 만들어 책상우에 놓고 필기도구 같은 것으로 적당히 표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로박사는 어리둥절해 있더니 뒤미처 채명학의 의도를 깨닫고 선선히 응해 나섰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집어 들고 몇마디 말을 주고 받던 소장이 별안간 목청을 높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거요? … 병원에 입원했거요?!…》

채명학은 벌떡 일어 섰다.

소장은 송수화기를 짝 그러 쥐고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허, 이런 참! … 한두칠이 그 사람이 어제밤 입원했답니다.》

《뭐- 라구요?!…》

소장은 한두칠의 안해를 기다리게 하라는것과 송용차를 대기시키라는 말을 하고 송수화기를 내려 놓았다.

《아마- 정신적과로때문이겠지요. 너무 무리하긴 했지. 그 사람은 심장도 약한 축이니까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던 로박사는 책상우의 문건들이며 금고열쇠를 다시금 살펴 보고 나서야 떠날 차비를 했다.

(어떻게 되어 이런 일이 생겼을가? 내가… 내가 한결음 늦었던 말인가?…)

채명학은 애써 심신을 가다듬으며 소장의 방을 나섰다....

경비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옥금을 태운 승용차는 패속으로 달리였다.

채명학은 병원으로 가는 짧은 시간동안 한두칠의 신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료해할수 있었다.

어제 리옥금은 휴식일이였지만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있어 구급환자수술에 참가하고 밤 11시경 집으로 돌아 왔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밥을 지어먹고 잠들고… 끄지 않은 텔레비존에서는 요란한 소음이 울리고 있었다. 가뜰이나 지친데다가 신경이 뻗쳐 난 리옥금은 가방을 문턱에 내동댕이치고 옷방으로 올라 갔다. 책상우에 고급파자봉지와 처음 보는 외국제 술병이 나딩굴고, 야유회에 갔다가 언제 돌아 왔는지 남편은 옷을 입은 채로 방바닥에 네활개를 펴고 드러누워 있었다. 밤중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해 온지라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으나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책상우의 술잔이 떨어져 박살 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속이 후련해 질 때까지 짜증을 낸 뒤끝에 점차 리성을 회복한 리옥금은 그만에야 자기 눈을 의심했다. 남편의 얼굴색이 별스레 창백해 보였다. 겁이 덜컥 난 녀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숨결을 들어 보고 가슴을 짚어 보았다. 호흡도 맥박도 불규칙적이였다. 남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것이 아니라 운명직전의 상태였다.

아우성을 치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한밤중에 온 동네가 들썩하게 소동을 일으키며 환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초긴장한 전투속에서 의료집단의 응급대책이 세워졌기에 환자의 심장은 멎지 않았다. 만약 조금만 지체했다라면 한두칠은 이미 절명하고 말았을것이다....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협의진단내용을 듣고 난 채명학은 가슴이 서늘해 왔다. 한두칠은 누군가의 철저히 계산된 음모에 의해 살해될번했었다. 그가 마신 술에는 시간을 임의로 정한데 따라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킬수 있는 특수하게 제조된 물질이 들어있었다. 다행스러운것은 환자가 치사량을 마시지 않았기에 소생가망이 암담하지 않은것이였다.

채명학은 직일의사실에서 리옥금을 따로 만났다. 징검다리를 건널가 말가 하며 움지락거리는 소녀처럼 녀인은 가슴깊이 묻어 둔 비밀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심리적타격이 커서인지 마음속의 모태김을 눈물로 호소하기만 했다.

채명학은 한초가 새로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수 없어 담화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

직일의사실에서 나온 그는 병원담방 보안원을 만나 진지한 협의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부서로 돌아 온 그는 한두칠이 마신 술병을 자세히 뜯어 보았다.

뽀얏스름한 재빛유리병의 상표에는 옛날 서방귀 죽옷차림을 한 사람의 초상이 붙어 있었다.

(한두칠이 누구한테서 이런 술을 받았을까?…)

사복차림을 한 채명학은 마치 한가한 사람이 심심풀이산보를 하듯 오후시간을 보내었다. 경화거리를 오가며 매 상점들의 진렬대와 상품안내표들을 간간히 훑어 보았다. 마침내 《은하수상점》에서 문제의 술병을 찾아 냈다.

식료품매대 판매원의 말에 의하면 값이 비싼 그 술은 수요자가 드물게 나타난다고 한다. 한달동안에 겨우 5병이 팔리었다. 외국인이 1병, 조국방문중에 있는 해외교포가 2병, 나머지 2병은 토요일 저녁 마감시간에 30대의 웬 녀자가 여러가지 당과류들과 함께 사갔다고 한다. 판매원이 기억하고 있는 그 녀자의 인상특징은 그저 《곱게 생겼다.》는 아주 범박한 표현뿐이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는 판매원이고 보면 그럴수 있다고 봐야 했다.

채명학은 판매원의 생각을 뒤워 줄수 있는 맞춤형 유도질문을 해서야 몇가지 자료를 얻을수 있었다.

술병을 사간 녀자는 수박색 코트차림이었고 신발과 가방은 외국산이었다. 급한 일때문인지 상점에 들어 서면서 손목시계를 보더니 표를 땔 때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 출납원이 나와서 주더라는것, 의문스러운것은 그 녀자가 상품을 가방안에 넣으면서 잠깐 꺼내놓았던, 휴지처럼 보인 종이몽치였다. 돈을 쓰는 품이며 옷차림과 어울리지않는 물건이어서 판매원은 미심결에 눈 여겨 보았다. 꾸겨 졌던것을 편듯한 얼룩진 종이에에는 무슨 부호표식들과 계산수자들이 있는가 하면 중어, 일어, 영어를 비롯한 별의별 나라 글들이 혼합된 문장도 있었다. 영어를 일정하게 알고 있는 판매원은 그중 언젠가 외국전 자체품해설문에서 본적 있는 영어단어 하나를 기억해 냈다. 전자공학술어였다. 가치 있는 자료들이었다!

채명학은 《…외국어도 다섯개나 소유한 수재입니다.》라고 하던 연구소 소장의 말이 피곳 떠올랐다.

가령 어떤 연구사가 자기 취미대로 여러 나라글을 뒤섞어서 기술문건을 정리했을수도 있지 않는가!…

○○연구소로 가기 위해 궤도전차에 오른 그는 차창열 의자에 굳어 진듯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속에선 무수한 잔줄기들을 한뿔으로 모아 안고 출렁이며 흘러 가는 강물처럼 사색의 격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얻은 자료들을 종합해 본 그는 다섯가지 가설을 세웠다.

1. 소장의 방에 침입했던 자는 한두칠이 아니다.

2. 범죄자는 한두칠의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소장의 방을 잘 알고 있고 목표물은 《ㄷ-27》이다.

3. 한두칠에 대한 살해기도는 위험을 느낀 자의 최후발악이며 수사선을 끊어 버리기 위한 책략이다. 긴박한 시간을 보내는 범죄자들, 각 방면에서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이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자, 돈을 많이 쓰는 술을 사간 녀자-범죄자는 한명이 아니다. 공모자들속에 해외출입자나 대외사업분야에서 일하는 자가 있을수 있다.

5. 련이어 겹쳐드는 불행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리옥금, 그 녀자는 제 입으로 《이상한 목소리》를 공개해놓고 문제가 심화되자 무엇인가를 숨기고있다. 그토록 말못할 사연이라면 그 녀자와 운명적으로 얽혀진 일일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녁노을이 비껴무렵 채명학은 연구소정문에 들어섰다. 접수실 경비원을 만난 그는 지난주 개별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을 알아 보고 소장의 방에 찾아 갔다.

소장은 쏘파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침울한 안색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안에 들어 선 채명학을 본 로박사는 평시의 그 답지 않게 상반신을 일으키며 머리를 끄떡여 보이기만 했다.

소장은 역시 매사에 어정쩡한데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책상우에는 벌써 《ㄷ-27》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비벼 끄고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선 이런 일이 처음이지요. …두칠 동문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한테 죄를 짓고 살 그런 인간도 아닌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절충식으로 봐서 안된다고 봅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야유회 뒤끝에 그가 누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까?》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 헤어질 때 관리원과 같이 가는걸 본것 같습니다.》

채명학의 머리속에는 알지 못할 어떤 예감이 회회오리쳤다.

(관리원이 석달전에 새로 들어 왔다고 했지. 이곳에 갓 나타난 인물! … 《은하수상점》 판매원이 보았다던 종이몽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 어떤 녀자일까?…)

그들이 한참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때 문기척 소리가 났다.

소장의 응답이 있기전에 문이 열리었다. 보기좋은 몸매에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미모의 녀인이 주춤거렸다.

《전 손님이 와 계신줄 모르고...》

소장이 쓰파우에 놓았던 채털이를 책상에 가져가며 말했다.

《우리 관리원입니다. ...일 없소. 무슨 일때문에?》

《저- 휴지통을...》

《명숙동무, 안됐구만. 매일 수고를 시켜서.》

《아이, 별 말씀을...》

채명학은 심상하니 창문쪽을 바라보는척 했다. 녀인이 그의 앞을 지나 갈 때 류다른 향수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채털이를 휴지통에 털어 버리고 제 자리에 갖다 놓은 녀인은 하얀 살결의 보동보동한 손으로 원탁 옆의 고무나무잎들을 쓸어 만지며 보온병의 물을 화분통에 쏟아 붓고 있었다.

채명학은 룡감적으로 녀인이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것을 감촉했다. 소장의 책상우를 스쳐 보는것도 놓치지 않았다.

녀인은 사교적인 몸가짐으로 깎듯이 레의를 표시하고 방안에서 나왔다.

채명학은 살머시 닫기는 문쪽에 시선을 준채 나직이 말했다.

《저 녀자는 직업이 어울리는것 같지 않군요.》

《바로 맞추었습니다. 고명숙이라구 가내편의협동에서 사진사를 하던 여자인걸요. 연구소에선 저렇게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출퇴근할 때 보면... 거뭇 친척되는 사람이 외국출장을 많이 다닌다더군요.》

《그가 어디서 일한단니까?》

《어느 대외사업기관에서 일하는가 봅니다.》

《음... 관리원이 수박색 코트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허! 보안원동무가 그걸 어떻게?...》

소장은 그닥 흥미가 없는듯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 관리원도 좋은 여자였는데... 석달전 그 녀자가 원인 모르게 사직을 한 다음다음날 명숙동무가 입직을 신청하더군요. 제기되는것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술이 있다 보니 여러 모로 도움이 많습시다.》

채명학은 신고를 받은 토요일 아침에 본적 있는 《ㄷ-27》의 시제품사진이 떠올랐다.

(사진사가 관리원을?...)

그는 전 관리원의 사직과 고명숙의 입직이 단순히 해석되지 않았다.

《전 관리원은 어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경화거리에 있는 <단풍상점> 직원으로 들어 갑니다. 집도 가깝고 수입도 괜찮은 곳이지요.》

《네... 그럴수 있지요.》

채명학은 동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자기 세계에 빠져 버렸다. 안개속에 가리워 졌던 어떤 물체가 점

차 본래의 모양새를 드러내 보이는듯한 환각에 잠기었다.

문득 경비원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전주 수요일날 한두칠이 무슨 실험을 하느라고 네명의 성원들과 함께 퇴근을 늦게 했다고 한다. 연구사들과 조수들... 그들속에는 관리원도 끼워있었다. 금요일, 소장의 방에 대한 침입사건이 있는것으로 짐작되는 날 밤에도 한두칠은 늦게 퇴근했다. 그날 관리원은 오후 중간시간쯤에 연구소에서 나왔다. 무슨 일때문인지 밤 9시경까지 접수실에서 그 녀자를 기다리던 한두칠은 《못 오겠으면 전화라도 걸것이지.》 하며 뒤늦게 집으로 갔다는것이다.

(고명숙이!... 수박색 코트! ...수요일... 금요일...)

소장에게서 전 관리원과 고명숙의 집주소를 알아낸 채명학은 《연구자료》문제를 채삼 상기시키고 나서 그의 방을 나섰다.

소장의 바래움을 받으며 걸음을 옮겨 가던 그는 복도 중간쯤에서 관리원과 어기였다. 녀인은 일부러 멈추어 서서 공손히 한옆으로 비켜 주었다.

청사출입문을 나서려던 채명학은 은연중 뒤를 돌아보았다. 그를 지켜보고있던 관리원이 책 돌아서서 총총히 걸어간다.

(흠, 정상이 못되는 눈길이군. 저 녀자를 돌봐주는 친척이 있다고 했지. 친척이라!...)

채명학이 부서로 돌아온것은 새벽 1시였다.

그는 전 관리원네 집에도 찾아 가보았고 고명숙이 살고 있는 고충살림집에 들러 그곳 인민반장과도 오랜 시간 마주 앉았다.

전 관리원녀인의 고백은 생활에선 우연이 있을수 없다는 론리를 보다 확증해주는것이였다. 식구들이 많아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리용하여 적지 않은 물질적방조를 주면서 그 녀자를 《단풍상점》에 소개해 준것은 고명숙이였다. 녀인은 한번도 만나 본적이 없지만 고명숙에게 모모한 기관에서 과장으로 사업하는 친척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고명숙이네 인민반장과의 담화도 채명학에게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다.

웬일인지 고명숙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었다. 인민반사람들속에선 젊은 녀자가 내놓고 말할수 없는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남다른 런애의 곡절이 있는것 같다거나 하는 풍설이 나돌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적하게 살아 가는 녀인에 대한 동정이었다. 인민반장만이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독신녀자의 생활을 놓고 오래전부터 견해를 달리해 오고 있었다. 고명숙은 인민반장네 집 웃층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웬남자가 깊은 밤에 고명숙이네 집으로 찾아 왔다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곤 한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인민반장밖에 없었다. 그런날이면 웃집 창가

에서 피이한 음악소리가 간간이 들려 오곤 했다.

일요일 저녁 친정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 오던 인민반장은 뜻밖의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길을 질러 오느라고 골목길로 걸던 녀인은 자기네 고층살림집으로부터 50m 가량 떨어 진 어둡컴컴한 곳에서 무릅 멈추어 섰다. 승용차에서 내린 웬 남자와 녀자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두사람이 열광적으로 포옹하는 것이었다. 제쪽에서 당황해 진 인민반장은 황황히 고개를 돌리었다. 걸음을 다그치던 녀인은 등뒤에서 들려 오는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교태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가 귀에 익어 몇번 뒤돌아 보았다. 남녀의 모습은 어둠속에 묻혀버리고... 얼마후 골목길쪽에서 한대의 승용차가 빠져 나왔다. 녀인은 승용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 운전수를 여겨 보았지만 정확한 인물표상을 가질수 없었다. 대신 차번호만은 똑똑히 보았다. 고층살림집앞에 다달은 녀인은 골목길쪽에서 나와 스무뎃걸음 먼저 현관계단을 향해 마주 오는 고명숙을 알아 보았다...

오늘 저녁 동에서 포치된 사업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웃집에 들어 갔던 인민반장은 본의 아니게 또 고명숙이 전화로 누구와 주고 받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10만팔라를 쥐기가 땀이 나는군요. ... 127을 어떻게 할가요? ...》

채명학은 그 말의 뜻을 어렵지 않게 풀이해 냈다. 바야흐로 어떤 일이 마무리단계에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것, 127 즉 한두칠에 대한 또 한차례의 음모가 꾸며 지고 있다는것을...

인민반장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고 난 채명학은 그 달음으로 《금강회사》 담당보안원을 찾아 갔다. 승용차번호가 《금강회사》 의 것이었던것이다. 퀘도전차도 뛰지 않는 한밤중에 전화로 주소를 알아가지고 30리길을 걸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 한순간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잃을수 있고 만회할수 없는 결과를 빚어 낼수도 있었다. 낮익은 골목길, 외롭게 불이 켜진 자기네 집앞을 지날 때 걸음이 떠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으나 강심을 먹고 주춤거리지 않았다.

보안원에게 있어서 자기 위안의 관대성, 다음번이란 항상 범죄자들이 꼬리를 사릴 기회를 주는것으로 된다. 사건추적은 달리기선수처럼 결승선에 들어 설 때까지 중간휴식이 없어야 한다!

몸은 비록 녹초가 되었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단서였다.

고명숙이네 고층살림집부근에 승용차를 타고 왔던 《금강회사》 파장 박병덕, 해당한 수속을 끝낸 그는 회사의 독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외국출장을 삼일째 늦잡고 있었다. 그가 가게 될 나라는 한두칠이 기술대표단성원으로 나가 있던 린접국가였다. 어제밤 박병덕은 출장준비를 위해 부서 대기용승용차를 타고

하루종일 이곳저곳 돌아 다니다가 자정무렵에야 회사에 도착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첫시간에 《금강회사》 담당보안원이 찾아 와 박병덕이 래일 오전 비행기편으로 외국출장을 떠난다는것을 알려 주었다.

그렇다면?!...

채명학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연구소에 이른 그는 소장과 간단히 수인사를 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안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소장에게 책상위의 물건들이 제대로 있는가 보라고 했다.

어지간히 놀란 기색으로 책상앞으로 다가간 소장은 흠칫 몸을 떨었다. 《연구자료》 표지우에 놓인 색연필의 위치가 조금 변했다고 한다.

채명학은 묵묵히 《연구자료》와 색연필을 옮겨 놓고 고명숙이 만지던 고무나무잎 두개를 뜯어 종이에 조심스레 싸 놓았다.

대상인물은 처음이나 이번이나 거의 무시될수 있는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한셈이다.

(고명숙!... 그만하면 동작이 맵시 있어. 비슷한 수법이 거듭되면 반드시 자리가 난다는걸 모를뿐이야.

《ㄷ-27》의 실험을 이틀간 했다고 했지. 수요일날 고명숙이도 실험에 참가했고...)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그는 쏘파에 앉았다.

《소장선생님, <ㄷ-27> 시제품들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시제품을요?- 그건?!...》

여유작작하고 만사를 무난히 다룰줄 아는 소장이었으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졌다. 보안원의 요구를 받아 들일수 없어서가 아니라 미치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였다. 그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금고열쇠를 열었다. 《ㄷ-27》이 들어 있는 수지박을 들고 책상앞으로 간 그는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들었다. 시제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해 보던 그는 네번째 소자를 오래동안 들여다 보더니 확대경을 떨구었다.

《보안원동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네번째 소자를 쳐들어 보여 주었다.

《이게... 이게 가짜입니다!》

채명학은 소장에게서 모조품을 받아 들고 다른 소자들과 대조해 보았다. 신통스레 제작된것이어서 차이점을 가려 볼수 없었다. 소장이 설명해 주어서야 쥐며느리발처럼 촘촘히 붙어 있는 단자들의 규격이 약간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소장은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시제품들을 금고안에 도로 넣고 담배 한대를 태울 때까지도 그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

《소장선생님, <ㄷ-27> 연구자료가 혹시 판 통로로 새여 나가지 않았을까요?》

《난 도무지 뭐가 뭔지… 두칠동문, 그 사람은 내가 잘 압니다. 그는 믿을수 있습니다! 목숨 같은 자기 창조물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지요. <C-27>을 팔아 먹을 그럴 비열한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레를 들면 두칠연구사가 계산자료나 오작도면 같은것들을 휴지통에 버렸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수도 있지요. 모조품을 만들어 바꿔 넣은걸 보면 여간한 재간이 아닙니다.》

침묵속에서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소장이 불시에 이마를 짚고 있던 손을 뺄 내저었다.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두칠동문 도면을 두번 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계산자료나 리론적서술은 누구도 해독할수 없습니다. 그는 다섯개나라 외국어단어들을 뒤섞어 가며 자기만이 아는 표기법으로 연구자료들을 종합하군 합니다. 두칠동무와 근 10여년간 함께 일해 온 나도 그의 기초자료를 번역정리하라면 손을 들고 말겠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채명학은 안도의 숨이 나왔다.

범죄자들이 돌발적인 광기를 부린것은 막다른 골목에서의 리성을 잃은 행위였다. 내버려진 휴지들에 대한 조사는 할 필요가 없었다. 한두칠의 방에서 나간것들은 고명숙의 손에서 체계적으로 선별처리되었을것이다.

그는 시병원에 전화를 걸어 리옥금을 찾았다. 환자의 치료정형을 듣고 한시간후에 구역보안서에서 만나자고 했다.

…구역보안서에 돌아 온 채명학은 증거물들을 기술감정에 의뢰했다.

부서에서는 리옥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관리원 고명숙이 면회를 왔었다고 한다. 그 녀자가 돌아 간 후 병원담담보안원이 음식꾸레미를 회수해 갔다. 어제 밤 웬 사나이가 전화로 직원의사를 찾아 한두칠의 치료과정을 세세히 묻더라는것도 알려 주었다.

《이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리라!…

총소리가 울리지 않는 심리적대결은 예선이 끝나고 본선경기에 들어 간것이다. 결승경기시간도 멀지 않았다.

박병덕의 사진을 책상사랍에서 꺼낸 채명학은 그것을 리옥금에게 보여 주었다.

《아주머니, 이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까?》

사진을 받아 든 녀인은 전기에 감전되길라도 한듯 흠칫 하며 몸이 굳어 졌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녀인은 말끝을 잊지 못하고 툭췌 주저앉았다. 사진을 또 한번 찬찬히 보고는 뒤집어서 멀찌감치 밀어 놓는다. 차마 입에 올릴수 없는 사연이 있는것

같았다.

(역시 예견한바대로군! 남자의 사진을 보고 저렇게 놀랄 땀… 거의나 동년배라고 할수 있는 두 사람의 나이! 녀성, 가정부인… 《최후의 진술》과도 같은 그러한것일것이다. 생활에선 청춘시절에 입은 실련의 상처를 나이 들어 헤쳐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는가. 마음의 마지막 문, 그 문을 열어야 한다!…)

채명학은 짧은 시간동안 참으로 힘겨운 일에 시달려야 했다. 하여 끝내 리옥금의 심장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박병덕은 리옥금의 옛 《애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려행도중에 만난 길손들처럼 우연적인것이였고 또 그렇게 무르익어 가다가 리해관계의 차이로 하여 줄지에 사그라져 버린, 순결한 처녀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겨 준 되새기기조차 괴로운 추억이었다. 파렴치하고 독살스러운 심보를 가진 박병덕과 전혀 다른 형인 《시골서생》같은 한두칠과 결혼하게 된것을 봐도 그렇고… 그때부터 리옥금의 마음은 모질어 졌다. 실패한 사랑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모든것을 이전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선택했고 실천했다.

사람들속에서 《변덕스러운 피벽한》 녀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격상으로 보면 리옥금을 리용하는 편이 유리했을텐데 박병덕은 왜 시종 이 녀자를 피했을까? 피했다는것은 접촉했다는것일수 있다. 적어도 한두번은… 그 결과란! …불 꺼진 화로처럼 된 사랑에서 너그러운 리해가 생길수 없지. 녀성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더 클테니까.)

녀인이 진정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채명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을 지고 창가로 다가갔다.

《아주머닌 최근 얼마전에 박병덕을 만난적이 있었지요?》

《네?!- 저… 저-이…》

《인간의 리기심은 수치를 모릅니다. 더우기 박병덕과 같은 쓰레기들은… 필경 아주머닌의 단호한 립장앞에서 도리를 떨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을것입니다. 아주머닌… 집에 전화를 걸어 온 <이상한 목소리>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겁니다.》

리옥금이 종주먹을 입가에 올리고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그걸…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주머닌 모든 사실들을 말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숨기려 했습니다. 오늘에 한 말을 그때 이미 했어야 했습니다!…》

리옥금은 책상우에 어푸러져 공공 갑자르며 흐느끼었다.

《보안원동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제가 죄 많은 녀자였습니다.》

(너자들의 자기보호의식이란 참!... 하긴 그래서 여성인걸.)

채명학은 아래입술을 깨물며 두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이상한 목소리》라는 신과국이 그래서 연출되었군!...)

창가에서 돌아 선 그의 얼굴에는 근엄한 기운이 이리였다.

《아주머니, <이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병덕이었습니다. 주인의 <고향친구>로 둔갑한 이자는 아주머니의 운명을, 가정을 오늘의 지경에까지 몰아 온 파괴자였습니다!》

리옥금은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전신을 화들화들 떨었다.

《다 저때문이었습니다. 책밖에, 과학연구밖에 모르던 그이가!...》

리옥금이 못지 않게 가슴이 저리도록 모진 아픔을 느끼면서도 채명학은 참기 어려운 진통을 멈춰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야 의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의 영양으로 병균을 키우고 그것이 왕성한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비통한 마음으로 죽음의 문을 두드린답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법은 의학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앞에서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보안원동지!...》

짓눌린듯한 너인의 울부짖음소리가 방안을 울리었다...

기술감정결과는 인차 나왔다. 증거물에서 연구소 소장과 고명숙의 지문들이 현출되었다.

이것으로써 사건이 종결단계에 들어 섰지만 채명학에게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었다.

(박병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것은 어떤 자들일까? 그가 봉사하는 곳은 어디일까? 적들에게?... 한두칠이 기술대표단 성원으로 나가 있던 나라의 경제부문 일군들과 거래를 할수도 있지 않는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고 같은것이. 썩은 고기에는 쥐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이니까.)

평양비행장 대기실은 ××행 정기객기를 타게 될 손님들과 바래 주러 나온 사람들로 법석 끓고 있었다.

손님들이 줄을 지어 비행장으로 나가고 있었다. 검은 밤색에테안경을 낀 신사들의 사나이만이 마지막손님이 나갈 때까지 개찰구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세관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것이다. 그를 바래 주러 나온듯한 수박색코트차림의 너인이 입언저리

에 가져다 댄 손을 떨고 있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둔중한 소음을 남기고 육중한 은빛날개를 쳐든 려객기가 몇초만에 하나의 점으로 되어 버리더니... 하늘공중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떠나지 못한 손님은 얼굴색이 퍽퍽하게 질려 대형트렁크를 들고 나온 두 젊은이와 함께 대기실밖으로 나갔다. 그를 바래 주러 나온 너인도 날과람있게 생긴 청년의 뒤를 따라 허청허청 걸어 갔다.

대기실밖에 서 있던 두대의 승용차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고 서서히 미끄러져갔다. ...

고구역인민보안서 수사과 사무실에는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연구소 소장, 리옥금, 《은하수상점》 판매원, 고명숙이네 인민반장, 전 관리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한두칠이도 의사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한걸음 늦게 증인으로 참가했다.

어딘가 지성인의 체취가 풍기는가 하면 날카롭고 대바른 성품이 엿보이기도 하는 젊은 보안원대위가 두 범죄자들앞에 나섰다.

소장의 방에 두차례 침입했던 고명숙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의 사리정연한 론거, 한두칠이네 집에 걸려 오군 한 《이상한 목소리》의 내막, 《ㄷ-27》 시제품과 허위연구자료를 촬영한 필름 등 과학적인 증거물들앞에서 박병덕과 고명숙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했다.

채명학은 시병원 담담보안원이 가져 온 음식구레미와 한두칠이 마셨던 술병을 책상우에 펼쳐 놓았다. 암갈색바탕에 금박으로 글자들을 찍은 담배갑, 희귀한 남방과일들, 색스럽게 포장한 당과류들과 통줄임통들...

채명학은 술병과 담배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병덕, 당신이 직접 이 술과 담배의 내용을 말하시오!》

박병덕은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기여 들어 가는 목소리로 떠듬거렸다.

《술을 마시면 ... 한시간후에 심장마비증상으로 ... 담배를 석대이상 피운 사람은 점차... 기억력이 마비되면서...》

그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한두칠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갔다. 비칠하며 쓰러지려는 그를 소장이 겨우 부축했다. 리옥금은 《아!-》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손가락 째름으로 하얗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날 박병덕이 쓴 《자백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현시기 나라가 겪고 있는 시련이 일시적인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는 사상적변질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라에 자주 출장을 가군 한 나는 그곳 관계자들의 환대를 친절한 례의로 받아 들였고 <써비스>로 찢려 주는 딸라를 선의로 여기고 몽청몽청

받아 먹었다. 나중엔 그네들의 가련한 노복으로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갇혀서 빠진 나는 별수 없이 ○○연구소 비밀을 내탐할때 대한 과업을 받았고 특히 연구사 한두칠을 틀어 쥐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리옥금에게 접근하려던 시도가 처음부터 단절되자 나는 한두칠의 가정생활과 취미, 고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지난해 열린 국가과학기술전시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첫 상봉시에 <고향친구>가 된 우리는 만나는 회수가 잦아 졌고 그때마다 술좌석에서 그의 웃주머니나 가방에 나의 돈이 들어 가곤 했다. 말하자면 돈앞에선 절간의 부처도 웃는다고 했듯이 그만하면 한두칠이도 나처럼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품을 넣어 ○○연구소에 들어 보낸 고명숙으로부터 <ㄷ-27>개발소식을 통보 받은 나는 ××나라에 인츰 정보를 제공했다. <ㄷ-27> 시제품과 기술테라를 빼내라는 긴급지령이 곧 떨어 졌다.

…첫 시도에서 고명숙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돈을 미끼로 한두칠에게 정면공격을 했으나 천만뜻밖에도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나와 달리 그에게는 어떤 처지에서도 넘어 설수 없는 자기 울타리가 있었다. 위협과 공갈도 먹어들지 않았다. 그는 나와서 절교를 선언했고 짧은 상면조차도 거절했다.

회사에서는 출장을 독촉하고, 고명숙으로부터 위

협신호를 받은 나는 어차피 한두칠을 없애 버려야 했다. 이것도 실행할수 없게 되자 예비수단을 썼다. 그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고명숙의 《자백서》에는 박병덕과 치정관계를 맺으면서부터 극도로 타락되어 버린 어지러운 과거사가 열거되어 있었다. 때이른 나이에 벌써 박병덕의 향락의 희생물로 전락된 년은 방탕과 치부에 미쳐버린 《정신분열증》 환자나 다름이 없었다. 종당엔 몇푼의 딸라를 위해 당과 조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리적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채명학은 어금이에 지그시 힘을 주며 《음!-》하고 웅글은 소리를 냈다.

가슴이 후둑후둑 뒸다. 얼굴에 식은 땀이 쪽 내동는다.

이 며칠동안의 피로가 겹쳐 들어 피발이 진 그의 두눈에서 섬광 같은것이 번쩍했다.

채명학은 두주먹을 틀어 쥐고 심장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안된다! 그 어떤 놈들의 책동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지 못한다. 절대로!… 절대로!…)

사무실 뒤마당으로 나간 그는 아름드리 미루나무 앞에 멈춰 섰다. 터슬터슬한 나무껍질을 짹 그러쥐고 푸르른 하늘을 향해 아스라하니 치솟아오른 억센 줄기의 웃수리를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상식

《트로이목마》

《트로이목마》란 대렬내에 기여 든 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전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유래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10년동안에 걸쳐 싸움을 벌렸다고 한다. 그리스군은 트로이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트로이성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도하였으나 성문을 열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무렵 그리스군에서 묘안이 나왔다.

그들은 나무로 커다란 말을 만들고 그속에 50명의 용사들을 넣어 밤중에 은밀히 트로이성문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마치도 전쟁을 그만두고 물러가는것처럼 계책을 꾸미었다.

트로이군은 이 목마를 그리스군이 《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성안에 끌어 들이였다. 그날밤 목마속에서 기회를 노리던 그리스군용사들이 나와 닫겨 진 성문을 열어 놓았다.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군은 성문이 열리자 성안으로 쳐 들어가 트로이군을 멸망시키고 성을 함락하였다.

심각한 교훈을 주는 이 고대그리스전설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대렬내에 잠입한 적을 가리켜 《트로이목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늘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사상적 《트로이목마》로 되고 있다.

《문명감각》

김청남

질은 회색안개속에 잠긴 서울의 일기는 칙몰하였다. 칙칙한 도시 상공에서는 벌써 며칠째 미지근한 보슬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악몽속같이 느껴 지는 날씨였다.

그날 오후 5시경 청와대 주차장은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떠나가는 각양각색 승용차들의 발동소리 동안 소란스러웠다. 미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주최한 장, 차관급 이상의 정계 각료들과 경제계 거두들의 회의가 방금 끝난것이다.

차들이 절반나마 빠져 나갔을 무렵에 유표한 미국산 검은 색 《포드》 한대가 조용히 주차장을 떠났다. 질은 안개속을 더듬듯 저속으로 달리던 검은 색 《포드》는 변화한 백화점앞의 네거리를 유유히 돌아 고관촌인 XX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차안에는 최고급의 레복차림을 한 반대머리의 중년남자가 말 한마디 없이 좌석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교통상부의 백성달차관이였다. 희멀건 얼굴의 백차관은 무슨 생각에 골몰한듯 목직해 보이는 대머리를 차창쪽으로 기우뚱한채 줄곧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축축히 젖어 있는 근시안의 눈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것에 대한 깊은 사색속에 잠겨 있는것 같았다. 기실 백차관은 요즘 그럴만한 상황속에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대통령》의 수행성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그의 불 같은 욕망의 실현 여부가 지금까지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던것이다.

그가 이번에 필사적으로 대통령을 따라 미국을 방문하려는데는 일신상의 중요한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50대 중반기에 이른 현재까지 고작 차관직이거나 그 아래자리에서 맴돌면서 오랜 세월 고달프게 헤엄쳐 온 백차관이였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수행성원으로 따라 가게 되면 미국정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적극적인 《물밑의교》를 벌려 장관급이상으로 승진할 확실한 길을 터보려는것이였다. 10대의 청소년시절부터 미국을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로 숭상해온 그로서는 승산있는 작전이라고 타산하고 있었다. 백차관에게는 그 다음 또 하나의 다른 절박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였다. 달포전에 백차관부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19살의 외동딸 백에리스가 미국의 바레무용학교 입학시험 응시차로 집을 떠나갔었다. 그런데 바로 그 딸애가 입학시험과 인물심사에서 키가 작아 바레무용수로는 전망이 없다는 학교측의 최종평가

로 락선되었다는 불길한 소식을 며칠전에 전화로 알려 왔었다. 그때 응석받이 딸애는 송수화기를 쥔채 울면서 절망속에 사느니 차라리 여기 미국땅에서 죽고 싶다고 했다. 그날부터 백차관부부는 불안과 초조속에서 전전공공하며 침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딸애의 미국류학문제도 현지에서 원만히 수습하려는것이 백차관의 두번째 주요목적이었던것이다. 물론 백차관의 내심의 이 절박한 목적들은 미국을 공식방문하는 《대통령》의 수행성원속에 그가 포함되는 경우라야 실현 가능한것이였다. 그런데 무슨 리유때문인지 청와대에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출발날자, 방문기일, 수행규모, 그 성원...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최한 청와대회의였던만큼 백차관은 큰 기대를 안고 참가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먹자판회의를 벌려놓고 《세계화제로의 도약》에 대해서만 일장연설을 토하였다. 내심 실망한 백차관은 먹자판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측근에 있는 미국류학시절의 옛 동창생에게서 그 어떤 모종의 암시라도 받아 보려고 그를 잠간 만났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실패하였다. 대체로 시각적인 인상으로 무엇이든 판단하는 백차관은 알쏭달쏭한 동창생의 언행과 얼굴표정에서 흑백을 전혀 판단할수가 없었다. 하여 청와대에서조차 아무것도 알아 내지 못한 그는 지금 몹시 초조한 기분으로 차안에 침묵하고 앉아 있었던것이 다....

차창밖은 안개가 너무도 짙어서 전조등불빛에 비치는 두어걸음 앞을 제외하고는 주위가 마치 절벽같이 컴컴하있다. 승용차는 조심조심 기여 가듯 굼뜨게 전진하고 있었다. 백차관은 여전히 목직한 대머리를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에이, 그까짓 내가 안달복달할거는 없지, 언제나 무슨 문제든지 너편네가 나서면 성사 못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하고 그는 늘썩 그렇듯이 자기를 위안하였다.

미국의 하바드대학 류학시절에는 좀 우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견과 강한 자존심을 가진 만만찮은 성격의 백성달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결혼후부터 차츰 가소적성격으로 변해 너편네가 쥐락펴락하는대로 형태가 달라지더니 마침내는 무맥해 지고 마모되고 둔해 졌다. 자기가 없어지고 말았던것이다.

언젠가 동료들과 하급직원들이 모인 방에서 전화

를 받은적이 있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들자마자 즉시 《네...네...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황송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때 방안에 앉아 있던 동료들과 하급 직원들은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미국대사관 대사의 전화라도 받은 줄로 알고 긴장하여 숨소리마저 삼가하며 긴장해 있었다. 전화가 끝나자 입ぜん 한 동료가 《〈대통령〉각하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소?》 하고 부러움을 숨기지 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자 백성달은 《〈대통령〉각하는 무슨... 글썄 내 처가 전화를 걸어 왔더군만!...》 하고 기분 좋게 히죽이 웃었다. 순간 동료들과 하급 직원들은 일시에 아연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랬지만 백성달은 태연한 어조로 《자네들 알아두라구! 처한테는 그저 지는체 해두는게 상책이라니...》 하면서 제만의 인생철학을 풀어 댔다. 방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도 어이없어 침묵하고 말았다.

(바보도 12가지 바보가 있다더니 정말 별난 바보도 다 있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차관은 동료들과 부하직원들속에서 《마담의 그림자》, 《처의 노복》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백차관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그런 따위 조소와 야유, 비난과 헐담들에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였다. 왜냐하면 마모되고 둔해 지고 자기가 없어진 그로서는 《마담의 그림자》라는 너절한 별명을 별로 수치로 여기지도 않았을뿐만아니라 그것을 내심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럴만도 하였다. 백차관의 처 문명숙은 그와 동기동창의 미국류학 출신으로서 제단에 관찰력과 판단력이 기업가들의 공리감각을 통가하며 사리에 정통하고 세상물정에 밝고 특히 《문명감각》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임을 뽐내는 여자였다. 오래전에 있던 일이지만 그 여자는 미국류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비행장에서 웅성대는 본국 사람들을 향해 류창한 영어로 《미개한 <한국>것들... 저따위 <한국>것들은...》 하고 어찌구저찌구 모욕적인 발언을 꺼리낌없이 하였었다. 그래 분격한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떠들썩할 때 한 기자가 다가가 귀국감상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서슴없이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한국>인으로 태어 난것을 수치로 생각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한때 온 언론계와 사회계에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 여자 자신은 눈섭 하나 까딱 않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했었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그 여자는 미국여자처럼 금발의 가발을 쓰고 옷차림이며 화장까지도 그렇게 하고 다녔다. 그렇기때문에 얼핏 보면 미국녀자로 착각할 정도였다. 집안에서나 밖의 그 어느 장소에서나 반드시 영어로만 말하는 그 여자는 미

국식생활양식을 따르는것이 곧 《문명감각》임을 철칙처럼 믿고 있었다. 그는 얼굴의 코가 조금 작아 비록 락선은 되었지만 한때 국내 미인콩쿨에도 출전한바 있었는데 동양녀성으로서는 비교적 큰 키와 미끈하고 보기 좋게 실박한 몸에 마치 발동기가 들어 있어 쉬지 않고 돌아 가면서 위력을 발휘하는것같은 활동적인 녀자로 유명하였다. 가정에서 무사태평하게 지내는것처럼 보이는 그 녀자였으나 남편의 승진과 업무에서의 중요 문제, 집안의 큰일 작은 일, 지어 녀성친구들의 그 어떤 힘든 부락까지도 그가 일단 마음 먹고 나서기만 하면 성사시키지 못하는것이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많은 고관 녀편네들이 그에게서 조언을 받으려고 자주 찾아 오곤했다....

검은 색 《포드》 승용차는 드디어 안개속의 비스듬한 언덕을 넘어 철책을 둘러 친 2층 양옥집앞으로 다가갔다.

(음, 그래,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건 없지... 이번에도 녀편네가 나서서 다 성사시킬게야...) 하고 백차관은 어느새 초조한 생각에서 벗어나 무사태평한 표정으로 차안에 앉아 있었다.

철책문이 열리자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차고앞에 바짝 다가가 멎어 섰다. 백차관은 차문을 열고 보슬비 내리는 밖으로 나왔다. 희멀건 얼굴에 기쁨기가 번질번질하고 통통한 몸집의 그는 마치 그 어떤 버섯을 련상케 하였다. 그는 트락에 잠시 서서 정원쪽을 바라보았다. 숨씨 있게 다스린 상록수들과 련못의 멋진 분수며 그결의 정각... 미국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설계한 정원은 언제나 그를 흐뭇한 기분에 잠기게 했던것이다.

이윽고 그는 아래층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 복도에는 식모 겸 잡부로 고용된, 나이를 대중할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녀자가 그를 맞으려고 서있었다.

《마담 집에 있어?》 하고 백차관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보슬비에 축축히 젖은 대머리를 닦으며 위엄이 느껴 지는 어조로 그에게 물었다.

무표정한 그 녀자는 말없이 눈길로 2층을 가리키며 머리를 숙였다.

백차관은 뚜걱거리는 구두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극력 조심하면서 2층으로 올라 갔다.

2층 로대에는 금발의 그의 처가 애완용개를 안고 미국제 흔들이의자에 앉아 있었다.

《왜 그리 늦었어요? ...당신도 <대통령>수행원속에 들어 갔대요?》 하고 금발의 그 녀자는 지금껏 초조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만큼 야별찬 시선을 남편의 희멀쭉한 얼굴에 쏘아 박으며 정확하고 세련된 영어로 물었다.

순간 백차관은 무엇에 얻어 맞기라도 한듯 주춤하고 멎어 섰다. 그 다음 발을 저저 디디며 서슴서슴 처의 앞으로 다가갔다.

《허, 오리무중이요, 아직도 애매모호한 안개속이 드란 말이여...》 하고 백차관은 어름어름 기 죽은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한데 <대통령>각하가 당신을 대단히 높이 평가 하더구만...》

그러자 금발의 그 녀자는 갑자기 애완용개를 안고 흔들이걸상에서 발딱 일어 서더니 말없이 방안으로 휙- 들어 가 버렸다. 그러더니 몇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로대로 나왔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내앞에서 그따위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해요? ... <대통령>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뭘 높이 평가하고 말고 했단 말이에요?...》 하고 금발의 그 녀자는 발끈하여 소리쳤다.

백차관은 즉시에 매여 달리는 듯한 눈길로 그를 쳐다 보면서 웅얼웅얼 뇌었다.

《원, 거짓말이라니, ... <대통령>각하는 오늘 청와대회의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지어 국민들의 가정생활까지도 <세계화>에로 매진해야 한다고 새로운 국책을 내놓았던 말이여... 그러니 이미 <문명감각>에서 <세계화>의 수준에 이른 당신을 높이 평가한것이 아니고 뭐겠소. ... 그래 나도 슬그머니 궁지감이 솟구치드란 말이여...》

금발의 녀인은 불시에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뭘라구요? 뭘 새로운 국책?... 문명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따위것은 상식으로 된지도 오래어요!-》

그 녀자는 경멸에 찬 눈길을 남편의 희멀쭉한 얼굴에 다시 송곳처럼 쏘아 박으며 작고 납작한 코를 바르르 떨었다. 사실상 처녀시절부터 이미 모든 면에서 미국식사고방식으로 생활해 온 그 녀자에게는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력설했다는 《세계화》가 별로 새롭게 느껴 질수 없었던것이다.

《허, 역시 명석한 당신의 론리앞에서는 어쩔수 없구만, 웁소, 당신에게나 내게는 <세계화>가 뭘 새로운 구호는 아니지!-》 하고 백차관은 주뭉뭉치쳐 쳐다 보며 탄복하는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녀자는 여전히 자그마하고 납작한 코를 바르르 떨면서 떠들어 댔다.

《그만해요!... 어디 우리가 지금 이러구 있을 때예요? <대통령>은 이제 얼마후에 곧 미국으로 출발한다는 소문인데 당신은 아직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땅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에리스도 그렇고 당신의 결정적인 승진문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란말이에요. 뭘 당신이 지금 20대인가요, 아니면 30대예요? ... 어서 말해보라니깐요!-》

백차관은 레의 목직해 보이는 대머리를 한쪽으로 기울듯하고 입에 돌맹이를 넣은것 같은 얼굴로 잠잠하였다.

《아이 답답해, 무슨 사람이 그래요? 극적인 운명 전환의 기회에 그렇게도 무뎡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겠어요?... 당신이 <대통령>의 수행성원으로 미국에 가면 나는 교수술까지 하여 미국녀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지에서 당신의 일을 도울 결심인데... 참, 답답두 하네요!-》 하고 그 녀자는 초조한듯 혀를 차며 버릇처럼 납작한 코를 바르르 떨었다.

그러자 백차관은 문득 그 어떤 단호한 용단이라도 내린듯 처의 가까이로 뚜벅뚜벅 다가 갔다.

《어쩌겠소, 이번에도 당신이 잘 조치해 주오. 내야 늘쌍 당신의 우산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무फल충!... 어쩔 당신은 점점 바보가 돼 가요?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그 녀자는 얼마간 누그러진 표정으로 백차관을 새삼스레 연구나 하듯 찬찬히 여겨 보았다.

《웁소. 말 잘했소! 정력적이고 명석한 활동가인 마담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영낙없는 바보고 멍텅구리라고 해도 무방하지...》

백차관은 성도 내지 않고 서슴없이 인정하며 극도의 저자세를 취하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꾸며 낸 거짓태도가 아니었다. 처와 이야기하고 있느라 어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늘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비굴해 지는 백차관이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존심이나 궁지감, 이른바 자기라는것을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 버린것 같았다.

순간 그 녀자-문명숙의 하얀 얼굴에 쓰겨운 듯한 미소가 떠 올랐다. 그렇다, 아무리 남편을 비난하고 경멸해 보았댔자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항상 그렇게 지내 왔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 온것이다. 이번에도 그 녀자는 자기가 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호, -어쩔수 없지...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요. 미국에 있는 에리스에게서 무슨 긴급소식이 올수도 있으니... 내 이제 토마스선생을 만나고 오겠어요. 아무래도 그의 도움을 받아야 이번 일을 성사시킬수 있어요!-》

그 녀자는 휘익- 바람을 일쿠며 엉뚱이에 불이라도 달린듯한 걸음으로 옷을 갈아 입으려고 방안으로 들어 갔다. 백차관은 여전히 빙긋이 웃으며 로대에 서 있었다.

(그렇지! 토마스선생이 나서 주면 틀림없이 일사가 잘될게야!...)

서울주재 미국문화원의 요직에 있는 토마스는 어떤 인연으로인지 백차관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단골손님이였다. 백차관은 물론이고 더우기 그의 처 문명숙은 토마스를 스승으로 깎듯이 모시군 했는데 무슨 문제든 그의 방조와 조언을 받아 처리하였다. 그랬기때문에 이제 와서는 토마스가 동쪽을 서쪽이라고 해도 서쪽으로 믿었고 말을 사슴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게 되었다. 그만큼 백차관부부는 그를 숭배했던것이다...

외출복차림으로 방에서 나온 그 녀자는 값 비싼

금발의 가발을 흔들며 대머 불이 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탕- 현관문을 여닫고 밖으로 나왔다. 안개 자욱한 밖에서는 여전히 진절머리 나는 미적지근한 보슬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녀자는 익숙한 솜씨로 차고에서 승용차를 뽑아 내어 철책문을 나서자 미국문화원쪽으로 차를 몰아갔다.

얼마후 그 녀자는 안을 전혀 들여다 볼수 없는 황갈색유리의 커다란 창문들이 달린 미국문화원정문앞에 바짝 다가가 차를 세웠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금발의 그 녀자는 마치 정든 고향의 본가집에라도 들어 서듯 무척 흥겨운 얼굴로 청사안에 들어 서더니 거침없이 곧장 아래층의 두번째 방앞으로 다가가 익숙한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창밖의 질은 안개때문에 어스레한 넓은 방안에는 60대의 경충한 미국인이 정신병자처럼 혼자 싱글벙글 웃으며 탁상등을 켜놓은 책상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적송나무로 만든 번들거리는 책상우에는 그 자신이 잡아서 자빠뜨려놓은 당콩알만한 바퀴새끼 한마리가 무진 애를 쓰며 몸체를 바로 잡으려고 헛되이 련속 버둥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선생!》 하고 방안에 들어선 그 녀자는 사투리가 전혀 없는 정확한 영어로 인사했다.

《오, 마담, 어서 오시오.》

토마스는 얼핏 머리를 들어 응대하고 나서 여전히 책상우에서 버둥거리는 바퀴새끼를 내려다 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아이, 토마스선생, 또 <유쾌한 놀음>이시군요. 그게 그렇게도 재미 있어요?》 하고 그 녀자는 책상쪽으로 다가 갔다.

《마담, 단순한 뒤채기동작을 못해 죽어 가는 바퀴새끼를 보면서 난 독특한 쾌감을 느끼오.》

《호호...토마스선생, 날아 다니는 파리의 두날개를 잘라 버리고 책상우에서 보는 <유쾌한 놀음>은 안하세요?》

《방금전에 그 <놀음>을 끝냈소. 날개 잘린 파리는 곧 죽었소. 연약한 놈이더군...》

토마스는 탁상등쪽으로 굽혔던 길다란 허리를 쭉 펴면서 책상앞에서 일어 섰다.

《자, 마담, 저리로!-》 하고 토마스는 창가쪽 탁자결의 팔걸이의자를 가리켰다.

그 녀자는 스스럼없이 무릎우의 허연 흰다리를 드러낸채로 가위다리를 하고 거기에 앉았다.

《마담, 꼬냐크를 마시겠소? 아니면 위스키를 들겠소?》

《전 꼬냐크를 마시겠어요.》

《오, 참 마담은 도수 높은 꼬냐크를 좋아하지.》

토마스는 나직하니 소리 내어 웃으며 유리차창안에서 화려한 상표가 붙은 술병과 잔을 꺼내 들고 탁자결으로 다가 왔다.

《마담, 이상하게도 난 마담과 마주 앉으면 매년

화창한 봄날 같은 기분이요. 자주 외우는 말이지만 마담은 정말 시들지 않는 꽃 같은 녀성이거든!...》 하고 토마스는 탁자우에 잔을 놓고 술을 부으면서 미묘한 미소를 띠고 금발의 그 녀자를 슬쩍 바라보았다.

《아이참, 전 정말이지 토마스선생답지 않은 그런 룡담이 질색이에요!-》

그 녀자는 자기가 금시 한 말과는 정반대로 유쾌히 깔깔 웃어 대더니 토마스가 부어 놓은 유리잔을 들어 냉큼 마셨다. 그러자 토마스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하고 눈언저리에 웃음을 지으며 부어놓았던 술을 마시려고 잔을 들었다.

《토마스선생, 잠깐... 거기 술잔에...》 하고 그 녀자는 조급히 말을 덧붙였다.

《술잔에 파리가 빠졌어요!》

《뭐, 별로 놀라운것도 아니지...》 하고 토마스는 슬며시 잔을 쏴아 버리고는 다시 술을 부어 단숨에 마셔 버렸다. 그리고는 안개자욱한 창문밖쪽으로 시신을 돌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침묵했다.

《토마스선생, 전 선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고 그 녀자는 토마스의 잔에 술을 부으며 또다시 까르르 웃어 댔다. 토마스는 연마한듯한 웃는 얼굴로 말없이 그 녀자의 취기가 오르기 시작한 눈을 정면으로 쳐다 보았다.

《선생은 지금 이 녀자가 어떤 방조와 도움을 받으러 찾아 왔을가 하고 생각하시지요?...》

《헛허...》

불시에 토마스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마담, 손을 들었소! 마담의 문명감각의 섬세성과 투시력에 항복했던 말이요. 정확하오! 바로 그 생각을 했소.》 하고 그는 깨끗이 인정하면서 말을 덧붙였다.

《마담, 주저 말고 어서 말하오. 나야 마담일가의 오랜 벗이 아니요.》

순간 그 녀자의 취기 오른 발그레한 눈에 감동의 눈물이 번쩍었다.

《토마스선생!... 실상 우리 가정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겨 거룩한 선생의 도움과 방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또...》

《마담, 조금도 주저 마오. 우리 함께 그 고민을 털어버립시다. 나는 나를 스승으로 변함없이 대하는 마담의 일가를 예수가 열두명의 자기 제자를 사랑했듯이 사랑합니다!》 하고 토마스는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히 뇌었다.

《토마스선생, 고마워요!-》

그 녀자는 금시 울음을 쏟을듯한 얼굴로 모든것을 자초지종 토설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바레무용학교입학시험에서 낙선되어 절망속에 울고 있는 딸애문제와 무뎌하기 그지 없는 남편의 승진전망의 불투명과 속수무책...

그 녀자는 마지막으로 매달리듯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겨룩한 토마스선생, 전, 이처럼 불행한 여자랍니다!》

왼쪽 팔꿈치로 탁자를 짚고 턱을 손바닥에 고인 채 묵묵히 듣고 있던 토마스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마담, 그런즉, 요컨대 이제 우리 아메리카합중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의 수행성원속에 외교통상부의 백차관이 들어 있으면 다 풀릴수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니겠소?》

《그렇지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좀 도와 주세요.》

그 녀자는 토마스의 시선을 꼭 붙들고 애절히 호소했다. 토마스는 몇순간 잠잠하더니 이윽고 생각을 굳힌듯 탁자결에서 일어나 책상위의 전화기앞으로 소리없이 다가갔다.

《미국대사관 프레이지의 방에 대주십시오!》 하고 그는 송수화기를 들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실무적인 어조로 부탁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아직 날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곳 <대통령>의 우리 미국방문이... 열흘후에 출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성원 명단은?... 네, 거기에 외교통상부의 백성달차관이 들어 있습니까?... 백차관부부가 다 동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의 사업에 필요해서 문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토마스는 즉시 너그럽고 신사다운 표정으로 바꾸고 그 녀자의 앞으로 다가왔다.

《마담, 고민은 사라졌소!- 이제 열흘후에 백차관과 마담은 부부가 함께 <대통령>을 따라 우리 미국으로 가게 되오!》

《토마스선생,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그 녀자는 감격하여 레의 그 작고 납작한 코를 바르르 떨면서 웨치듯이 이렇게 말을 보냈다.

《토마스선생의 은혜를 전 정말이지 영원히, 일생토록 잊지 않겠어요!》

《감사하오. 하지만 모든것은 마담일가의 문명감각의 결과요. 정직히 말해서 마담일가처럼 그렇게 우리 미국을 열광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일가가 이곳 <한국>땅에 얼마나 되겠소? <대통령>도 아마 모름지기 백차관일가의 그 점을 중시했을거요. 오늘 청와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세계화>에 대해서 장시간 력설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말한 <세계화>란 본질에 있어서 곧 <미국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겠소. 이곳 <한국>의 력대 <대통령>들은 언제나 우리 미국대통령의 옷차림까지 그대로 본 따곤 하였소. ...자, 마담, 즐거운 기분으로 다시 한잔 같이...》

토마스는 높지는 않으나 펄 진지함이 느껴 지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술잔을 들어 올렸다.

《문명한 마담일가의 행복과 앞으로 만사가 다 잘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벗이신 토마스선생과 부강한 미국의 번영을 믿어 마지 않으면서!-》 하고 그 녀자는 감동으로 목소리를 떨면서 재빨리 토마스를 따라 꼬나크잔을 들었다. 그 다음 뽕-소리가 나게 잔을 쫓고는 서로 마주 보며 유쾌히 마셨다.

《참, 토마스선생, 저에게는 고명하신 선생의 귀중한 조언을 받고 싶은게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젠 제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실행할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선생의 귀중한 조언을 받고 싶은 심정이군요!》

그 녀자는 습관처럼 토마스에게 매달리듯 또박또박 끊어 가며, 그러나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래라듯 부르는듯한 즐거운 어조로 말했다.

토마스는 믿어 주어 고맙다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머리를 끄덕하였다.

《토마스선생, 전 이제 그리운 미국으로 떠나기전에 코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가 높은 완전한 미국녀성의 얼굴로 정든 미국땅을 거닐고싶어요.》

《대찬성이요!-》 라고 토마스는 떠들썩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그 녀자의 코를 눈여겨 보며 말을 계속했다.

《마담, 털어 놓고 말해서 난 마담을 오래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미국녀자로 착각할번 했드랬소. 흠잡을데 없는 세련된 영어, 크고 미끈한 체격, 금발머리, 거기에 또 희고 환하게 잘 생긴 얼굴... 한데 아쉽게도 다음 순간 그 크지 못한 코를 보고는 역시 아시아녀성이구나 하고 서글프게 생각하였소. 그렇기는 하지만 마담 미모의 그 약점을 꼬집어 말하는것은 신사답지 못한 실례의 말이어서 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소. 그런데 마담 스스로가 코수술을 하겠다고 하니 오늘은 인간의 코가 미적견지에서는 물론이고 문명의 척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것인가에 대해 내 조언을 주겠소!-》

토마스는 문득 결상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면서 마치 목사가 교인들앞에서 설교하듯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마담, 나는 몇해전 미국의 저 유명한 켄슨생리학박사의 저서를 읽은바 있소. 박사의 로고의 산물인 그 저서는 독특한 발견과 대담한 분석, 기발한 추리, 미문장들로 가득 차있었소. 저서에서 켄슨박사는 인간의 코를 진화와 문명의 척도로 규정하였소. 박사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소. ...<인간은 고도로 진화하고 문명해 질수록 코가 더욱 뚜렷해 진다. 소와 돼지의 코를 보라, 그것들의 코는 밋밋하고 몽롱하며 코구멍은 정면으로 나있다. 역시 인종간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 서양인과 동양인, 아프리카토인들의 코를 대비하여 보노라면 그가 누구든 스스로 인정하게 될것이다... 결론은 인간의 사유와 문명, 진화는 코의 형태와 정비례한

다는것이다.···> 마담, 나는 잭슨박사의 주장이 아주 정당하며 매우 이채로운 과학적발견이라고 지금도 확신하오!··· 마담, 인간의 진화 및 문명도의 견지에서 코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납득이 될거요. 그 다음 미적견지에서 고찰한 인간의 코, 특히 여성의 미에서 코가 차지하는 막중한 의의에 관해서는 저 유명한 빠스칼의 말을 인용하면 충분할거요. 즉···<만일에 에짚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코가 한치만 낮았다라면 유럽의 지도는 달라졌을것이다···> 마담, 내가 인용한 빠스칼의 말이 정확하오?》

《호호··· 토마스선생은 정말이지 다문박식도 하시네요!-》 하고 그 녀자는 무엇이 우스운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허리를 잡고 까르르 웃어 댔다.

《토마스선생, 그래서 말이에요. 전 래일 즉시 코정형수술을 하겠어요. 동감이지지요?》

《물론!···좋은 일은 될수록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있소.》

방을 거닐던 토마스는 근엄한 표정으로 다시 탁자로 다가와 결상에 앉았다.

《한데 마담, 어느 병원에서 미용수술을 받겠소?》

《글쎄요. 아직은 미처 그것까지는···》

《마담, 세브란스병원에서 할것을 권고하오. 그 병원은 우리 미국인이 세운 병원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거기에는 내가 잘 아는 존박사가 있소. 정형수술의 권위자요. 그를 찾아 가 내 이야기를 하면 특별손님으로 맞아 줄거요!》

《고마워요. 꼭 권고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토마스선생, 전 어쩐지 지금 록크음악을 듣고 싶은 심정이군요!-》 하고 그 녀자는 취기 어린 들뜬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혹시 선생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기꺼이!-》

토마스는 벌떡 결상에서 일어나 커다란 록음기가 놓인 서류함 앞으로 소리없이 걸어 갔다. 그때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들리더니 새파랗게 젊은 미국인청년이 방안으로 들어 섰다. 청년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좌우를 살피는 기색도 없이 곧장 토마스에게로 다가 갔다.

《워싱턴에서 방금 긴급 중요문건이 도착하였습니다.》 하고 청년은 총알처럼 빠른 어조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렇소?···곧 가겠소!-》

토마스는 얼마간 긴장이 느껴 지는 목소리로 응대하더니 정색한 얼굴로 그 녀자를 얼핏 바라보았다.

《마담, 미안하오.》

《아이, 오늘 제가 실례 많았어요. 그럼 전 이만···가보겠어요.》

문명숙은 춤이라도 추는듯한 걸음으로 흥겹게 팔

을 휘저으며 토마스의 방을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 그 녀자는 이래저래 기분이 좋아 연방 싱글벙글하는 백차관을 대동하고 승용차에 올라 세브란스병원으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문마담이시지요?··· 어제밤에 토마스선생에게서 전화편락이 있었습니까!》 하고 병원접수실앞에서 위생복을 입은 감때 사납게 생긴 40대의 미국인 의사가 의외에도 상냥한 미소로 그들 부부를 맞이했다.

《아, 그럼 존박사선생이시군요. 처음으로 뵙지만 박사선생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녀자는 방실방실 웃으며 금발머리를 까딱-하고 인사하였다.

《문마담, 수술준비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전에 본인의 의향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상담을 하는것이 상례이고 또 병원측의 준칙이기도 해서···》

감때사납게 생긴 존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하였다.

《백마담, 코정형수술에는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존박사는 시간을 뭉치 아끼는 사람인듯 그들이 결상에 앉자 직방 실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째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온 방법인 풀이식, 즉 동송이식으로 코대를 높이면서 크게 하는 정형수술이고 다음은 최근에 개발한 실리콘수지로 대신 사용하는 미용수술인데··· 마담은 어떤것을 요구합니까?》

《존박사선생, 의학기술면에서나 의료설비에서 세계의 최고인 미국의 병원들에서는 어떤것으로 코 미용수술을 해요?》

《네, 최근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이식방법 대신에 실리콘수지를 사용합니다. 대다수 손님들의 요구가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수술을 앞둔 그 녀자는 하얀 코를 눈에 띄게 바르르 펴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그녀자의 곁에 마치 무엇인가 깊은 사색이라도 잠긴듯 묵직한 대머리를 기우뚱하고 앉아 있던 백차관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웁소! 그게 좋겠소. 현대의학의 최고봉인 미국의 병원들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리콘수지로 할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 비례로 즉, 현재의 얼굴형태와 어느만큼의 비례로 코를 높이고 크게 정형 및 미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마담, 그건 본인이 결정할 근본적인것입니다!-》 하고 존박사는 묘사대상을 바라보는 초상화가처럼 그 녀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 보며 극히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건 말이지요. 명성 높으신 존박사선생에게 말

기겠어요. 저는 그저 제 얼굴을 미국녀자들과 꼭 같이 보이도록 해주길 부탁할뿐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랍니다!》

《좋습니다!-》하고 존박사는 드디어 견해가 명백히 선듯 결상에서 불쑥 일어났다.

《마담, 수술실로!- 그리고 백차관은 이제 가서 일을 보아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째서? …집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백차관선생! 미용수술은 생명에는 별로 위험이 없소. 그리고 마담의 수술은 잘 될것이니 믿으시오!-》하고 존박사는 돌연 감때 사나와 보이는 얼굴에 로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띠고 돌진하는듯한 걸음으로 앞장서 수술실로 들어 갔다.

《뭘 그렇게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요. 어서 가요!》

문명숙은 발끈하여 남편에게 내쫓듯 말하고는 획 돌아 서서 존박사를 따라 수술실안으로 들어갔다. …

그 녀자의 코미용수술은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았지만 수술대우에 움짱 앉고 말없이 누워있는 그 녀자에게는 마치 한세기 맞잡이처럼 지루하게 느껴 졌다. 마취주사의 효과로 얼굴 전체가 얼어 붙은듯한 뻣뻣함, 뒤따라 뜨끔뜨끔 살을 에이는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미국녀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자기 얼굴을 어서 빨리 보고 싶은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이 못 견디게 그 녀자를 초조케 했던것이다. …

《마담, 수술은 끝났습니다. 요구한바대로 다 잘 되었습니다!》

이윽고 존박사는 손에 잡았던 수술도구들을 대우에 놓으면서 흡족한 어조로 나직이 뇌었다. 그 순간 그 녀자는 곁에 서 있던 처녀간호부가 미처 부족할 사이도 없이 방금 수술을 받은 녀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힘으로, 놀렸던 용수철이 튕기듯 스스로 벌떡 일어 나더니 수술실벽의 커다란 거울앞으로 성급히 다가 갔다.

《아이참, 어쩌면…아!-》하고 그 녀자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한 목소리로 환성을 질러 대며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눈이 부신듯 쳐다 보았다. 자그마하고 납작한 코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대신 크고 뚜렷한 높은 코가 자기의 얼굴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던것이다.

《존경하는 존박사선생, 정말 고마워요… 참말로 전 지금 저의 심정을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랄가, …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미국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이예요. 존박사선생, 전 존경하는 선생과 아울러 신적인 미국의 높은 정형의학기술에 진정으로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요!》

그 녀자는 열에 뜬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웨치듯

이 말하면서 존박사에게 머리를 숙여 보였다.

《마담, 그렇다니 저 역시 기쁩니다. …모든것은 마담의 섬세한 <문명감각>의 덕입니다. 그런데 마담, 지금 수술직후인만큼 과격한 흥분이나 무리하고 지나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무조건 안정하면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간호부! 마담을 곧 입원실로 안내하십시오!-》하고 존박사는 역시 흡족한 목소리로 처녀간호부에게 지시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에 간호부는 그 녀자의 실직한 몸을 끌어 안다싶이 하고 잘 꾸려진 이미 예정된 특호실로 조심조심 안내하였다.

그 녀자는 폭신한 최신형침대에 누웠다. 잠시후 수술시의 마취효력이 끝났는지 그 녀자는 수술부위의 동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를 미리 예견하고 있던듯 때 맞추어 처녀간호부가 호실로 들어와서 그에게 강력한 진통알약을 먹인 다음 이어 주사를 놓자 그 녀자는 스르르 잠들었다.

얼마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녀자는 문득 미국녀자의 얼굴로 변한 자기 모습을 또다시 보고싶어 침대에서 일어나 입원실 벽에 걸린 거울앞으로 급히 다가 갔다. 윤기 흐르는 금발머리, 길다란 속눈썹, 우유빛 얼굴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높은 코… 틀림 없는 미국녀자의 모습이었다. 그러자 그는 가슴속에서 끝없이 솟아 오르는 기쁨을 진정할수 없어 방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가기 시작했다. 기분이 들뜬 그 녀자는 안면근육마저 풀어 졌다. 그러다가 종시 참아 내지 못하고 입원실벽의 복도로 나갔다. 그 녀자는 기분이 너무도 좋아서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는 초면인 환자들과 병원의 직원들에게 떠들썩 말을 걸면서 악수를 청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그 녀자는 장난감을 조르는 아이처럼 존박사를 졸라 대어 집에서 안정하며 수시로 전화련계를 가지기로 약속하고 병원을 나왔다. 그 녀자는 한시라도 빨리 친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모된 자기의 《문명》한 얼굴모습을 보여 주고싶었던것이다.

머리를 높이 들고 병원을 나선 그 녀자는 그 길로 토마스를 찾아 가 꼬냐크를 마시며 웃고 떠들면서 록크음악을 감상했다. 그 다음 이곳저곳 아는 사람들을 찾아 가서 높은 코를 쳐들고 통통한 주먹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줄곧 까르르 웃어댔다.

그날 저녁 그 녀자의 집에서는 흥겨운 연회가 있었다. 때마침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미국방문 수행성원들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백차관부부가 들어 있었던것이다.

연회에는 토마스를 비롯한 몇몇 미국인 남녀와 《정부》의 고관들도 참가하였다. 삼팡, 꼬냐크, 위스키… 광란적인 음악과 춤… 연회는 날이 밝을무렵까지 계속되었다. 두말 할것 없이 연회의 주인은 문명숙이었다. 그 녀자는 온밤 꼬냐크를 마시고 춤을 추었으며 노상 까르르 웃어 대며 들떠있었다. …

다음 날부터 백차관부부는 미국방문준비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쳤다. 미국정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안겨 줄 뇌물, 바레무용학교 입학시험에서 낙선되어 절망에 빠져 있는 딸에문제를 현지에서 수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돈과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은행으로, 백화점으로... 그 다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려고 그들은 각기 가을날 중 쏘다니듯 분주히 뛰어 다녔다. 그런중에도 그 녀자는 하루에도 몇번씩 의례히 토마스를 찾아 가 조언을 받곤 하였다. 행운의 밑물을 탄듯 모든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다 잘 되어 나갔다. 하여 그 녀자는 줄곧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역시 흥겨운 기분으로 고급옷전문상점에 들러 딸애에게 줄 옷을 사들고 나오던 그 녀자는 상점안의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것을 어렴풋이 감촉하였다. 곰팡이 낀 썩은 된장냄새 같기도 하고 퀴퀴하게 부패변질된 고기냄새 비슷하기도 한 냄새였다. 불쾌한 그 냄새는 거리의 사람들속에서도 나고 집안의 식모의 남편한테서도 풍겼다. 그 어디에서나 풍기는 그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그 녀자의 코를 저리고 얼얼하게 하면서 지독스럽게 자극했다.

《아이, 저리 좀 물러 가 앉아요. 당신에게서 왜 그리 퀴퀴한 냄새가 나요? 이거야 어디 참고 견디겠어요!-》 하고 어느날 백차관과 마주 앉아 저녁 식사후 커피를 마시던 그 녀자는 끝내 발칵 성을 내면서 커피잔을 내던지듯 식탁우에 탕- 놓아버렸다.

백차관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얻어 맞은 사람처럼 커피잔을 든채 훌쩍 걸상에서 일어나 어리뻑한 얼굴로 그 녀자를 쳐다 보았다.

《갑자기 웬일이우?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향수를 온몸에 매일 뿌린다는걸 잘 알면서두...》

《그런데 왜 요즘 당신 몸에서 그렇게도 역하고 불쾌한 냄새가 점점 더 나는가 말이에요!-》 하고 그 녀자는 진절머리치듯 잘 다스린 금발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뱀다.

《허, 저 정말 모를 일이어... 혹시 그 코를 수술한 다음부터 그런게 아니우?》

《뭐라구요?...》

그 녀자는 얼굴을 찡그린채 무엇을 생각하는듯 속눈썹이 긴 눈을 연송 깜빡거렸다.

《아, 내 이제는 알겠소... 알겠단 말이어...》 하고 백차관은 그 어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도 한듯 그 녀자의 우뚝한 코를 흐뭇이 여겨 보면서 웨치듯이 말을 뱉 불었다.

《당신의 코가 이제는 완전한 미국녀자의 코로 되었다는 아주 좋은 증거란 말이요!-》

《난 또 무슨... 그따위 새삼스런 소리는 듣기도 싫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마저 들어 보우, 미국사람들은 말이어, 아이적부터 주로 된장, 간장, 파, 마늘, 김치를 먹으면서 성장한 여기 <한국>사람들한테서 늘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소. 또 <한국>사람들은 우유와 빠다, 고기를 먹으며 지란 그들에게서 노린내가 난다고 하고... 그러니 요즘 당신의 코에서 나는 냄새는 <한국>사람들과 나에게서 풍기는 된장, 간장 냄새일거란 말이어. 두고 보우. 이제 미국땅에 들어 서면 즉시 그 불쾌하고 역한 냄새는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질거요!-》

그러자 그 녀자는 불시에 회고 오동통한 손으로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어 댔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하지만 만일 그런것이 아니라면...》 하고 그 녀자는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의심 마우, 믿으라는데두!...》

백차관은 희뻑게 어깨를 으쓱하며 벼룩이 웃었다.

그때부터 그 녀자는 그 불쾌하고 구역질 나는 썩은 냄새와 코언저리의 쑤시는듯한 아픔을 참으면서 높은 코를 쳐들고 들뜬 기분으로 분주히 도시의 여기저기로 돌아 다녔다.

그러던 그 녀자는 공교롭게도 미국에로의 출발을 하루 앞두고 도저히 참을수 없는 코의 동통과 심한 고열로 련속 신음소리를 지르며 끝내 침실에서 일어 나지 못했다.

《여보, 래일은 당장 미국으로 떠나야겠는데... 갑자기 왜 이러우? ...》 하고 백차관은 늘 그렇듯이 조심조심 그 녀자의 침대곁으로 다가 갔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목장에 행금통을 갠다더니... 아, 정말이지 참지 못하겠어요. 코를 쇠집게로 잡아 뽑는것만 같아요. 온몸은 활활 타는 불길속에 든것 같고... 아!...아...아...》

그 녀자는 울부짖듯 열에 뜬 목소리로 신음소리를 질러 댔다. 백차관은 그 녀자의 울부짖는듯한 신음소리에 흠칫흠칫 온몸을 떨었다. 그러다가 슬며시 그 녀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어 보았다.

《어허, 불덩어리로군. 마담, 어쩌면 좋소? ...이런때에 난 어떻게 하라우?》

《어서 존박사를 모셔 와야 해요! ... 오는 길에 토마스선생에게도 알려서... 내가 그의 조언을 지금에 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 줘요!-》

《어허, 그렇지, 그래야겠군.》

당황망조한 백차관은 얼 빠진 사람처럼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눈만 껌벅거렸다.

《아! ... 뭘 그러고 서 있어요? 어서 빨리 존박사를 모셔와요!-》

그 녀자는 충혈된 눈으로 백차관을 쏘아 보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허, 내가 왜 이러구 셧나? ...알겠소, 내 이제 곧 차를 타고 가서 그들을 모셔올테니 걱정 마우...》

백차관은 허둥지둥 덤벼치며 성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시간이 실히 지나서 왕진가방을 든 존박사와 토마스가 백차관을 따라 그 녀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마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왕진가방에서 반사경과 청진기, 검진기구들을 꺼내면서 존박사가 성급히 물었다.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전부터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코가 너무도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존박사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반사경으로 그 녀자의 코안을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마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찾아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존박사는 감때사나와 보이는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랭담한 어조로 물었다.

《예, 전 그저 현대 미국의학기술만 믿고... 그런데 제 코가 어떻게 됐어요?》

《마담, 유감이지만 정형수술한 코가 심한 감염으로 근육들이 썩었습니다.》 하고 존박사는 여전히 랭담하게 말했다.

《네?!... 존박사선생,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담, 코안의 근육조직들이 심하게 썩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안면골 골수염 증상도 예견되는데... 수술을 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이, 존박사선생, 제발 부탁이에요!-》 하고 그 녀자는 발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듯한 목소리로 조급히 말을 덧붙였다.

《존박사선생, 어떻게 하든 긴급대책을...전 래일 미국방문을 떠나야 해요!-》

《마담, 그 몸상태로 미국방문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담, 오늘, 아니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래일 아침에 병원으로 와서 코 재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존박사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아, 이진 정말 청천벽력이군요, 아,... 토마스선생,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좋아요 네?... 조언을 주세요!-》

그 녀자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서 있는 토마스에게 매달리듯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담, 존박사의 말대로 래일 재수술을 하시오. 미국방문은 언제든지... 우리 미국은 세계의 모든 문명한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소!... 마담, 안됐소. 난 지금 급한 일이 제기된 상태여서가 봐야겠소. 그럼...실례하겠습니다.》

토마스는 가면이라도 쓴듯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투격투격 문앞으로 걸어 갔다. 존박사도 그 녀자에게 건승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토마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아!- 토마스선생!- 존박사선생!... 잠깐만... 가지 마세요!-》

그 녀자는 그들을 붙잡으려는데 손을 뻗치며 침대에서 일어 서려다가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여보, 진정하우,... 진정하래두!...》

백차관은 황급히 그 녀자를 안아 일으켜 침대에 눕혔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식모가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 섰다.

《미국에서 지급전보가 왔습니다!》 하고 백차관에게 전보장을 내밀었다.

《뭘...미국에서?...》

전보장을 받아쥐고 훑어보던 백차관은 갑자기 천기에 닿기라도 한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허... 이런 변이라구야! ...애리스가...》

《아니, 우리 애리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고 침대에 누웠던 그 녀자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글쎄...딸애가 절망끝에 자살했다우!... 어허... 어허...》

《뭘예요?... 애리스가?!...》

그 녀자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털썩 머리를 떨구더니 실신한듯 눈을 감았다. 몽롱해 진 의식속에서 간간히 헛소리를 치던 그 녀자는 딸애의 이름을 입속으로 외우고 나서 고통스럽게 발작을 일으켰다.

《거짓말! ...거짓말!...거짓말이야!-》

《여보! -왜 이러우? ...어서 눈을 뜨우.》 하고 백차관은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황황히 그 녀자의 머리를 대꾸 흔들었다.

《어허, 이런... 이봐, 식모! ...의사를! ...의사를 빨리 불러 와!-》

그러나 어느 사이에 나갔는지 식모는 방에 없었다. 당황실색한 백차관이 이쪽저쪽 어딘가에 부딪치면서 문밖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푸!- 소리를 내며 그 녀자는 눈을 떴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는 그 녀자는 무슨 불가사의한 힘이 솟았는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온몸에서 공기가 빠져 나가는듯한 허탈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돌연히 까르르...까르르 웃어 대기 시작하였다.

《호호... 우리는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군요. 얼마나 기쁘고 그리던 미국이에요. ...호호... 당신 말이 옳았어요! ...미국땅에 들어 서니 그 역스런 썩은 냄새도 씻은듯 부신듯 사라지고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아이, 저기 딸애가 달려 오는군요. 애, 애리스!... 애리스야!-》

그 녀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손을 뻗치고 킁킁한 강가쪽으로 외락 달려 가다가 창턱에 부딪쳐 풀썩 쓰러졌다.

《여보! ...당신이 이러면 난...이제 어떻게 한단말이여!-》

백차관은 소가 미치니 말도 미친다는 격으로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청거리며 쓰러진 그 녀자한테로 다가 갔다.

《마담!...마...난...난...이...어... 우...》 하고 알아듣지 못할 입안의 소리로 중얼 대던 그는 작은

나무 자빠지듯 방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불시에 나가 넘어졌다. 불의에 들이 닥친 극도의 강한 정신적충격으로 백차관은 뇌출혈을 일으켰던것이다. 일생을 미국 도깨비피리예 춤을 추며 살아 온 그녀

자와 백차관의 결말은 이러하였다. 캄캄한 밤은 동정이나 베풀듯 그 처참한 광경을 어둠으로 감쌌다. 인적 없는 행한 방안은 온밤 어둡고 고요하였다....

상식

컴퓨터와 전자악기

전자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특색있는 새로운 전자악기들이 수많은 제작되고 그에 의거한 전자음악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음악의 립체화수준과 예술형상수준도 더욱 높아 가고있다.

특히 전자악기와 전자악기사이, 컴퓨터와 전자악기들사이의 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음악정보를 수자식신호로써 전자악기 호상간에 주고 받기 위한 체계가 새롭게 출현함으로써 음악에서 컴퓨터는 훌륭한 연주기교를 소유한 《연주가》로, 수많은 연주가들을 대신하는 독자적인 《경음악단》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컴퓨터가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면 감정이 메마르고 일반적인 연주법으로 단조로운 곡만을 연주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초시기에 컴퓨터는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수 없었고 악보를 읽고 소리나 낼수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모든 전자악기들과의 자유로운 결합이 완전히 실현되고 섬세한 연주법들과 기교들을 충분히 표현할수 있는 음악편집프로그램들이 개발됨으로써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컴퓨터의 예술적형상수준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뿐아니라 연주기량에서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아무리 어려운 연주기교라 하여도 손 쉽게 연주하는 컴퓨터의 재간은 이름난 연주가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며 수많은 연주가들을 대신하여 경쾌하게 울리는 컴퓨터의 경음악연주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컴퓨터로 인간의 풍부한 정서적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음악을 창작연주하자면 창작가자신이 모든 악기들의 연주원리를 잘 알고 능동적으로 리용할줄 알아야 하며 지휘자 및 음향사적인 자질을 갖추는것과 함께 컴퓨터와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음악편집프로그램과 특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컴퓨터음악은 음색적인 문제, 복잡한 주변장치의 리용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속에 남아 있는 전자악기에 대한 편견도 컴퓨터음악의 대중적보급을 저애하는 한가지 요인이다.

그러나 컴퓨터음악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새로운 성과들이 도입되고 있는 조건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컴퓨터는 수많은 연주가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연주가로, 독특한 경음악단으로 될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컴퓨터를 리용하여 음악을 창작하거나 편곡하고 직접 연주하게 될것이며 음악예술의 적극적인 창조자로, 향유자로 될것이다.